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언어문화적 접근**

주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후원: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중국 화북전력대학

협찬: 한성대학교/한국문화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목 차

한국어 교육의 언어문화적 접근 .....	성기철	5
한국어 교육과 문화언어학 .....	강보유	17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과 연구동향 .....	조항록	25
문화적 차이로 본 한국어 교육 .....	하동매	27
어휘와 문화 .....	신현숙	35
鷄林類事·朝鮮館譯語와 中世 韓國語教育 .....	김종철	45
한중 숫자어의 민족문화 의미 비교 연구 .....	강은국	51
한국어 의식론: 무엇이 생략 현상을 조정하는가 .....	김병원	63
두 개의 허구 장르에 대한 옛 한중의 인식: 옛소설과 가전문학을 중심으로 .....	김창룡	71
전자매체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	권현숙	81
한국어 문화 교육과 속담 .....	정봉희	91
한국 지명속담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	이성도	97
『韓國事情』의 授業內容과 授業方法 .....	이길원	113
북경대 한국어학과 학생에 대한 문화 교육 .....	한진건	117
중한 문화의 차이와 한국어 교육 .....	태평무	121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 .....	문영자	131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	강승혜	141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	이미혜	143
홈페이지 프로필을 활용한 한국어 작문 교육에 대하여 .....	김영만	153
청도대학 한국어학과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	염광호	163

# 한국어 교육의 언어 문화적 접근

성 기 철  
(서울시립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참으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 주인공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생각과 활동을 통해 숭한 자연물을 이용하고 또 많은 것을 만들어 내면서 유전해 왔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 또는 현상을 모두 일러 문화라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 문화는 언어를 만들어 냈고, 다시 이 언어에 의해서 문화는 발전에 놀라운 속도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는 상보하고 상생하면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없는 문화도, 문화 없는 언어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문화와 언어가 상호 작용하고 서로 교차하는 독자적 영역을 상정해 보고자 한다.

문화와 언어의 이러한 공유 영역은 언어 교육,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응용 영역을 이룩하게 되었다. 언어 속에 문화가 축적되어 있다는 말은, 언어 교육이 상당 부분 문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은 바로 이러한 점에 배경을 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언어문화학' 또는 '언어문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 영역의 하위 영역 또는 응용 영역이 언어 교육, 특히 외국어 교육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저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성격 그리고 이번 학술 회의의 주제를 고려하여, 언어와 문화의 관계 그리고 언어 문화와 외국어 교육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언어 문화의 의미, 그리고 언어 문화 교육의 의미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 2. 언어와 문화

인류의 발전이란 인지의 발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지의 발달이란 언어를 기초로 해서 가능한 것이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어떻게 정형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인간의 인간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작용은 그 기저에 언어가 자리하고 있다.

언어는 문화의 소산인데, 문화는 언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언어에 의해서 인류 문화는 놀라운 발전이 가능했고, 또 언어에 의해서 인류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보장받고 있다. 언어는 인간이 창조한 인류 문화의 정수요 생명이다. 인간의 지혜와 언어, 그리고 이를 통한 인간의 모든 정신적, 물리적 활동과 그 결과물이 인간의 문화를 형성한다.

언어는 숙명적으로 그 자체가 문화이다. 언어는 인간의 삶의 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삶의 양과 질을 풍요롭게 해 주는 질료이다. 언어는 인간의 정신 작용 속에 함께 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

언어는 사고의 행태, 삶의 행태를 규정해 준다고도 한다.<sup>1)</sup> 언어 없는 사고를 생각하기란 쉽지

1) 'Sapir-Whorf Hypothesis' 또는 '언어 상대성 원리'의 다음 Sapir 인용 참조.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real world is to a large extent unconsciously built up on the language

않다. 이것이 아니고는 원시적인 본능적 사고만이 가능할 것이다. 많은 인종을 구분하고, 많은 사람, 쌍둥이까지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언어이다. 언어적 명명은 대상에 대한 구분이자 차별화로, 이는 곧 대상 인식의 중심 과정이다.

언어는 바로 인류 문화의 핵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인류 문화를 작동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겪어 오는 동안, 언어는 술한 문화 요소를 그 속에 축적해 왔고, 문화는 또 그 요소 요소에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의 생성과 발전을 상보하면서, 서로를 각각의 내부에 투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외면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 없듯이, 문화를 외면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화는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다. 어느 하나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고립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사회를 등진 독자가(獨自) 없고, 특정 시간에 예측된 고정체가 없다. 동적(動的) 본태(本態)를 가진 우주 속에서 이를 본능으로 하고 태어난 인간이 역시 동태이며, 동적 우주 본체를 대변하고 있는 시간이 동태이다.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만상이 동태이며, 이 속에서 동적 본태인 인간과 관련된 모든 활동, 모든 현상이 또한 동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그 본질상 동태이며, 그 안에 문화와 언어를 포함한 모든 현상을 동태로 포괄한다.

문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물어 오면, 인간의 언어는 한계에 온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언어적 한계가 아니라, 문화적 복합성이 그 개념의 한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다원적 복합이다. 어찌 보면 무한적 복합이다. 개체 구성 요소는 흔히 본태를 버리고 융합되어 전혀 다른 모습의 혼합체를 구성한다. 무지개는 수많은 색채의 물리적 연합물이지만, 문화는 많은 이질적 요소의 복합으로서, 물리적 연합과 화학적 혼합의 복합태 또는 중간태(中間態)가 된다.

복합성은 문화와 언어가 다를 바가 없다. 언어에서 순수한 혈통을 찾는다는 것은 이상이라기보다 사고의 유희일 뿐이다. 언어와 문화와 그 주체인 인간이 본원적인 복합성을 공통 특질로 함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Kroeber and Kluchhohn(1963)에서 300여 가지의 문화 정의를 보여 주고 있는 것만도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도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적 관점, 기호론적 관점 등 상이한 이론적 차별화에 따라 문화의 정의는 더욱 다양하게 특성화되고 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표면의 행동 또는 그 배후, 그리고 이들의 표면적 공유 측면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결과 현상에 무게를 두는 데 비해, 인지적 관점에서는 내면적인 측면, 예로 문화의 인식과 습득 등 내면의 공유 측면에 더 주목한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문화는 결과보다 과정에 더 무게를 두게 되고, 아울러 훨씬 개인적이고 사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비해 기호적 관점에서는 문화도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특정의 형태와 특정의 의미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기호 체계로 이해한다.<sup>2)</sup> 한 예로 언어가 특정의 음성과 의미의 결합으로 이루어 내는 기호 체계인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문화의 이론적 정의가 어떻게 차별화되든, 전통적으로 일러 온 문화의 정의로 공통된 것은, 문화란 인간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 그리고 그 결과물을 총칭한다. 여기 어디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언어의 작용이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사고와 행동에 수반되는 것은 언어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작용과 언어 활동, 그리고 이들의 교직을 통해 만들어 내는 추상적 또는 구상적 결과물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가치, 각종 제도 등은 추상적 결과물의 한 예일 것이며, 각종의 예술 활동, 주거 형태 등은 구상적 결과물의 한 예가 될 것이다.

habits of the group. No two languages are ever sufficiently similar to be considered as representing the same social reality.(Sapir (1949:162), in Foley, W. A. 1977: 193))

2) Roibinson, L. N.(1985: 8-12) 참조.

특히 언어 문화가 언어 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과 관련될 때, 굳이 그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추상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 범위는 넓고 그 내용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교육의 특성상 문화의 내용에 굳이 어떤 엄격한 경계를 설정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언어 문화의 개념 자체를 흐리게 하는 것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 3. 언어 문화

위에서 언어, 문화와 관련하여 이들의 본질적인 측면을 돌아보았다. 시각에 따라서 언어와 문화가 둘이면서 하나일 수 있고, 하나이면서 둘일 수 있다. 하나이든 둘이든 각각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언어와 문화는 상호 각각 다른 것을 반영하고 수용한다. 즉 언어 속에 문화가 존재하고, 문화 속에 언어가 존재한다. 이처럼 둘이 연계된 현상, 또는 둘이 혼합된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명명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언어와 문화를 함께 교육해야 하는 언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복합 영역에 대한 별도의 개념 규정이 현실적 요구이기도 하다. 물론 언어 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 영역 사이의 상관 관계에 주목하는 독자적인 영역의 설정은 가능도 하고 필요도 하다.

이러한 상관 현상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해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언어에 반영된 또는 반영되는 문화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에 반영된 또는 반영되는 언어의 모습이다. 이 둘을 각각 언어 속의 문화 및 문화 속의 언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둘이 것처럼 엄격히 구분되는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둘이 동시에 함께 교호 작용하는 언어 문화의 모습도 있는 것이다.

문화가 언어 속에, 그리고 언어가 문화 속에 반영된다면, 그 반영된 실체, 반영되는 양상, 그 배후, 이들과의 관련 문제는 어떠한 것들인가? 언어와 문화의 상호 작용 양상, 두 가지 경우의 배후에 작용되는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 등등은 언어 문화와 관련되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 그 배후와 결과 등에 관한 일련의 영역을 총칭하여 언어 문화라 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깊이를 얻고, 체계화가 이루어진다면, 언어문화학 또는 언어문화론이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가 언어에 미치는 모습은 다양하다. 가장 현저한 것은 특정 문화의 영향으로 한 언어가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주족의 청나라는 정치적으로 한족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화는 한족의 문화에 압도되었고, 드디어는 그 문화에 동화된 나머지, 자신들의 언어마저 상실하였고, 궁극에 가서는 지배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상실하는 비운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언어 소멸 과정은 각양각색의 언어 문화적 측면을 보여 준다.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서도 누 천년에 걸친 중국 문화의 영향, 특히 2000 여년에 걸친 한자 문화는 절반이 넘는 한국 한자어의 생성을 유도한 것 외에도, 한편으로는 한국 고유 문자의 제작에 역기능을 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한글 창제를 앞당기는 순기능도 함께 보여 주었으며, 이것이 한국 민족의 정신적 물리적 삶에 미친 영향은 측량하기 어려운 정도일 것이다. 모든 단어 하나 하나에 문화가 숨쉬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많은 한자어에 작용하는 문화의 모습이란 가위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언어의 급변하는 모습을 무시로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와 언어의 절대 불가분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자어를 만들어 낸 한국어가,

현대에 들어서 다른 수많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수용하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 한국사의 대전환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언어 문화의 주요한 현상의 하나라 하겠다.

다시 대우 현상에서도 또 다른 언어 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현상의 하나는 평등과 개성의 중시 현상이다. 청자 대우법에서 엄격했던 4 화계 체계는 이미 허물어졌다. 하오체와 하계체의 쇠퇴가 그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해서 현대 국어의 화계 체계는 매우 기형적인 것이 되었다. 이에 상응해서 비격식성이 두드러진 2 화계 체계의 해오체와 해체(반말)의 사용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쇠퇴한 두 화계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변천이 아니다. 사회적인 계층 구조의 파괴가 4 화계 체계의 쇠퇴와 2 화계 체계의 도약을 부채질하였다. 2 화계 체계 활성화의 배후에는 엄격한 화계 체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고, 더 근본을 캐 보면, 사회적 계층의 파괴라는 배후의 사회 현상이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언어 문화 현상은 문화가 언어에 미친 영향이라 하겠는데, 이제는 반대로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또는 작용하는 현상을 엿볼 수도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의 하나를 방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언은 지리 또는 정치, 사회적 이유 등으로 만들어진 동일 언어의 작은 분파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공통 조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같은 語族의 상이한 언어를 만들어 낸 자연 현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일단 만들어진 방언은 그 지역을 특징짓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正體性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긍정적으로는 독자성 있는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며, 부정적으로는 배타적 지역 정서를 부추기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회 방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상이한 사회 집단에서 달리 사용되는 차별화된 언어는 특정 사회 집단의 특성이나 그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이질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집단간의 이기적, 정서적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 학생들, 폭력배, 죄수, 인삼 채취인 등의 사회 집단에서, 주로 구성원들끼리만 사용하는 여러 유형의 隱語도 똑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요즘의 컴퓨터 통신 언어도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요즘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 층에서는, 흔히 언어 일부를 생략하고 첨가하고 변형하여, 어떤 경우에는 해괴한 기형의 언어를 만들어 쓰기도 한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통신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제한된 세대에 한정된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일종의 혁명적인 언어 또는 언어 문화의 출현이라 하겠다. 한 언어가 특정 국가의 공용어가 될 때는 언어 정책의 문제 또한 언어 문화로서의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꼭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가 상호적인 언어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언어와 문학의 관계는 상호 절대적이다. 언어가 언어 예술인 문학에 작용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반면, 문학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절대적이다. 언어가 없는 문학을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괴테의 문학이 훌륭한 독일어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말은, 문학이 한 언어의 운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언어와 문화를 접합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언어의 가장 실용적인 기능은 의사 소통에서 드러나지만, 언어의 예술성은 문학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문학은 언어에 의해 그 가치를 판단 받는 측면도 있지만, 문학은 살아 있는 언어 문화의 보고이다.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문학에서, 우리는 언어의 효용과 신비 외에, 다양한 문화의 역동적인 작용을 찾아보고 또 음미할 수 있다. 비단 문학에서만 언어의 작용을 보는 것은 아니다. 공연 예술인 연극, 영화, 오페라 등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언어와 문화의 모습과 상호 작용을 보게 된다.

언어 문화의 예를 거듭 열거할 여유도, 필요도 없겠으나, 언어 문화의 중요한 한 예로 비음성적 언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싶다. Salzmann(1993: 213)은 음성이나 문자 이외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부호상의 통신을 비음성적 언어로 규정하였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광범한 것을 포함한다. 우리에게 주는 정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음성적 언어로 규정할 수 있다. 가령 G. G. Morain(1978)이 몸짓 언어(body language), 물체 언어(object language) 외에 환경 언어(environment language)까지 언급한 것은 그런 고려가 전제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비근한 예로 가령 手相이나 观相 어느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의사 소통의 65%가 비언어적 수단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나(G. G. Morain 1978), 의사 소통의 50-90 %가 비언어적 방법에 의존한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C. Bennett 1996: 65)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비음성적 언어가 언어 문화로서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외국어 교육의 현장에 가서는 그 의미가 훨씬 증대된다.

위에서 몇 가지 실례를 통하여 언어 문화의 사례를 보았는데, 다음에는 좀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언어 문화의 하위 영역 또는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언어 문화의 영역이 매우 광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격상 언어와 문화가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둘의 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범위가 더 축소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광역에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오랜 동안에 걸쳐, 독자성에 안주하던 많은 학문 영역의 벽이 차츰 허물어지고, 새로운 또는 복합적인 새로운 영역으로 재편성되는 오늘의 추세로 볼 때, 언어 문화라는 새로운 영역의 수립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어떤 면에서 또한 당위적인 결과라 할 수도 있다.

우선은 언어 문화의 정의 또는 개념 규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언어, 문화 각각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면서, '언어 문화'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언어 문화란 정확히 누가, 언제, 어떤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아직 찾아보지 못하였다. 가령 박봉배(1992)에서 언어 문화란 말을 되풀이하여 사용하였지만, 그 개념은 그렇게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90년대 이후 특히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에 대한 논의가 얼마간 주목을 받아 왔지만, 아직 언어 문화란 용어는 엄격한 개념 규정 없이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싶다. 2001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창립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구축과 응용을 고려한 데 주요한 배경이 있다.

언어 문화 영역을 고려할 때, 언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언어 교육과 문화와의 관계 설정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을 포함한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언어 문화 교육은 그 하위 영역 또는 그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 하여, 언어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 교육은 언어문화론의 하위 응용 영역이 된다. 언어 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은 언어문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의미가 큰 응용 영역이라 하겠다. 언어 교육과 문화와의 관계는 꼭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하위 영역으로 포함하는 종속 관계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 발생, 발전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하위 영역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학, 문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다. 기왕의 사회언어학 또는 언어 사회학은 언어와 사회의 접합 현상을 다루는 점에서 그 상당 부분을 언어문화론의 영역에 돌려야 할 것이다. 많은 어휘에는 비단 해당 문화만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많은 문화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데, 어휘가 생성에서부터 문화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 한국어의 경우 색채어나 감각어의 발달도 한국인, 한국 문화의 소산일 것이며, 에스키모인의 경우 눈을 지칭하는 어휘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그들 생

활 문화의 소산임에 틀림없다.

문학과 같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의 언어 문화적 중요성은 이미 앞서 지적했던 바이다. 반드시 예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어를 매개로 하는 신문, 방송, 출판 등 대중 매체에서 언어 문화적 측면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텔레비전의 코미디에서도 언어와 문화의 접목을 볼 수 있다. 요즘 대중 매체화되어 있는 컴퓨터 인터넷도 새로운 언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통신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그 기능과 비중, 그리고 그 영역을 날로 확대해 가고 있다.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언어 정보 구축 등 과학과 언어의 접합은 이 시대의 새로운 언어 문화를 형성한다.

한 시대의 사회 의식 또는 사회 심리 속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언어 문화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가령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은 우리 생활에서 실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통신 문화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편지는 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사설 기관이든 공공 기관이든 공문의 수도 날로 줄어가고 있다. 기업의 발달, 사회 구조의 복잡화,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겪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광고 언어는 현대를 특징짓는 언어 문화의 주요한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앞서 언급한 대우법의 변천에서도 우리는 한 시대의 사회 심리 현상을 읽을 수 있다. 언어 속에 드러나는 사회 심리 또는 사회 심리 속에 드러나는 언어의 모습은 다름 아닌 언어 문화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된다.

언어 문화의 영역은 실로 광범하다. 이것은 언어 교육을 전업으로 하는 우리의 몫만은 결코 아니다. 영역의 독자성이 구축되려면, 다방면에서 다양한 이론적 지원과 접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 연구도 다양하게 진전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언어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들은 언어 문화의 연구와 응용의 큰 흐름 하나에 편승하고 있는 만큼, 이에 중요한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계신 교수님 여러분은 크고도 밝은 미래가 기약되는 이 광대한 대륙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고 계신 만큼, 이러한 소중한 임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줄 믿습니다.

### 3. 한국어 교육과 언어 문화 교육

근년에 들어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이전에 문화 교육에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외면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제로는 문화 교육이 부단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교육의 과정에서 문화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겠다. 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언어 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이해된다. 서구에서 지난 세기 후반에 들어 활기를 띤 저들의 연구와 실험은 언어 기능에서 문화 기능을 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이론과 교육 방법이 개발되고 시험되어 왔던 것이, 늦게나마 한국어 교육계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언어 문화 연구는 한국어 교육계 이전에 국어 교육계에서 먼저 논의되고 연구 발전되는 것이 순서였겠지만, 현실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론적 체계화는 그만 두고라도, 언어 문화의 개념이나 그 영역의 설정, 이와 관련된 제 문제의 성격 규명 등 기초적인 문제조차도 본격적인 논의까지에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 같다.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 문화 교육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언어만에 의한 의사 소통이 쉽게 한계에 부딪힌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의사 소통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언어 문화에 대한 지나친 협의의 해



석이 언어 문화 교육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문화 교육 본래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가 하면, 지나친 광의의 포괄적 해석이 자칫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추상적 가치로 허구화할 수 있는 점을 다 함께 경계해야 하겠다.

이에 우리는 문화 교육 또는 언어 문화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그 기본적인 목표는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에 있다. 그러면 어떤 문화 현상이 어떻게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이질 문화의 접촉에서 오는 충격은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의 이질성보다는 언어의 이질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자체의 이질성에서 오는 충격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그 충격의 정도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어 학습자는 이미 언어의 이질성을 전제하였고 또 이해한 것이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충격을 면제 받는다. 그러나 언어 학습에 수반되는 이질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충격을 느낀다. 문화의 이질성에 대해서는 사전 고려를 충분히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려했다라도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부딪쳐 오는 이질 문화의 이해는 그러한 충격의 예방, 완화, 해소로, 의사 소통의 장애 요인을 극소화하여, 의사 소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문화 요소가 의사 소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령 가장 대표적인 한국 언어 문화 요소의 하나인 대우법은 언어 자체 속에 녹아 있어,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한국어 학습은 처음부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언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언어와 불가분의 통합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 문화 현상이 있다. 바로 한국 사회의 인적인 위계화 현상이다. 이 점은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대화 참여자 및 관련 인물 사이의 친소 관계나 위계 관계에 따라, 적절한 언어상의 대우 표현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언어와 사회 문화 현상은 이미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동일체라 할 수 있다.

해당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목표 언어의 대화 상대를 좀더 이해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의사 소통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사고 방식, 행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고, 심한 경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면, 유창한 언어 표현으로도, 효율적인 의사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한국의 의식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가령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윗사람과 식사를 하는 경우, 식사 예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오해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의사 소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 형태의 식사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우 언어 못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유형의 생활 문화는 일상의 의사 소통에서 언어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때로는 이러한 문화가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흔히 소문화(small C)라고 하는 문화 영역에 해당될 수 있는 일상의 생활 문화는 외국어 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문화 요소이다.

문화 교육의 목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외국인으로서 목표 문화권에 얼마 동안 체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생활을 위한 어느 정도의 문화적 적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적응이란 것이 늘 의사 소통과 유리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목표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질 문화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간 관계나 생활 방식에서 조화 또는 순응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목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정신적, 물리적 갈등과 불안, 더 나아가서는 모험이나 위협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소위 대문화(big C)라고 하는 문화 영역의 일부 요소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정치 및 경제 체제, 교육 제도, 지리, 역사, 자연 환경의 문제

등은 여기 말하는 생활 적응에 필요한 문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 교육의 제일 목표는, 의사 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되, 부수적으로 생활의 적응을 위한 것도 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생활의 적응 목표도 의사 소통 능력과 전혀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주종의 두 가지 구분이 흔히 말하는 대문화와 소문화의 두 가지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대소 문화의 구분이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문화 교육에서 요구되는 문화의 하위 구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Lafayette(1997: 123)<sup>3)</sup>가 문화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나열한 13 가지 항목은 이 두 가지 문화를 모두 다 포괄하고 있다. 물론 많은 문화 요소는 학습 과정, 학습자, 학습 환경에 따라 그 선정과 등급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한국 언어 문화도 의사 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소가 선정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아무리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고유의 문화라 해도 학습자의 의사 소통에 기여도가 낮은 것이라면, 버리거나 후 순위로 미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주거와 관련된 언어 학습의 경우라면, 학습 대상이 되는 언어 문화는 현재의 주거 문화이지 옛날의 주거 문화는 아니다. 고유 요소인 초가집, 사랑방, 대청 등이 도입된다면, 이는 의사 소통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학습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역기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요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화 요소가 경시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전체를 동위에서 복합시키는 것은 부질없는 환상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한국어 학습 시간에 언어 관련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문화 교육이 이제 언어 교육에서 각각의 기능 교육과 동렬에 놓일 만큼 그 가치가 인식된 만큼, 실제의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일이다. 언어 교육 목표와 함께 문화 교육의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급별로 등급화되어 명시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교육과정에는 지도상의 유의점, 평가 내용 등까지 적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우선 여기 상응하는 교재가 제작될 수 있다. 종래에는 흔히 이러한 고려가 없이 교재가 먼저 만들어지고, 교재 속의 언어 내용에 따라 연관되는 문화 요소를 찾는 방식을 취하다가, 최근년에 와서야 문화 요소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에 따라 언어 자료를 마련하는 절차상의 발전을 보였다. 교과서의 거의 매 단원에 문화 요소를 소개하기 시작한 2000년 전후의 시기는 한국어 교재 편찬상에 혁신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형식상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교재의 개혁은 곧 한국어 교육의 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 평가할 만하다. 다만 문화 요소의 반영에서, 요소 선정이나 등급화, 교육 방법, 체계화 등에서 보이는 문화 교육 인식의 부족과 이에 연유하는 무리는 금후의 주요한 해결 과제로 남아야 할 것이다.

교재 제작 및 이에 따른 실제 교육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이다. 더 많은 시간의 소요, 교사의 부담 등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교육의 효율을 위해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이 효율적이란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sup>4)</sup> Lafayette<sup>5)</sup>의 지적대로,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이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가지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3) Heusinkveld, P. R. ed. 1997. Passways to Culture. Intercultural Press, INC.. 참조.

4) 다음과 같은 데서도 그 일단을 볼 수 있다.

Robert, C. Lafayette; Carol Ann Pesola(Heusinkveld, P. R. 1997).

5) Heusinkveld, P. R. 1997.

하여금 실세계와 연계해서 이해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된 교육은 이러한 연계성의 결여로 하여, 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감소시키고, 더 본질적으로는 교육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문화 교육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어디에서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어휘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언어 교육의 기본은 어떤 면에서 어휘라 할 수 있는데, 언어에 반영되는 문화의 상당 부분은 어휘와 관련된다. 이것은 문화가 어휘에 큰 비중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에 관한 가장 풍부한 情報源의 하나는 그 언어의 어휘라고 말한 것이나,<sup>6)</sup> 외국어로 효율적인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목표 문화의 이해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어휘 습득이라고 한 것은<sup>7)</sup> 다 같이 어휘와 문화의 특별한 관계를 지적한 말들이다.<sup>8)</sup>

이처럼 어휘 교육이 중시되는 것은 단어가 문장 구성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사실 외에, 단어 단어에 해당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언어만의 교육이란 것이 무의미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문화 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문화의 대조 교육이다. 일반 언어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문화의 경우에도 대조의 방법은 반드시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할 방법의 하나이다. 두 문화를 대조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양 문화에 대한 교육자 자신의 깊은 이해이다. 목표 문화에 대한 교사의 이해 없이는 대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양 문화의 대조 교육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문화 대조에서 Robert Lado가 양 문화권의 차이를 몇 가지 유형별로 제시한 것<sup>9)</sup>은 유념할 만하다. 여기 근거해서 이 문제를 잠시 돌아보기로 한다. 첫째, 형태는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가령 중국어와 한국어에 다 같이 东西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이러한 예는 상당히 많은 수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경우를 들 수 있다. 가령 혼인이나 喪事와 같은 의식의 경우, 그 의미하는 바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은 문화권마다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로 의미나 형태는 같아도 그 쓰임이 다른 경우가 있다. 가령 소금은 그 의미나 형태가 문화권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쓰임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한국과 같은 문화권의 음식에 사용되는 소금의 양은 영미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선입관이 고려되어야 한다. 흔히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이질 문화를 볼 경우, 그것은 가치면에서 크게 평가 절하되거나, 심한 경우 부정될 수도 있다. 한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늘 문제되는 것의 하나는 개고기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치의 문제로, 바로 문화의 차이에 연유하는 것이지, 절대적 가치가 따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 5. 맺는 말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발표는 '언어문화학' 또는 '언어문화론'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구축

6) Heusinkveld, P. R. ed. (1997), 3부 서론 참조(p. 193).

7) Halverson, R. J. (in Heusinkveld, P. R. ed.(1997: 199).

8) Steele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 모든 표현은 문화적 특성을 가졌다고 한 것(Spinelli & Siskin, in Heusinkveld, P. R. eds., 1997: 227 참조)이나, 외국어 학습에서 단어의 의미는 개인적, 사회적 생활의 일부라고 말한 Brooks의 말(Nelson Brooks, Heusinkveld P. R. 1997: 11)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9) Heusinkvled, P. R. 1997 참조.

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학술 회의의 의미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실용적인 하위 영역인 언어 교육에서 언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이를 위해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외국어 교육과 언어 문화의 관계도 한번 더 살펴보았다. 금후 여기 제안하는 새로운 영역의 구축을 위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외국어 또는 한국어 교육에 언어 문화 교육이 어떻게 자리잡아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실에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자나 교육 당사자의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언어문화라는 새 영역의 구축을 위해서 해야 할 연구 과제와 연구량은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언어 교육과 관련해서도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 문화를 현장 수업에 어떻게 도입해서 어떻게 학습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간을 자꾸만 늦출 수 없는 연구 과제인 동시에 실천 과제이란 점만 여기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연구도 미진한 데다가 그런 성과를 두루 살펴 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이 글에 임했기 때문에, 이 논의 또한 편견과 무리가 없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며, 또 이러한 논의에 상이한 의견을 가진 연구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가 어느 쪽이든 일천한 언어 문화 논의에 더 보편화되고 심도있는 연구에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기타무라 다다시. 2001. 언어를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문화. 전농어문연구 제13집.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정숙. 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 민현식. 1996. 국제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봉배. 1992. 국어과 교육의 사회성과 문화 교육. 국어과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 연구. 박봉배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교학사.
- 박영순. 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론. 한국문화사.
- 박영준. 2000.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문화적 어휘 표현의 교육. 한국어 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 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제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인자. 2001. 국어 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 한상미. 1999. 한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의사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 교육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Bennett, C. I. 1999.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4th ed. Allyn & Bacon.
- Fantini, A. E. ed. 1997. *New Ways in Teaching Culture*,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nc.
- Foley, W. A. 1997. *ANTHROPOLOG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Blackwell.
- Heusinkveld, Paula R. ed. .1997. *Pathway to Culture*, Intercultural Press, INC.
- Hinkel, E., ed. 1999.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lieva, Roumiana. 2001. Living With Ambiguity: Toward Culture Exploration in Adult Second Language Classrooms, TESL, Vol. 19, NO. 1, Winter, 2001. TESL Canada Journal.
- Kloph, D. W. 1987, 1995. *INTERCULTURAL ENCOUNTERS: The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hird Edition, Morton Publishing Company.
- Lafayette, R. C., Integrating the Teaching Culture into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in Singerman, A. J. ed. 1988. *Towards a New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Northeast Conference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 Morain, G. G. 1978. *Language and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Washington D. 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Robinson, G. L. Nemets. 1985. *Crosscultural Understanding*, Pergamon Press Ltd.. New York, Oxford.
- Salzmann, Z. 1993.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Boulder, San Fransisco, Oxford: Westview Press.
- Seelye, H. N. 1997.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ational Text Book Company.
- Singerman, A. T. ed. 1988. *Toward a New Integr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Northeast Conference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 Spinelli, E. & H. J. Siskin, Selecting, Presenting and Practicing Vocabulary in a Culturally Authentic Context, in Heusikveld, P. R. ed. 1997.
- T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Vol. 19, No. 1. Winter, 2001. TESL Canada Journal.

# 한국어 교육과 문화언어학

강 보 유  
(복단대학)

## 1. 문화언어학의 탄생

19세기 상반기 독일의 언어학자 W·V·Homboldt로부터 언어를 문화와 접목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인류 언어 구조의 차이 및 인류 정신 발전에 대한 영향을 논함』에서 처음으로 언어 구조와 인간 정신과의 관계를 서술했다. 그 뒤를 이어 20세기 초에 미국의 인류학자 F·Boas와 그의 두 제자 A·L·Kroeber, E·Sapir 그리고 E·Sapir의 학생 B·L·Whorf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조사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인류언어학(Anthropological Linguistics)을 창시하였다. 이로부터 언어를 문화와 연계시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는 罗常培의 『언어와 문화』(1950년)가 문화언어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문화언어학은 20세기 80년대 중기에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다. 1985년 游汝杰, 周振鹤이 《夏巨学报》 제3기에 발표한 『方言与中国文化』에서 처음으로 《문화언어학》 분과에 대해 설계하면서 《문화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썼다. 중국 언어학자들은 중국에서의 문화언어학 창립과 연구라는 뜻에서 흔히 《중국문화언어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언어이고 문화학의 연구 대상이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언어학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언어학과 문화학이 접목된 언어학의 한 개 분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언어학은 기술언어학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해석언어학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언어구조에 투영된 문화요소에 대한 발굴과 해석이 문화언어학의 주된 과제로 나선다.

민족의 문화의식이 언어 구조에 투영되면서 세계 언어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중국어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한국어의 문화적인 특징을 발굴하여 중국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수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 논문을 시작한다.

아래에 한국어 교육을 문화언어학의 차원에서 재조명하면서 한국어 음운(음절 및 문자), 어휘, 문법에 투영된 문화현상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발음 교육과 음운(음절 및 문자) 문화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문법이기에 앞서 발음법이다. 모국어의 간섭에서 벗어나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게 가르치자면 발음 교육에서 음운(음절 및 문자) 구조 속에 투영된 문화 배경을 제시해주면서 가르쳐야 한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어음체계가 다르다. 한국어의 무성자음은 기식과 긴장도에 따라 평음, 경음, 격음의 3계열체계를 이루는데, 평음에는 /ㄱ, ㄷ, ㅂ, ㅅ, ㅈ/, 경음에는 /ㄱ', ㄷ', ㅂ', ㅅ', ㅈ'/, 격음에는 /ㄱ'', ㄷ'', ㅂ'', ㅅ'', ㅈ''/이 있다. 중국어의 무성자음(声母)은 조음시 기식의 강약에 따라 送气音(유기음)과 不送气音(무기음) 2계열체계를 이루는데, 유기음에는 /p, t, k, q, ch, c/가 있고 무기음에는 /b, d, g, j, zh, z/가 있다. 자음의 분류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 자음

을 발음할 때 중국어 자음대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짙다. 중국어에는 한국어와 같은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 없는 관계로 중국 학생들에게는 한국말의 평음과 경음이 똑 같은 음으로 인식되기에 발음 시에 구별을 잘 하지 못한다. 경음을 발음할 때 첫음절에서는 별문제가 없지만 첫 음절을 제외한 기타 음절에서는 경음을 평음으로 발음하는 경향 아주 짙다. 그리고 “물고기”와 “불고기”에서 보다시피 같은 어음환경일지라도 합성어의 긴밀도에 의해 경음화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기시켜줘야 한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발음구조와 음절구성이 다른 관계로 교사는 한국어 발음 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글은 표음문자라고는 하지만 발음규칙이 특별히 많아서 음운변화가 별로 없는 중국 汉字에 버릇된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국어는 자음(声母) 21개, 모음(韵母) 36개로 도합 57개의 음소가 있지만 음절구성상 제약이 많고 또 한국어와 같은 폐음절(혹은 중성)<sup>10)</sup>이 없는 관계로 음절수가 적어 395개<sup>11)</sup> 정도에 불과하다. 거기에 4개의 성조(声调)까지 동원되어도 음절수가 1,300개를 넘지 않는다.

한국어는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도합 40개의 음운이 있지만 음절구성상 제약이 적고 또 음절구조상 초성, 중성, 종성이 갖추어져서 음절수가 많아 2,088개<sup>12)</sup>에 달한다. 한국어 음절구성에서 폐음절이 1,758개나 되어 음절총수의 84.2%를 차지한다.

음절의 발음단위로 볼 때, 중국어는 字中心의 언어이다. 중국 汉字는 표의문자로서 매개 음절(글자)마다 단어의 기능을 하면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자마다 또박또박 발음하도록 되어 있어서 음운변화가 별로 없다. 이것이 표음문화의 특징이다.

음절의 발음단위로 볼 때, 한국어는 词중심의 언어이다.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음절 묶음이 단어의 기능을 한다. 때문에 음운변화가 특별히 많다. 한국어의 단어는 2음절어 혹은 3음절어가 대부분이다. 1음절어라 해도 한국어는 통사적으로 조사, 어미가 첨가되어 2음절 이상의 형태단어로 활용되기 때문에 발음 시에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음운변화가 많이 생긴다. 특히 중성과 초성이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음운변화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표음문화의 특징이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 발음 시 연음을 하려 하지 않는데, 문화언어학적으로 볼 때, 한국어 연음을 못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음절구조로 볼 때, 현대 중국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절대부분이 폐음절이 아닌 개음절로 되어있기 때문에 발음생리학적으로 연음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중국어는 운율(韵律)상 매개 음절이 거의 하나의 음보(音步)로 역할하기 때문에 발음심리학적으로 글자마다 또박또박 발음하려는 문화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 즉 연음을 해야 할 위치에서 연음을 해야 하는 심리적 준비가 없다. 시초부터 글자를 단위로 발음하는데 버릇되고 연음에 버릇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에서의 연음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어에서의 연음현상을 문제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글이 음소문자이기 는 하지만 영어처럼 풀어쓰지 않고 자형을 汉字처럼 음절마다 묶어 쓴 관계로 《음절=글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된다.

한국어는 음절구성에서 폐음절이 많은 관계로 음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중화, 동화와 같은 어음변화가 빈번하다. 중국 학생들에게 정통 한국어 발음교육을 시키려면 반드시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형태단어를 기본으로 하는 발음단위에 대한 문화언어학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음절구조의 특성과 음운변화의 특성으로 보아, 음절묶음 속에서 반복적인 발음지도를 하는

10) 현대중국어에서는 소위 중성으로 [r]과 [n], [ng]이 있지만 [n]과 [ng]은 鼻韵母의 일부로서 앞의 元音(모음)과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1) 黄伯荣·廖序东主编(1983:131-159) 참조.

12) 김진용(1986:1-11) 참조.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구어는 강약액센트(轻重音)를 초음단(超音段)의 주요특징으로 삼고 경음, 중음이 의미식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방의 시가, 성악의 가락과 선율은 강약의 박자를 기초로 한다. 중국어의 초음단의 주요특징은 성조(声调)로서 중국의 성악은 자음의 성조를 기초로 한다.

한국어에서는 “눈(眼)”은 [nun]으로 단음으로 발음하고 “눈(雪)”은 [n : un]으로 장음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고저장단에서 장단이 주로 초음단의 기능을 한다면, 한국의 가락도 장단을 기초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말에 “가락이 맞는다”를 “장단이 맞는다”로, “박자를 맞추다”를 “장단을 맞추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므로 한국어 발음교육에서는 강약, 고저가 아닌 장단에 대한 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어휘교육과 어휘 문화

언어에서 문화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어휘이다. 때문에 어휘교육에서 흔히 문화교육까지 담당할 때가 많다.

두 언어의 어휘체계를 완전대응, 비대응, 불완전대응 체계로 분류하고 그 속에 투영된 문화인자를 발굴하면서 어휘교육을 할 수 있다.

완전대응 체계에 속하는 어휘들은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같은 전문용어와 술어(术语)가 절대부분을 차지한다. 완전대응 체계 속에 들어있는 어휘들은 세계 공동문화재산이라 할 수 있어서 오해나 곡해가 있을 수 없다.

어휘의 비대응 체계에 속하는 어휘들은 그 수가 적고 또 문화적인 접촉이 잦을수록 서로 차용해 쓸 수 있기에 비교적 쉽게 접수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의 “김치”, “한복”, “태권도”, “님”과 중국어에서의 “旗袍”, “子女, 儿女” 등이 비대응 체계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한국어에는 “아들”과 “딸”을 포괄하는 상위어가 고유어에 없는 관계로 중국어 “子女, 子息”에서 차용하고 있다. 이런 비대응 체계에 들어있는 어휘들에 흔히 문화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불완전대응 체계에 속하는 어휘는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참조물과 의미가치가 다른 관계로 문화적인 간섭을 받을 소지가 많아서 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러므로 어휘의 불완전대응 체계에서의 빈자리를 문화언어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해야 한다.

한국어는 객관세계를 등분할 때, 각광을 주체보다 객체에 많이 보내는 관계로 중국어와 한국어는 지시대명사 분류체계에서 불완전대응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어는 “这”와 “那”에 의한 2분법이 발달했지만 한국어는 근칭(近称)의 “이/여기”, 중칭(中称)의 “그/거기” 그리고 원칭(远称)의 “저/저기”에 의한 3분법이 발달했다. 이렇게 한국어는 시공간에 대한 척도가 자연에 순응함으로써 그 기준점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다. 이런 3분법은 바로 객체에 더 많은 각광을 보내줌을 말해준다. 중국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这”와 자기 주위를 떠난 “那”로 2분법을 취하는데, 중국어의 “这”는 한국어의 “이”보다 가리키는 범위가 훨씬 커서 한국어의 “그” 범위까지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어의 “그/거기”는 공간적인 거리개념을 떠나서 흔히 대화현장에 없는 사물이나 사실, 장소를 가리킬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불완전대응을 일대일(一対一)의 대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형제간 친족어에서도 한국어와 중국어는 불완전대응 관계가 이루어진다.

중국어 “哥哥”와 “姐姐”에 대응되는 한국어 친족어는 화자(나)의 성별기준에 따라 달리 부르는데, 화자(나)가 남동생이라면 각각 “형(님)”, “누나”라 부르고 화자(나)가 여동생이라면 각각 “오빠”, “언니”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손아랫사람의 성별까지도 교대하지만 중국어에



서는 그런 교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윗사람에 대해서는 “형(님)”, “누나”, “오빠”, “언니”하고 세분하지만 아랫사람인 “동생”에 대해서는 세분하지 않는다. 되려 중국어에서는 성별 관계에 따라 남동생은 “弟弟”라 부르고 여동생은 “妹妹”라고 부른다. 한국어에서는 또 동생을 이르는 “아우”는 부르는 사람과 부름을 받는 사람간의 성별이 같아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 이는 문화언어학으로 볼 때, 자기의 신분까지 교대해주는 문화심리현상으로서 상대방을 엄두에 두고 있는 한국어의 청자 대우형식으로 볼만하다. 형제간에 손윗사람의 역할과 손윗사람에 대한 존경 그리고 남녀의 뚜렷한 구분이 가족문화에서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단어의 문화상징적 의미체계에서도 불완전대응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문화에서는 “붉다”(红色)가 행복, 기쁨, 길상, 환락, 열렬 그리고 행운, 성공과 같은 가장 생활화한 문화상징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국문화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다. 한국문화에서는 “희다”(白色)가 고결(高洁), 순결(纯洁), 희망(希望), 길상(吉祥) 등과 같은 문화상징 의미를 담고 있어 “흰색”이 한민족의 가장 친근한 색깔이면서 가장 즐기는 색깔로 되고 있다. 동일한 빛깔에 대한 중한간의 부동한 문화상징 체계를 읽을 수 있다.

#### 4. 문법 교육과 문법 문화

문법교육 과정에서는 어순과 경어법 그리고 접속법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어, 목적어, 동사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어순의 기본유형은 SOV, SVO, VSO가 대표적이다. 유형학적으로 볼 때, 중국어는 전형적인 SVO언어인데 반해 한국어는 전형적인 SOV언어이다.

한국어에서 목적어가 술어의 앞에 놓인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객체중심의 언어문화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주체가 어떻게 행동한다기에 앞서 그 행동이 미치는 객체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각광을 보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킨 후 결정적인 행동판단을 내린다. 그와 반대로 중국어는 객체선정에 앞서 행동판단이 먼저 앞섬으로써 그 행동판단에 대한 강한 주체의식이 돋보인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동사가 항상 문말에 온다는 것은 한국어가 상황판단에 따라 주체의 행동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이 짙다. 청자의 반응을 보아 화자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로부터 한국어는 중국어보다도 객관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통사구조에서의 관형어의 위치를 보면 한국어나 중국어나 모두다 관형어가 중심어의 앞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어는 SVO언어지만 세계 61종의 SVO언어 가운데서 유독 중국어만이 관형어전치구조를 가진 언어라고 한다<sup>13)</sup>. 즉 중국어의 관형구조는 SOV언어와 같다. 관형구조로 볼 때, 한국어와 중국어는 다 같이 참조물이 목적물보다 앞서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관형어가 중심어의 뒤에 올 때가 많다. 예컨대,

- (1) ㄱ. 荷塘四周, 长着许多树, 蓊蓊郁郁的。(朱自清《荷塘月色》)  
 ㄴ. 려뭇두리에는 각가지 나무가 우거져 울울창창하다. (주자청《려뭇의 달빛》)
- (2) ㄱ. 小草偷偷地从土里钻出来, 嫩嫩的, 绿绿的。(朱自清《春》)  
 ㄴ. 연두색풀썩이, 파란 풀썩이 땅속에서 뽀족뽀족 고개를 쳐든다. (주자청《봄》)
- (3) ㄱ. 他们应该有新的生活, 为我们所未经生活过的。(鲁迅《故乡》)  
 ㄴ. 그들은 새로운 생활을 해야 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을. (노신《고향》)

13) 崔应贤 等著(2002:13) 참조.

예문(1)의 통사구조로 볼 때, “蓊蓊郁郁的”이 관형어 구실을 하지만 중심어 “树” 뒤에서 중심어를 수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역문(14)에서는 술어로 옮겨놓고 있다. 예문(2)에서는 또 “嫩嫩的, 绿绿的”이 의미상 부사어의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문에서는 관형어로 옮겨놓고 있다. “嫩嫩的, 绿绿的”을 관형어로 보느냐 아니면 부사어로 보느냐 하는 쟁론의 소지가 있다는 자체가 바로 중국어 문장 성분의 분류가 주관적이고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예문(3)에서만 원문의 어순대로 역문에 옮겨놓으려 했으나 결국에는 중심어 “생활”을 다시 한번 등장시켜 관형어가 아닌 목적어를 만들어버렸다. 이는 바로 한국어 통사구조에서 중심어에 후치한 관형어를 인정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한국어에서는 화용론의 가도에서 동사에 후치한 목적어는 있을 수 있어도 동사에 후치한 관형어란 존재할 수 없다.

수량구조 어순을 현대시각으로 보면, 중국어에서는 수사가 명사에 전치한 구조인 [Q+(Cl)]+N이 전형적이고 한국어에서는 수사가 후치한 구조인 N+[Q+(Cl)]가 전형적이다. 15세기 문헌고찰에 의하면(15), 한국어도 원래는 중국어와 같은 수사전치 구조가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량사가 발달한 중국어에서는 원래 어순을 계속 보전을 하고 있지만 수량사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한국어에서는 결국 수사후치 구조로 어순을 바꾸고 말았다. 수량사란 바로 명사의 앞에서 그 명사의 개념을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수사후치 구조에서는 명사가 수사의 앞에 놓이기 때문에 수량사의 개입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

통사구조에서 한국어의 문화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법범주가 바로 경어법이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청자경어법의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주체경어법과 객체경어법은 통사구조 속에는 있지만 대화의 장면에는 없을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존대여부를 나타낸다면, 청자경어법은 대화의 장면에는 있지만 통사구조 속에는 없을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존대여부를 나타낸다. 이렇게 화맥에서 단순히 화자와 청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를 오가는 제 3자인 객자(客者)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 한국어 경어법의 특징이다. 한국어의 이런 경어법은 자기(주체, 화자)를 제외한 상대방(객체, 청자)을 이야기 중심점(중심)에 놓고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국어가 객체중심의 언어임을 입증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문법형태의 표출이 특징으로서 문장의 접속형식인 연결어미가 발달했다. 한국어 연결어미는 조건, 양보, 대립, 목적, 결과, 인과 등 관계에 따라 분류되어 통사구조에 표출되지만 중국어는 연결어미가 양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통사구조에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어에서의 이런 문법형태의 표출은 객관사실과 그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려는 객체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는 사물의 관계가 통사구조 속에 표출됨으로써 객관적이지만 중국어는 표출되지 않음으로써 주관적이다.

## 5. 결말

민족문화 의식이 언어구조에 투영되면서 세계 언어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언어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해보았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예문(1, 2)의 역문은 초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 제4권(연변교육출판사 1985)에서 옮겨온 것이고 예문(2, 3)의 역문은 초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 제1권(연변교육출판사 1984)에서 옮겨온 것이다. 예문(3, 4)의 역문은 노신/허세욱 옮김 《아큐정전(외)》(범우사 1990)에서 옮겨왔다.

15) 강보유(2000:96) 참조.

1. 발음교육은 한국어 음절구조의 문화특징으로부터 해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운과 음절(문자) 구조 속에 투영된 문화배경(표의문화와 표음문화)이 다르므로 해서 중국어와 한국어는 발음구조와 음절구성이 다르다.

중국어는 음절구성상 제약이 많아 음절수가 적고 폐음절(중성)이 없는 관계로 발음변화가 적고 분포에 따라서도 음절발음이 변하지 않는다.

한국어는 음절구성상 제약이 적고 또 음절구조상 초성, 중성, 종성이 갖추어져서 음절수가 많고 폐음절이 많은 관계로 발음규칙이 특별히 많다.

한국어에서 장단이 주로 초음단의 기능을 하면서 한국 가락의 바탕이 된다. 한국어 발음교육에서 강약, 고저가 아닌 장단에 대한 교대가 필요하다.

2. 어휘체계를 완전대응, 비대응, 불완전대응 체계로 분류하고 그 속에 투영된 문화인자를 발굴하면서 어휘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완전대응 체계 속에 들어있는 어휘들은 세계 공동 문화재산이고 비대응과 불완전대응 체계에 들어있는 어휘들은 해당 민족의 고유한 문화재산이다. 그러므로 비대응과 불완전대응 체계에 속하는 어휘들에 대한 문화탐방이 어휘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지시대명사로부터 본다면 한국어와 중국어가 문화적으로 세계를 재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어는 객관적이고 중국어는 주관적이다.

형제간 친족어 비교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화자(나)의 신분(성별)을 밝힘으로써 청자에 각광을 보내고 손윗사람에 대한 대우가 돋보인다.

3. 문법 교육은 문법 형태와 문법 범주에 대한 단순한 교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법 구조에 투영된 문화적 요소에 대한 해부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유구조와 언어구조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순, 경어법, 접속법의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보면, 중국어는 《주체중심의 언어》(혹은 자기중심의 언어)라 하고 한국어는 《객체중심의 언어》(혹은 상대방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를 주체중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와 비교해 볼 때, 언어표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언제나 화자가 이야기 중심(구심점)에 서있다. 한국어를 객체중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는 언어표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객체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화자(주체)보다 상대방(객체)에 항상 이야기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방(객체)이 이야기 구심점에 놓인다.

끝으로 한국어교육이 단순한 언어교육 단계를 넘어서 한국문화교육으로까지 승화하자면 반드시 문화언어학 이론이 조명된 한국어교육으로 되어야 한다고 부언하고 싶다.

## 참고 문헌

- 강보유. 2000. 『15세기 한국어의 관형구조 연구』. 태학사.  
 강보유. 2002. 「문화언어학 시각으로 본 한국어문법교육」.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I』. 태학사.  
 강보유. 2002. 「중·한 양국의 빛깔의 문화상징적 의미 비교」. 石源华 主编. 『韩国传统文化的反思和新探』. 大旺社.  
 강보유. 2002. 「중국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수법」. 『한국어 교육』 제1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광해. 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종택. 1982. 『国语话用论』. 형설출판사.
- 김종택. 1992. 『국어어휘론』. (주)탑출판사.
- 김진용. 1986. 「현대조선어의 음절수에 대한 연구」. 『조선어문』. 1986년 특간호.
- 남기심·고영근. 1987. 『표준국어문법론』. 탑出版社.
- 리득춘. 1988. 『조선어어휘사』. 연변대학출판사.
- 박명석. 1979. 『东과 西-그 意识构造의 差异』. 探求堂.
- 신헌재 외. 1996.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도서출판 박이정.
- 李观洙. 1988. 「国语와 言语意识-古代에서의 母胎意识을 中心으로」. 『홍익어문』 제7집.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홍익어문연구회.
- 李敦柱. 1992. 全订增补版. 『汉字学总论』. 博英社.
- 이익섭 외. 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장덕순. 1995. 『한국민속과 문학』. 도서출판 박이정.
- 조현용. 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최길시. 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최봉춘. 1993. 「한어와의 대비속에서 본 조선어의 문화적 특징」. 『중국조선어문』 제5, 6호.
- 최윤갑. 2000. 『한국어문법』. 吉林人民出版社 延边教育出版社.
- 황현옥·강보유. 2001. 「한국어 문법교육에서의 화용론의 접근 방법 모색」. 『중국조선어문』. 제5, 6호.
- 顾嘉祖 陆升 主编. 1990. 『语言与文化』.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戴昭铭. 1996. 『文化语言学导论』. 语文出版社.
- 邓晓华. 1993. 『人类文化语言学』. 厦门大学出版社.
- 罗常培. 1989. 『语言与文化』. 语文出版社.
- 马勇 公婷 等编. 1988. 『中西文化新认识』. 夏旦大学出版社.
- 马清华. 2000. 『文化语义学』. 江西人民出版社.
- 潘文国. 2002. 『字本位与汉语研究』. 华东师范大学出版社.
- 范晓 主编. 1998. 『汉语的句子类型』. 书海出版社.
- 常敬宇. 1995. 『汉语语汇与文化』. 北京大学出版社.
- 邵敬敏 主编. 1995. 『文化语言学中国潮』. 语文出版社.
- 苏新春 主编. 1996. 『汉字文化引论』. 广西教育出版社.
- 申小龙. 1988. 『中国语言的结构与人文精神』. 光明日报出版社.
- 申小龙. 1991. 『语言的阐释-中国语文传统的现代意识』. 辽宁教育出版社.
- 申小龙. 1995. 『当代中国语法学』. 广东教育出版社.
- 申小龙. 1996. 『文化语言学论纲』. 广西教育出版社.
- 申小龙. 2001. 『汉语语法学 - 一种文化的结构分析』. 江苏教育出版社.
- 申小龙. 2003. 『汉语与中国文化』. 夏旦大学出版社.
- 申小龙·张汝伦 主编. 1991. 『文化的语言视界-中国文化语言学论集』. 上海三联书店.
- 杨德峰. 1999. 『汉语与文化交际』. 北京大学出版社.
- 伍铁平. 1997. 『语言和文化评论集』.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 姚小平. 1995. 『洪堡特-人文研究和语言研究』.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王福祥·吴汉樱. 1994. 『文化与语言(论文集)』.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王作新. 1999. 『汉字结构系统与传统思维方式』. 武汉出版社.
- 游汝杰. 2003. 『中国文化语言学引论(修订版)』. 上海辞书出版社.
- 张公瑾. 1998. 『文化语言学发凡』. 云南大学出版社.
- 张黎. 1994. 『文化的深层选择-汉语意合语法论』. 吉林教育出版社.
- 郑春苗. 1994. 『中西文化比较研究』.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赵爱国·姜雅明. 2003. 『应用语言文化学概论』.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朱文俊. 1994. 『现代英语语言与文化研究』.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朱文俊. 2000. 『人类语言学论题研究』.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 周振鹤·游汝杰. 1986. 『方言与中国文化』. 上海人民出版社.
- 陈建民·谭志明 主编. 1993. 『语言与文化多学科研究』.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崔应贤 等著. 2002. 『现代汉语定语的语序认知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何萍. 1991. 『人类认识结构与文化』. 武汉出版社.
- 邢福义 主编. 2000. 『文化语言学』. 湖北教育出版社.

- 胡裕树 主编. 1983. 『增订本『现代汉语』. 上海教育出版社.
- 黄伯荣·廖序东 主编. 1983. 『现代汉语』(上,下册). 甘肃人民出版社.
- Bernard Comrie 著. 1988. 廖秋忠译「语言类型学」. 『国外语言学』. 1990年 第4期.
- Charles N. Li, Sandra A. Thompson 著. 1976. 李谷城 摘译「主语与主题: 一种新的语言类型学」. 『国外语言学』. 1984年 第2期.
- Edward sapir 著. 陆卓元译. 1997. 『语言论-言语研究导论』. 商务印书馆.
- Wilhelm von Humboldt 著 姚小平译. 1997. 『论人类语言结构的差异及其对人类精神发展的影响』. 商务印书馆.

#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과 연구 동향

조 항 록  
(연세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주요 내용 구성 요소
3. 한국어 문화 내적 요소
  - 3.1 언어 문화 요소
  - 3.2 비언어적 의사소통 요소
  - 3.3 영역별 문화 요소
4. 한국어 문화 외적 요소
  - 4.1 한국어 문화 학습자
  - 4.2 한국어 문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 4.3 한국어 문화 교육자료
  - 4.4 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
  - 4.5 한국어 문화 능력 평가
5. 결론

참고 문헌

# 문화적 차이로부터 본 한국어 교육

하 동 매  
(대련외국어대학)

## 1. 머리말

목표언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문화와 목표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여 보다 명확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휘, 문법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를 제시하였는데 어휘는 주로 호칭어를 다루고 문법에서는 시제와 어미를 다루었으며 결론적으로 이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교재의 편찬과 수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2.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문화적 차이는 한국어 교육 과정 전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1) 언어에는 그가 속해있는 사회의 문화적 양식이나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그 함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2) 외국어를 학습하는 대부분 학습자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문화 충격을 경험할 때, 학습자는 자기와 다른 문화를 '잘못된' 또는 '이상한' 것으로 과대 간소화해 버린다.(Brown, 1994)<sup>16</sup> 문화적 차이에서 출발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가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문화오해로 인해 의사소통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문화적 차이가 목표어를 배우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가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필자는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 첫 수업에서 자모음 9개밖에 안 배운 학생들이 텔런트 배용준의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었다. 제1외국어로 영어, 일본어 등을 배우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는 한류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은 더구나 '합한족'의 중심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류는 한국 문화가 중국 각지에서 일으킨 돌풍이며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이 학생들의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같은 양상과 내용이라면 문화 자체가 학습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언어에 대한 내적 동기도 그만큼 절감될 것이다.

## 3. 어휘 문법에 반영된 문화적 차이

16) 장경은. 2001.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현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p.437.

어떤 사물이나 대비를 통해서만이 그 특성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는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필경은 한가지 문화가 아니므로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국어 화자들에게 사뭇 중요하다. 언어와 사유 및 문화는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사유의 도구가 되는 언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사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요소를 교육하고 그 차이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2.1 어휘에 내포된 문화적 차이

언어 부호체계에서 문화의 영향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은 어휘이다. 어휘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용적 의미 외에 문화적 의미를 포괄하여야 한다.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휘라면 한국에만 특유한 ‘한복’이나 ‘아리랑’ 같은 어휘가 연상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휘는 이런 다분히 한국적 색채를 띠고 있는 부분에 그치지 않고 호칭어, 완곡어, 색채어, 수량사, 관용어, 성구, 속담 등 여러 면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어휘들이 모국어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교수요목에서 제외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연관이 깊고 풍속, 세태, 정서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한 민족의 문화가 다른 민족의 것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기에 필연적으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호칭법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언어표현이므로 한국어의 호칭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인의 대인관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호칭어의 경우, 한국어에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친족명칭을 전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경사회의 언어 습관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가족관계형성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심리가 언어표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의 호칭어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관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동안 많이 쓰이던 ‘同志’라는 호칭어도 복잡한 호칭을 간결하게 하여 ‘老同志’, ‘小同志’, ‘小王同志’, ‘女同志’ 등으로 부르거나 이름 뒤에 ‘동지’를 넣어서 불렀다. 요즘에는 ‘先生’, ‘女士’가 ‘同志’보다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친족호칭을 전의하여 ‘大爷, 大娘, 大嫂, 大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어처럼 그대로 ‘아주머니, 언니’ 등을 전의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大, 老(老大爷)’ 등을 넣어서 부른다.

이렇듯 한국어는 대우법체계가 복잡할 뿐 만 아니라 호칭어도 중국어보다 복잡하다. 그러므로 호칭어를 강의함에 있어서 한국어의 어휘를 제시하고 중국어로 뜻풀이하는 단순한 방법에서 벗어나 문화적 차이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 1) ‘김민호 씨’ 문제

한국어에서 ‘김민호’라는 사람이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호칭도 친척으로부터의 호칭을 빼고도 다음처럼 많다.<sup>17)</sup>

- (1) ① 과장님 ② 김 과장님 ③ 김민호 씨 ④ 민호 씨 ⑤ 민호 형 ⑥ 김 과장 ⑦ 김 씨 ⑧ 김 형 ⑨ 김 군 ⑩ 김민호 군 ⑪ 민호 군 ⑫ 김민호 ⑬ 민호 ⑭ 민호야

여기에서 경어법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학생들의 실제와 결부해 볼 때 제일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것은 세 번째 ‘김민호 씨’이다. 중국어에서는 그냥 ‘金民浩, 你去图书馆吗?’라고 하면 되지만

17) 이익섭. ‘국어의 힘’.



한국어에서는 서로 익숙하지 않은 사이이면 ‘김민호 씨, 도서관에 가요?’라고 하여 이름 뒤에 ‘氏’자를 넣어야 한다. 중국어에서는 이전에 여자들이 결혼하면 거의 다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남편의 성에 ‘太太’를 붙이거나 또는 남편의 성과 본인의 성 뒤에 ‘氏’를 붙여 썼던 것이다. 이런 현대 중국어에서도 별로 쓰이지 않는 글자를 이름 뒤에 붙여 쓰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성이나 이름의 밑에 붙이어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 주면 ‘선생님 씨는 친절하십니다.’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고 있고, ‘친구 씨는 어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라는 오류도 범하는데 후자는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기보다 ‘김민호 씨’ 등 형식이 교재 등에 빈번하게 나타나기에 학생들은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다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2) ‘아빠, 엄마’ 문제

한국어의 ‘아빠, 엄마’를 중국어로 ‘阿爸, 阿妈’라고 번역했다면 이것 역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중국어에도 ‘父亲 → 爸爸 → 爸’ 이런 정중함으로부터 친근함을 나타내는 형식의 호칭이 있으나 한(漢)민족은 ‘阿爸, 阿妈’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중국 남방의 일부 소수민족들이 부모를 호칭하는 단어이다. ‘아빠, 엄마’의 친근한 느낌을 더욱 잘 표현하려고 ‘阿爸, 阿妈’라고 번역했을 지는 몰라도 이는 좀 억지스럽다. 드라마를 번역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으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호칭어로 인한 이러한 혼란이 생길 소지가 많다고 본다.

## 3) ‘어머니’, ‘아줌마’, ‘언니’, ‘아저씨’ 문제

박영순(2000)에서는 한국어에서 남의 어머니도 은유적인 수법을 통해 형식적으로 동일한 ‘어머니’란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ㄱ. 어머니, 영희는 어디 갔어요? (영희 어머니에게)

ㄴ. 어머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중국어에서 남의 어머니를 ‘妈妈’라고 부르지 않으며 학생들의 경우라면 어머니와 연세가 비슷한 여자분들을 ‘阿姨’라고 부른다. ‘阿姨’는 ‘어머니와 같은 향렬이고 연세가 비슷한 여자분을 부를 때 쓰이며 한편으로 보모에 대해서도 쓰인다고 하였다.(예: 王阿姨, 售票员阿姨)<sup>18)</sup> ‘阿姨’는 어느 정도 한국어의 ‘아줌마’에 해당되지만 한국어에서는 ‘王阿姨’처럼 성씨 뒤에 사용하여 ‘김아줌마’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박영순(2000)에서는 한국어의 ‘언니’의 경우는 단순히 비친족에게 친족호칭을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누나’는 남자들의 ‘姐姐’이고, ‘언니’는 여자들의 ‘姐姐’라고 가르쳐 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자들도 여자 종업원을 보고 ‘언니’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 교재에는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갔다거나 중국에서 한국사람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경우, 이런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경우는 고객이 그 종업원의 환심을 사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 같으므로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은유적인 용법이라기보다 ‘전략적’ 호칭으로 보아도 좋다고 해석을 해주어야 할 것 같다.

그 다음은 ‘아저씨’ 문제다. 박영순(2000)에서는 ‘아저씨는 60대 이하의 잘 알거나 잘 모르는 남

18) 现代汉语词典. 1996. 商务印书馆, p.1.

자성인에게 두루 붙이는 호칭법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성이나, 직업 등 아무 인적 사항을 모를 때라도, 우선 남자 성인이기만 하면 무조건 ‘아저씨’하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폭넓게 사용되는 호칭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5,60대의 여자들이 2,30대의 젊은 남자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광경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한국어의 호칭법을 모르는 외국인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보다 아홉살 많은 오빠벌밖에 안되는 남자주인공보고 ‘아저씨’라고 한다. 중국어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항렬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남자분에게 ‘아저씨’에 거의 대응되는 ‘叔叔’라는 호칭을 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 ‘아저씨’의 호칭은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친족어의 호칭보다는 ‘师傅’라는 호칭을 쓰고, 곳에 따라서 ‘大哥, 大叔’라는 호칭도 쓴다.

#### 5) 공식적인 호칭어 문제

공식적인 호칭어도 한국어와 중국어는 차이점이 많다. 예를 들면 필자가 동시통역 수업을 할 때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 (3) 杜司长, 我还想问一下, 今年春节旅游黄金周与以前有什么不同?

여기에서의 ‘杜司长’을 한국에서 반년 동안 유학을 한 학생은 ‘두차장’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학생들은 ‘뚜스장’ 또는 ‘두사장’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는 ‘司长’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한 ‘명랑소녀 성공기’에서는 ‘오전 무’를 사람의 이름으로 착각하여 ‘吴田武’로 잘못 번역하였다. 이것은 번역자가 한국의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나타난 실수이다. 중국의 회사는 보통 경리, 부총경리, 처장(과장), 보통 직원 등 이런 조직 구조로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한국의 회사는 조직 구조가 회장, 사장, 부장, 차장, 과장 등으로 상하급 관계가 엄격할 뿐 만 아니라 호칭도 복잡하다. 북경대의 <표준한국어> 제43과(1권)의 예에서 학생들은 ‘대리’라는 직함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 (4) 진동찬: 여보세요. 현대자동차 영업2과 진동찬입니다.

이용민: 진 대리님이십니까? 저 이용민입니다.

.....

이상에서 한국어의 일부 호칭어가 중국어와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를 논하였지만 그 외에도 중국어와 한국어의 호칭법은 다른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호칭어를 정확히 변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대화의 완성도에 영향을 주므로 세부적인 호칭법의 사용법과 제약을 가르쳐준다면 학생들이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어 호칭법에서 아직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호칭 없이 ‘이것 보세요. 서울역이 어딥니까?’,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식으로 우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호칭이 ‘아저씨’, ‘아주머니’일 것이다.<sup>19)</sup> 그러므로 기초 한국어 또는 회화 교재를 편찬할 때 ‘아저씨’, ‘아줌마’ 등의 사용법을 기술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재에 없더라도 교사가 교수내용과 결부하여 호칭어의 올바른 사용법 및 그런 용법이 나타나게 된 원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고 본다.

19) 박영순. 2000. 한국어 친족어의 은유화에 대하여.

‘무역한국어’ 등 교재에서는 한국의 회사 또는 공무원들의 호칭에 대하여도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2.2 문법기능에 내포된 문화의 차이

한 언어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어음, 어휘와 문법구조이다. 그 중에서도 문법구조는 가장 온정적이어서 변화가 거의 없다. 언어의 유형으로 볼 때 한국어는 교착어에, 중국어는 고립어에 귀속시키고 있다. 고립어의 어휘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낼 뿐 어미변화나 접사가 없고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순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제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점, 한국어의 발달한 어미 등은 고립어 사용자로서의 학생들이 교착어 사용자로 전환하는 데 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 1) 과거시제의 문제

한국어는 상대적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절대적 시제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등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시제는 동사의 변화가 없기에 어휘 또는 문맥에 의하여 표현된다. 한국어의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은 ‘과거’와 ‘완료’ 두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지량 등, 1982)<sup>20)</sup> 그러므로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전, 당시, 어제, 작년’ 등 부사가 쓰이면 뒤에 꼭 선어말 어미 ‘-았-’이 쓰여야 함은 물론, 시간부사가 없더라도 과거의 일이면 모두 ‘-았-’을 사용한다.

#### (5) ㄱ. 여기는 전에 도서관이었다.

这儿曾经是图书馆。

#### ㄴ.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다.

从前在一个村子里住着一位老爷爷。

학생들이 ‘-았-’과 대응된다고 생각하는 중국어의 ‘了’는 동작이 완성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과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5)의 중국어 문장은 ‘了’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어의 동사(형용사)는 상(态)의 구별이 있을 뿐 시의 구별이 없다.<sup>21)</sup> 즉, 중국어의 시제관념은 한국어와 달리 ‘동작, 행동의 수행여부’에 관심을 둔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한국어 시제에 습관이 되지 않아서 중국어로 사유하여 ‘刚才在图书馆。→ 아까 도서관에 있어요.’ 등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된다. 즉 시간부사를 제시하고도 시제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중국어의 이러한 시제의 개념에 대하여 이것은 한(漢)민족의 주체의식 표현이 시제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한 이른바 중국인의 ‘天人合一’의 사상이 언어에서 주체성을 많이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22)</sup> 그러므로 문법항목을 가르칠 때 단지 ‘-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는 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문법현상에 반영된 문화적 차이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20) 김용경. 1992. 현대국어의 시제씨끝 ‘-았-’ 연구,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연구. p.487. 서광학술자료사.

21) 周思源. 1997. 한어언어문화대비 및 대외한어교육. p.203. 북경어언문화대학출판사.

22) 염광호. 2003. 한국어 시제교수에서의 문법오류 분석. 중국 KOREAN 교육국제학술토론회의 논문집. p.288.

## 2) 종결어미의 문제

한국어 교과과정에서는 보통 해라체, 해체, 하오체, 하게체, 해요체, 합쇼체 등의 6가지 상용 종결어미를 가르치게 되어 있다. 그중 흔히 합쇼체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 해요체를 배우게 된다. 합쇼체는 처음에 좀 많이 언급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요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재는 물론 교사의 언어도 해요체가 위주이다. 아마 이런 원인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쓰는 종결어미는 ‘-아요’로서 평서문을 말할 때도 ‘-아요’로 끝나고 의문문을 말할 때도 어조만 변할 뿐 역시 ‘-아요’를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거든요’, ‘-군요’, ‘-는데요’, ‘-지요’, ‘-나요/ㄴ가요’, ‘-르게요’ 등 어미를 많이 사용한다.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어미가 없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런 어미들은 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아요’를 유창하게 사용하는데 만족하는 것 같다. 동시통역 수업에서 이러한 구절을 제시하고 번역하도록 하였다.

(6) ㄱ : (伟华), 你的英语特别棒, 是吧?

ㄴ : 也不是特别棒, 还过得去吧。

(7) ㄱ : 你自己攒了一点钱?

ㄴ : 对, 也不能全部找家里要吧。

(6)의 ㄱ를 ‘위화 씨는 영어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요?’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고 확인을 나타내는 어미 ‘-지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어려워한다. (7)의 ㄱ도 ‘혼자서 돈 좀 모았어요?’보다 ‘혼자 돈 좀 모았나요?’로 표현하는 것이 더 딱딱하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학생들은 이런 어미들의 사용을 어려워한다. 실제 한국어의 대화를 보아도 어미의 사용이 얼마나 풍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출연자(사미자) : 그렇게 해서 작은 역부터 했지요.

사회자(조형기) : 처음부터 큰 역을 맡으신 게 아니군요?

출연자(사미자) : 조형기씨는 처음부터 큰 역 맡았수?

사회자(조형기) : 아니지요.

출연자(사미자) : 아니지요.<sup>23)</sup>

이렇게 한국인들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풍부한 어미를 구사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미는 습관적으로 몇 개의 어미에 제한되어 있다. 물론 외국인 학습자가 내국인과 같은 언어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은 개변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풍부한 어미체계야말로 한국어의 매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중국어와 완전히 다른 생소한 부분이라 하여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재의 구성상 이런 어미들을 다룰 때만 교재에 이런 어미들을 반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계가 높아질수록 회화체에 자주 사용하는 어미들을 많이 반영하여야 한다. 고급단계로 갈수록 교재에 회화체의 문체가 적어지는데 학생들의 언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런 상황을 개변해야 한다고 본다.

## 4. 교재 편찬과 수업에서의 문화적 차이의 반영

23) 유송영. 국어 호칭 체계와 청자 대우 어미 체계의 독립성.

문화적 차이로부터 본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문화적 차이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이해를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에 입각한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우선 한국어 교재에 이런 문화적 차이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교재는 주로 본문, 단어표, 문법해석, 연습문제 등 부분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 배우는 어휘나 문법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분들이 나타났다면 이런 해설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세 단어로 대명사 ‘이, 그, 저’를 언급했다면 한국어 지시 대명사는 근칭, 중칭, 원칭에 의한 3분법에 따라 ‘이/여기’, ‘그/거기’, ‘저/저기’로 구분되고 중국어는 近指와 远指에 의한 2분법에 따라 ‘这’와 ‘那’로 구분된다는 데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언어의 지시대명사는 공간거리에 대한 분류법이 다르므로, 즉 일정한 문화적 차이로 일 대 일의 개념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야만 ‘어제 도서관에 갔는데 저기에 사람이 많았어요.’와 같은 오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교재의 편쪽의 제한으로 교재에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를 다 반영할 수 없다면 수업에서 교사가 별도로 언급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호칭어 외에도 완곡어, 색채어, 수량사, 관용어, 성구, 속담 등 어휘들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수량사의 사용에서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수사가 앞에 오고 단위명사가 뒤에 오는데 한국어는 그와 반대이다. 이것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어순의 기본유형 가운데 유형학적으로 중국어는 SVO어순인데 반해 한국어는 동사가 늘 문장의 끝에 놓이는 동사 문말 언어(Verb-final Language)인 데<sup>24)</sup>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면 역시 학습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한 모금 물을 마셨어요’나 ‘한 권 책을 빌렸다’와 같은 오류도 적게 나타나리라 본다.

## 5. 결론

지금까지 문화적 차이에서 본 한국어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동기유발을 위하여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 어휘와 문법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제시하였는데 어휘에서는 주로 호칭어 문제를 다루고 문법에서는 과거시제와 어미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를 다루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재의 편찬과 수업에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많이는 서구권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보아지며 단순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내용보다 문화적 차이에 입각한 보다 다양한 연구와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24) 강보유. 2001. 제5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연토회 논문집. p.105.

## 참고 문헌

- 강보유. 2001. 문화언어학 시각으로 본 한국어 문법교육. 제5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연토회. 연변  
과기대.
- 김용경. 1992. 현대국어의 시제씨끝 '-았-' 연구.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서광학술자료사.
- 박영순. 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도서출판 월인.
- 박영순. 2000. 한국어 은유연구. 고려대출판부.
- 성기철. 2003. 한국어 어휘교육과 문화 교육. 중국 KOREAN 교육국제학술토론회의 논문집.
- 이득춘. 2000. 한국어 교수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한 학습수감.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 이정자. 2000. 언어와 문화교육.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 이홍매. 2000.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태학사.
- 장경은. 2001.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  
당.
- 周思源. 1997. 对外汉语教学与文化.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 교재:

- 표준한국어. 1996. 북경대학출판사.
- 이선한 외. 2002. 한국어. 민족출판사.

# 어휘와 문화: {옷/ 밥/ 집}

신 현 숙  
(상명대학교)

## 1. 서론

이 글에서는, 한국의 의식주 문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옷/ 밥/ 집}의 형식과 의미 확장 과정을 통하여, 넓게는 어휘와 문화의 유기적 관련성을 규명하고, 좁게는 한국어 또는 한국학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휘정보와 문화정보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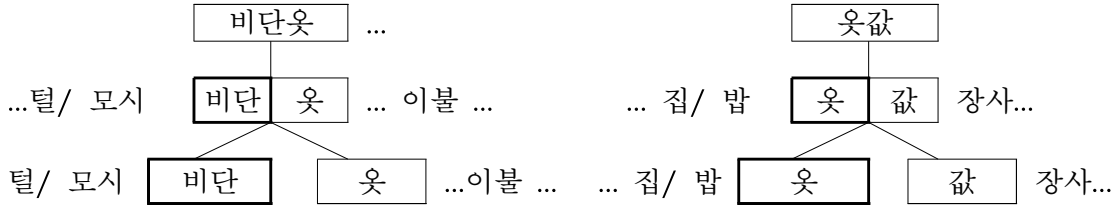
- (1) ㄱ. 어휘목록 (lexicon)은 언어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 반영하여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휘정보를 바탕으로 언어사회의 역사정보와 문화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 ㄴ. 어휘목록 (lexicon)은 언어사용자의 인지구조와 인지방법을 적극 반영하여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휘정보를 바탕으로 언어사용자의 다양한 인지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자료제시와 논의를 위하여 이 글에서 참고한 사전류는 다음과 같다.

- (2) ㄱ. 어휘사전
- ┌ 새우리말 큰사전 (신기철 · 신용철: 1974)
  - └ 우리말 역순 사전 (유재원: 1985)
  - ┌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1992)
  - └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2)
  - ┌ 겨레말 갈래 큰사전 (박용수: 1993)
  - └ 뉘앙스풀이를 겸한 우리말사전 (임홍빈: 1993)
  - └ 의미로 분류한 현대한국어학습사전 (신현숙 외: 2000)
- ㄴ. 속담사전
- ┌ 조선속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 └ 상말속담사전 (송재선: 1993)
  - └ 우리속담사전 (원영섭: 1993)
  - └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 (정종진: 1993)

## 2. 의생활 문화와 {옷}

### (3) {옷}의 형식 확장



### (4) “< 옷 [명] >

사람몸통의 일부나 전부의 둘레에 걸치도록 입는 물건을 가리킨다. 팔이나 다리를 끼우도록 된 것이 일반적이다. 팔다리나, 머리 또는 발에만 끼우게 된 것은 절대로 ‘옷’이라고 하지 않으며, 바느질을 하지 않은 원시인들이 몸을 가리는 나뭇잎과 같은 것도 옷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람이 속에 입는 것이나 겉에 입는 것을 두루 가리킬 수 있다. ‘개’와 같은 애완동물에 입히는 것도 ‘옷’이라고 할 수 있다.” 임흥빈(1993: 513-514)

### (5) 그 친구 옷 벗었어.

- ㄱ. 원형 의미: [옷을 벗는 행위를 하다]
- ㄴ. 확장 의미: [직장을 그만 두다]

### (6) 그 개 옷 참 잘 입었다.

- ㄱ. 1 단계: [사람이 만든 옷을 입다]
- ㄴ. 2 단계: [타고 난 털무늬가 예쁘다]

### (7) 그 바위가/ 수석이 옷을 잘 입었다.

- ㄱ. 덮개가 예쁘다.
- ㄴ. 천연적인 무늬나 색이 예쁘다.

### (8) {옷}의 의미 확장

- [사람이 입는 물건] → → [사람이 사람에게 입히는 물건]
- [사람이 동물에게 입히는 물건]
- [사람이 사물에게 입히는 물건]
- [사람이 입는 물건과 관련지을 수 있는 직장]
- [동물이나 사물의 원래 모습]

### (9) [재료] + {옷}

- ㄱ. [재 료]: 비단옷/ 명주옷/ 베옷/ 모시옷/ 털옷/ 가죽옷
- ㄴ. [속재료]: 솜옷/ 헛솜옷

### (10) [형태] + {옷}

- ㄱ. [모양]: 주름옷/ 사발옷



- ㄴ. [색]: 흰옷/ 색동옷
- ㄷ. [길이]: 반소매옷/ 긴옷/ 짧은옷
- ㄹ. [두께]: 겹옷
- ㅁ. [크기]: 큰옷/ 작은옷
- ㅂ. [넓이]: 넓은옷/ 좁은옷<sup>25)</sup>

(11) [바느질 방법] + {옷}: 누비옷/ 손뜨개옷

(12) [상태] + {옷}: 헌옷/ 새옷<sup>26)</sup>/ 누더기옷

(13) [입는 사람] + {옷}

- ㄱ. [직업]: 경찰옷/ 예비군옷/ 학생옷/ 환자옷/ 기생옷/ 무당옷<sup>27)</sup>
- ㄴ. [성별]: 남자옷/ 여자옷
- ㄷ. [나이]: 어른옷/ 아이옷/ 노인옷

(14) [입는 장소] + {옷}: 속옷/ 겹옷/ 나들이옷

(15) [입는 시간] + {옷}: 봄가을옷/ 여름옷/ 겨울옷/ 설빔옷<sup>28)</sup>

(16) [입는 목적] + {옷}: 비옷/ 잠옷

(17) {옷} + [전체]: 옷차림/ 옷치장/ 옷맵시/ 옷매무새

(18) {옷} + [부분]: 옷깃/ 옷고름/ 옷소매/ 옷자락

(19) {옷} + [재료]: 옷감/ 옷본

(20) {옷} + [사물]: 옷걸이/ 옷장/ 옷상자/ 옷술/ 옷핀

(21) {옷} + [장소]: 옷가게

(22) {옷} + [동작성/ 상태성]: 옷시중/ 옷수선/ 옷타박

25) {옷이 몸에 붙으면 복 들어갈 틈이 없다}와 같은 속담을 보면 {옷}의 넓이도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자질임을 알 수 있다.

26) 우리 속담에 {옷은 새옷이 좋고, 입은 옛님이 좋다}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어 사용자가 {헌옷}보다는 {새옷}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실제로 [무녀가 입는 옷]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얼룩덜룩한 옷]을 지시하기도 한다 (예: 너는 왜 무당옷을 입고 다니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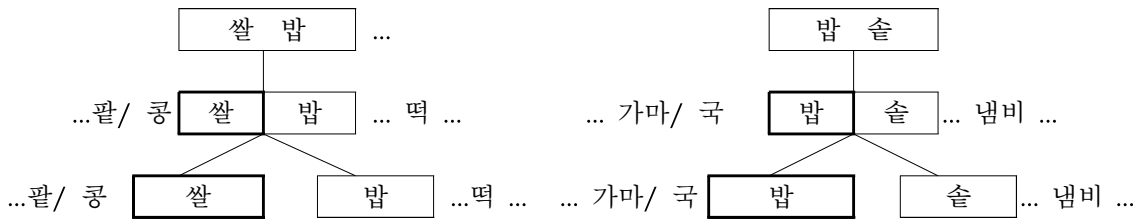
28) {설빔}에는 {옷}의 의미를 지니는 {-빔}과 {옷}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설빔}에는 옷뿐만 아니라 {신발/ 땡기}와 같은 다른 복식도 포함한다.

(23) {옷}의 어휘정보와 문화정보

정 보		보 기	
[사람이 입는 물건]		사람이 옷을 입다	
[동물이 입는 물건]		개에게 옷을 입히다	
[사물이 입는 물건]		재료에 옷을 입히다	
[사람이 입는 물건과 관련지을 수 있는 직장]		옷을 벗다	
[동물이나 사물의 원래 모습]		수석이 옷을 입다	
[재 료]	[사람이 입는 물건]	비단옷/ 명주옷/ 베옷/ 모시옷/ 털옷/ 솜옷	
[형 태]		주름옷/ 흰옷/ 반소매옷/ 겹옷/ 큰옷/ 넓은옷	
[바느질방법]		누비옷/ 손뜨개옷	
[상 태]		헌옷/ 새옷/ 누더기옷	
[사 람]		경찰옷/ 예비군옷/ 학생옷/ 환자옷	
[장 소]		실내옷/ 나들이옷	
[시 간]		겨울옷/ 여름옷/ 봄가을옷/ 설빔옷	
[목 적]		잠옷/ 비옷	
[사람이 입는 물건]		[전 체]	옷차림/ 옷치장/ 옷맵시/ 옷매무새
		[부 분]	옷깃/ 옷고름/ 옷단/ 옷소매
	[재 료]	옷감	
	[사 물]	옷걸이/ 옷장/ 옷술/ 옷핀	
	[장 소]	옷가게/ 옷셋집/ 옷갈이방	
	[동작/ 상태성]	옷시중/ 옷타박/ 옷입다	

3. 식생활 문화와 {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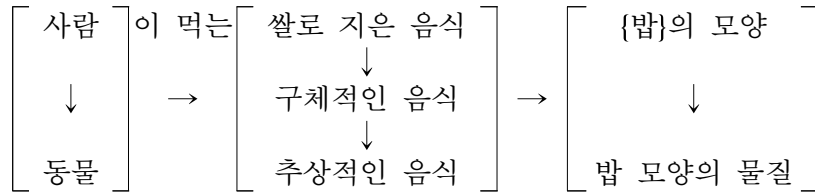
(24) {밥}의 형식 확장



(25) “< 밥 [명] >

- [1] 쌀이나 보리나 조 따위의 곡물 (谷物)을 일정한 양의 물에 끓이거나 증기로 익혀 물기가 자자들게 한 상태의 음식
- [2] 사람이 끼니 때 먹는 음식. <유> 끼니/ 식사 (食事)
- [3] 동물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가 (營養價) 있는 음식. <유> 먹이/ 모이
- [4] 어떤 물건이나 수입 (收入)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 자기 차지가 되는 부분 <유> 모가치
- [5] 물건을 썰 때나 자르거나 밀 때 생기는 잔 부스러기
- [6]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사람
- [7] 물고기 따위를 잡기 위한 미끼” 임흥빈 (1993: 596-597)

(26) {밥}의 의미 확장



- (27) ㄱ. 죽도 밥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간이다]  
 ㄴ. 밥 속에 떡 들었다 [재수가 매우 좋다/ 좋은 일이 겹쳐서 있다]  
 ㄷ. 밥 없는 상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ㄹ.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기본이 되는 것보다 부차적인 것이 더 많다]

(28) [재료] + {밥}

- ㄱ. 쌀밥/ 흰쌀밥/ 햅쌀밥<sup>29)</sup>  
 ㄴ. 잡곡밥/ 보리밥/ 콩밥/ 오곡밥  
 ㄷ. 감자밥/ 고구마밥/ 밤밥/ 나물밥/ 굴밥/ 조개밥/ 약밥

(29) [조리방법]+ {밥}

- ㄱ. 김밥/ 초밥/ 덮밥/ 오징어 덮밥/  
 ㄴ. 비빔밥/ 산채비빔밥/ 콩나물비빔밥/ 볶음밥/ 김치볶음밥  
 ㄷ. 찜밥/ 국밥/ 미역국밥

(30) [상태]+ {밥}

- ㄱ. 고두밥/ 된밥/ 선밥/ 진밥/ 누른밥  
 ㄴ. 더운밥/ 식은밥/ 찬밥/ 쉰밥

(31) [그릇/ 도구]+ {밥}: 공기밥/ 접시밥/ 도시락밥/ 광밥<sup>30)</sup>/ 주먹밥/ (한)솔밥

(32) [장소/ 시간]+ {밥}: 식당밥/ 하숙밥/ 기숙사밥/ 새벽밥/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33) [동물이 먹는 음식]: 개밥/ 돼지밥/ 새밥/ 고기밥/ 닭싹밥/ 꿩이밥

(34) [사물과 관련되는 것]: 톱밥/ 대팻밥/ 끌밥/ 옷밥/ 못밥/ 꺾밥

(35) [밥과 관련지을 수 있는 사물]

- ㄱ. 밥주발/ 밥공기/ 밥소라/ 밥술/ 밥통/ 밥표  
 ㄴ. 밥숟가락/ 밥상/ 밥주걱/ 밥상보/밥풀진주<sup>31)</sup>

29) 정주리 (1994: 140)에서도 “쌀이 주식인 우리는 대대로 ‘쌀밥’을 먹고 살아 왔지만 늘 쌀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 ...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부 (富)와 행복의 상징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30) 이 형식은 북한에서 도시락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다.

(36) [밥과 관련지을 수 있는 음식]: 밥강정/ 밥말이/ 밥풀과자/ 밥알엿/ 밥송냥/ 밥풀/ 밥반찬

(37) [밥과 관련지을 수 있는 행위/ 상태]: 밥투정/ 밥걱정/ 밥벌이/ 밥시중

(38) [밥과 관련지을 수 있는 사람]: 밥벌레/ 밥장수

(39) [밥과 관련지을 수 있는 장소/ 시간]: 밥집/ 밥공장/ 밥때

(40) [밥과 관련지을 수 있는 생물]: 밥조개/ 밥뿌리곰팡이/ 밥털곰팡이

(41) {밥}의 어휘정보와 문화정보

정 보		보 기
[사람이 먹는 쌀로 지은 음식]	[음 식]	어머니가 밥을 짓다
	[물 질]	아이들이 물고기한테 밥을 주었다
	[수 입]	그 사람은 자기 밥도 못 찾아 먹는다
	[사 람]	동생은 내 밥이다
	[좋은 것]	죽도 밥도 아니다
	[중요한 것]	밥 없는 상이다
	[기본적인 것]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재 료]	[사람이 먹는 쌀로 지은 음식]	쌀밥/ 보리밥/ 콩밥/ 감자밥/ 굴밥
[조리방법]		김밥/ 초밥/ 덮밥/ 오징어 덮밥/ 김치볶음밥/ 찜밥/ 미역국밥
[상 태]		고두밥/ 더운밥/ 누른밥/ 선밥/ 선밥
[그릇/ 도구]		주발밥/ 도시락밥/ 솔밥
[장 소]		식당밥/ 하숙밥/ 기숙사밥/ 땃밥/ 감옥밥
[시 간]		시간밥/ 새벽밥/ 점심밥/ 저녁밥/ 아침밥
[사람이 먹는 쌀로 지은 음식]		[사 물]
	[음 식]	밥강정/ 밥알엿/ 밥반찬
	[행위/ 상태]	밥투정/ 밥벌이/ 밥풀칠/ 밥맛없다
	[사 람]	밥벌레/ 밥장수
	[장소/ 시간]	밥집/ 밥공장/ 밥때
[생 물]	밥조개/ 밥뿌리곰팡이/ 밥털곰팡이	

#### 4. 주생활 문화와 {집}

(42) {집}의 형식 확장

31) 밥알 모양을 진주 모양에 전이시킨 자료이다.



- ㄱ. 사돈집/ 친정집/ 주인집/ 친척집/ 외갓집/ 시집
- ㄴ. 통장집/ 기생집/ 부잣집/ 빈집/ 양반집

(49) [구성원/ 사건] + {집}

- ㄱ. 살림집/ 가갯집
- ㄴ. 백일집/ 잔칫집/ 환갑집/ 초상집
- ㄷ. 전셋집/ 사글셋집/ 하숙집
- ㄹ. 꽃집/ 얼음집

(50) [구성원/ 사건/ 물건] + {집}: 떡집/ 칼국수집/ 참기름집/ 횃집/ 옷수선집

(51) [동물] + {집}: 개집/ 토끼집/ 개미집/ 벌레집/ 벌집/ 두꺼비집

(52) [사물] + {집}

- ㄱ. 수젓집/ 갓집/ 안경집/ 칼집
- ㄴ. 물집/ 몸집/ 똥집/ 모래집

(53) {집} + [숙]

- ㄱ. 집구석/ 집구조/ 집안/ 집들이/ 집속
- ㄴ. 집사람/ 집안식구/ 집누에/ 집모기/ 집파리

(54) {집} + [밖]: 집울타리/ 집둘레/ 집뒤/ 집뜰/ 집마당

(55) {집} + [동물]: 집돼지/ 집비둘기/ 집오리/ 집토끼

(55) {집}의 어휘 정보와 문화정보

		정 보		보 기
[사 람]		[모 양]	[사람이 사는 구조물]	ㄱ자집/ 한옥집/ 단층집/ 단칸집
		[재 료]		기와집/ 초가집/ 벽돌집/ 판잣집
		[위 치]		앞집/ 첫째집/ 고향집/ 동향집
		[구성원]		사돈집/ 친정집/ 통장집/ 기생집
		[사 건]		살림집/ 잔칫집/ 전셋집/ 빵집
[동 물]		[인위적]	개집/ 토끼집/ 새집	
		[자연적]	개미집/ 체비집/ 두꺼비집/ 거미집	
[무생물]		[인위적]	벼룻집/ 수젓집/ 안경집/ 칼집	
		[자연적]	물집/ 몸집/ 닭똥집/ 모래집	
[사람이 사는 구조물]	[숙]	[장 소]	집구석/ 집안/ 집속/ 집들이	
		[생 물]	집사람/ 집안식구/ 집누에/ 집모기	
	[안]	[장 소]	집울타리/ 집동네/ 집뜰/ 집마당	
		[생 물]	집돼지/ 집비둘기/ 집오리/ 집토끼	

## 5.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어 기초어휘 {옷/ 밥/ 집}의 형식 확장과 의미 확장을 통하여, 한국인의 의식 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보기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옷}은 [재료/ 형태/ 바느질방법/ 상태/ 입는 사람/ 입는 장소/ 입는 시간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의미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의생활에 관한 문화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비단옷/ 명주옷/ 베옷 등}에서 한국인이 어떤 재료로 만든 옷을 입는가, {비단옷/ 명주옷/ 베옷}이 현대인의 의생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밥}은 [재료/ 조리방법/ 상태/ 담는 그릇/ 먹는 장소/ 먹는 시간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의미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식생활에 관한 문화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쌀밥/ 보리밥/ 콩밥/ 김밥 등}에서 한국인이 어떤 재료로 지은 밥을 먹는가, {쌀밥/ 보리밥/ 콩밥/ 김밥}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집}은 [재료/ 모양/ 위치/ 사는 사람/ 사는 동물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의미를 생성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주생활에 관한 문화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와집/ 초가집/ 벽돌집/ 판잣집 등}에서 한국인이 어떤 재료로 지은 집에서 사는가, {기와집/ 초가집/ 벽돌집/ 판잣집}이 현대인의 주생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1984. 조선속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박용수. 1993. 겨레말 갈래 큰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송재선. 1993. 상말속담사전. 동문선.  
 신기철·신용철. 1974.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신현숙. 1995. 명사 {집}의 형식과 의미 확장. 말 20: 1~20.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신현숙. 1996. 명사 {옷}의 형식과 의미 확장. 한국말 교육: 367~39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신현숙. 1996. 언어 형식과 의미 확장: {밥}. 한국말 교육: 67~8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신현숙 외. 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한국문화사.  
 원영섭. 1993. 우리속담사전. 세창출판사.  
 유재원. 1985. 우리말 역순 사전. 정음사.  
 임흥빈. 1993.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정종진. 1993.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 태학사.  
 정주리. 1994. 생각하는 국어. 도솔.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김 종 철  
(서울대학교)

## 1. 中世 韩国语教育与 鸡林类事·朝鲜馆译语

- 1) 鸡林类事와 朝鲜馆译语에 대한 기왕의 연구 경향
  - 국어사적 관점 - 고려와 조선전기의 국어사 연구의 주요 자료
  - 어휘론·음운론적 관점 - 당시 중국어로 표기된 발음을 바탕으로 高丽와 朝鲜前期 국어의 복원 작업과 이를 통한 당시의 어휘 및 음운 연구. 나아가 중국의 宋, 明代 음운 연구.
- 2)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본 鸡林类事 '高丽方言'과 朝鲜馆译语의 자료적 가치
  - 朝鲜馆译语는 이름 그대로 중국에서 한국어 통역을 위해 편찬한 어휘집이므로 한국어교재로 보고 중세의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鸡林类事의 '高丽方言'은 고려의 언어를 채록·수집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고려의 사절을 맞는 중국 역관 또는 고려에 파견되는 사절단이나 상인들에게는 참고 또는 학습 교재였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이 두 자료는 중세의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사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高丽方言'과 朝鲜馆译语는 300년 정도의 시대 차를 보이면서도 공통 어휘 항목이 상당수에 달하는데, 이는 通译을 담당한 중국측 通事들 사이에 어떤 传统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姜信沆, 朝鲜馆译语研究, 1995.)가 있는데, 이것은 곧 이 두 자료가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음을 뜻함.

## 2. 鸡林类事 '高丽方言' 语汇 选定的 특징

- 1) 자료의 성격
  - 高丽国信书状官으로 고려에 왔던 송(宋)의 孙穆이 1103-1104년 사이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
  - 원래 3권(土风·朝制·方言의 3부와 诏敕·表文 등의 부록으로 구성)이었는데, 현재는 方言部와 축약된 土风·朝制 부분만 전해짐.
  - 고려의 풍속, 방언, 관직 제도와 부록으로 조칙, 표문 등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风俗志가 아니라 고려의 사신을 응대하거나 고려에 파견되는 宋의 외교사절들 또는 宋商들을 주 대상으로 한 고려 안내서의 성격을 가진 책(高柄翊, 鸡林类事의 编纂年代, 1958)
  - 외교사절이나 상인들에게 유용한 안내서로 본다면 '高丽方言' 부분은 한국어교재로 보아 무방함(중국인에 의해 편찬된 중국어와 외국어의 对译语汇集 중 가장 오래된 것임을 중시할 필요 - 李基文, 鸡林类事의 再检讨, 1968)
- 2) '高丽方言'의 어휘 선정의 특징



- 수록 어휘 항목은 350여 항목(传本별 차이)
- 어휘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类别로 묶을 수 있음  
方鍾铉의 분류 : 天文类, 鬼神类, 仙佛类, 数词类, 时日类, 上下类, 四方类, 地理类, 水火类, 草木类, 禽兽类, 人事类, 亲族类, 身体类, 谷类, 饮食类, 金银类, 麻布类, 衣装类, 针线类, 染色类, 度量类, 一般类(鸡林类事研究, 1955)  
陈泰夏의 분류 : 天文门, 地理门, 时令门, 花木门, 鸟兽门, 虫鱼门, 器用门, 人物门, 人事门, 身体门, 衣服门, 颜色门, 珍宝门, 饮食门, 文史门, 数目门, 方隅门, 其他  
(鸡林类事研究, 1975: 조선관역어의 분류 형식을 따른 분류임)
- 어휘 항목들이 일정한 범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애초 '고려방언'은 일정한 기준에서 어휘 항목들이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위와 같은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후대 朝鲜馆译语의 분류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분류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면 어휘 항목을 적지만 고려의 생활, 풍토, 문화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天曰汉捺', '今日曰乌捺'처럼 중국어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기록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 방법은 '星:别二:省', '霜:色立:爽'의 형식으로 된 朝鲜馆译语로 이어진다.

### 3. 朝鲜馆译语 어휘 분류의 특징

#### 1) 자료의 성격

- 明의 会同馆에서 华夷译语의 일환으로 편찬(15세기로 추정)한 중국어와 한국어의 对译 어휘 집
- 중국어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및 중국어의 한국한자음을 기록  
예: '云:故论:稳', '雨:必:五'  
당시 한국 한자음을 병기한 것은 华夷译语 중 朝鲜馆译语가 유일함.
- 어휘 항목들을 部门别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음
- 부문별로 수록된 어휘는 중국어를 기준으로 一字类·二字类的 순으로 배열되었음

#### 2) 어휘 항목 분류의 특성

- 분류: 天文门, 地理门, 时令门, 花木门, 鸟兽门, 宫室门, 器用门, 人物门, 人事门, 身体门, 衣服门, 声色门, 珍宝门, 饮饌门, 文史门, 数目门, 干支门, 卦名门, 通用门  
(京都大本에 의함. 姜信沆, 朝鲜馆译语研究, 1995., 부록 영인 자료에 의함)
- 596개의 어휘 항목을 19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자연, 풍속, 문물, 제도 등을 포괄하되, 중국의 인식틀로 한국어를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를 기록한 것이라든가, 卦名门的 경우 '乾, 坎, 艮' 등등에 대응하는 한국의 고유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한자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 3) 한국어 교재로서의 특징

- 중국의 한국어 역관들에게 실질적인 교재 : 예컨대 '人事门'의 '书状, 质正, 通事, 押马, 押物, 进贡, 圣节, 鞠躬' 등은 통역의 현장에서 쓰이는 어휘들로, 특히 '质正', '进贡' 등의 용어는 한국측 사절단이 중국에 갔을 때 쓰이는 어휘라 할 수 있다. 朝鲜에서는 중국어의 현실음과 그

의미를 질문하기 위해 质正官을 파견한 바 있다.

(畏兀儿馆译语의 경우 특이하게 ‘朝义’라는 분류 항목이 있는데, ‘进驼, 进狮子, 进珊瑚, 进西马, 进番字本’ 등등 畏兀儿에서 중국에 进贡하는 贡物들을 나열하고 있다. 즉 해당 국가에 중국 사신을 파견할 경우보다 외국 사신이 왔을 경우를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중심으로 수록 어휘들을 보면 단어 학습만이 아닌 단어의 쓰임까지 학습할 수 있는 교재: 日:害:忍, 日出:害那格大:忍处, 日落:害底格大:忍刺, 日长:害吉大:忍掌, 日短:害迭勒大:忍胆, 日照:害必翠耶大:忍着
- 당시의 조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한 어휘들을 편찬

#### 4. 部门别 语汇 学习의 중세적 보편성

##### 1) 중세 동아시아 어휘 교재의 공통점

- 鸡林类事的 ‘高丽方言’과 朝鲜馆译语의 어휘를 중심으로 중세에 행해진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일반 모델을 재구할 수 있을 것 - 두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요청된 어휘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선정 어휘의 범위가 어떠한가도 부문별 편찬 방식에서 추출할 수 있음
- 姜信沆(鸡林类事 高丽方言研究, 1991. 207:214면)에 의해 ‘高丽方言’과 조선관역어의 공통 어휘항목이 비교된 바 있는데, 158항목에 달한다. 이는 ‘高丽方言’의 45%에 해당하며, 朝鲜馆译语의 약 27%에 해당한다. 이들 어휘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气候, 序数, 时间, 자연 지리, 생활 주변의 동식물, 가족, 신체, 기본 음식, 귀금속, 직물, 色, 생활용품, 인간의 기본 행동, 数量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중세 한국어교육에서 기초 어휘군이라 할 수 있다.
- 어휘 교재를 부문별로 편찬한 것은 중세 동아시아 어휘 교재의 공통 특징  
 华夷译语(회동관 계통) 전체를 보면 日本, 安南, 琉球 등 13개국 모두 부문별로 되어 있고, 그 부문 분류 역시 동일하다.(나라별로 어떤 항목이 있고 없고의 미세한 차이는 있다. 단 朝鲜馆译语의 분류 항목이 가장 많고, 특히 다른 나라보다 干支门과 卦名门이 더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중국어 어휘 교재인 译语类解 역시 ‘天文, 时令, 气候, 地理, 宫阙, 官府, 公式, 官职 ---’ 등으로 부문별 편찬을 했으며, 일본의 한국어 교재인 交邻须知 역시 ‘天文, 时节, 昼夜, 方位, 地理, 江湖, 水貌, 舟楫 ---’ 등으로 부문별 편찬을 하고 있다. 다만 译语类解는 중국어 어휘를 먼저 제시하고 한국어 대응 어휘 또는 풀이를 달았으며, 交邻须知는 한자어휘를 먼저 제시하고 그 어휘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의 사용례를 단 것이 특징이다. 중국어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 한국어 대응 어휘를 단 朝鲜馆译语와 비교해 보면 세 나라의 편찬 태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朝鲜馆译语를 자기중심형이라 한다면 译语类解는 대상중심형, 交邻须知는 매개형이라 할 수 있다.

##### 2) 부문별 어휘 학습과 세계 인식의 틀

- 외교 사절이 방문한 국가에 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인데, 수집하는 정보의 성격 역시 중세의 동아시아 삼국의 경우 유사하다. 예컨대 중국의 鸡林志·宣和奉使高丽图经·朝鲜赋, 일본의 象胥记闻, 한국의 北学议·燕记 등을 비교하면 그 구체적인 관심사에서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자연 지리, 풍속, 문물 제도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鸡林志:王云. 全30卷. 1103년 고려에 파견된 사절단 참가. 현재 8条만 残存하는데, 불교, 특산물

등에 대한 내용임.

高丽图经:徐兢. 全40卷. 1123년 고려에 파견된 사절단 참가. 1124년 찬. 建国, 世次, 城邑, 门阙, 宫殿, 冠服, 人物, 仪物, 仗卫, 兵器, 旗帜, 车马, 官府, 祠宇, 道教, 民庶, 妇人, 皂隶, 杂俗, 节仗, 受诏, 燕礼, 馆舍, 供张, 器皿, 舟楫, 海道, 同文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음

朝鲜赋:董越. 1488년 조선에 파견된 사절단의 正使. 1490년 작. 地志, 风俗, 路程, 驿楼, 宫阙, 宴会, 官府, 民生, 产物 등을 노래.(朝鲜赋의 原注에 '川浴事出旧志今亦变'이라 했는데, 이는 鸡林类事의 '夏日群浴于溪流 男女无别'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象胥记闻:小田几五郎. 上下 2卷. 对马岛 译官. 1794년 찬. 节序, 人物(附 僧道), 官制(附 科举, 仪仗), 上言, 礼俗, 户籍(附 储蓄), 文艺(附 技术), 武备, 刑罚, 度量, 服色, 饮食, 第宅, 物产, 禽兽, 农圃, 杂闻 등으로 구성됨. 특히 文艺 항목에 한글(谚文) 字母 결합을 설명함.

燕记:洪大容. 1765년 중국 使行에 참여. 권10의 경우 幻术, 场戏, 市肆, 寺观, 饮食, 屋宅, 巾服, 器用, 兵器, 乐器, 畜物 등을 서술

北学议:朴齐家. 1778년이래 3차에 걸쳐 중국 使行에 참여. 内篇에 车, 船, 城, 壁, 瓦, 瓷, 簾, 宫室, 窗户, 阶砌, 道路, 桥梁, 畜牧, 牛, 马, 驴, 鞍, 槽, 市井, 商贾, 银, 钱, 铁, 材木, 女服, 场戏, 汉语, 译, 药, 酱, 印, 毡, 塘报, 纸, 弓, 铙矢, 尺, 文房之具, 古董书画 등을 서술

- 중세 동아시아 각국의 외국어 어휘 교재의 구성들과 외교 사절들의 방문국 정보수집 기록의 틀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鸡林类事의 '高丽方言'과 朝鲜馆译语에 수록된 어휘들은 물론 译语类解, 交邻须知 등에 수록된 어휘들은 당시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긴요한 어휘들이라 할 수 있다.
- 부문별 어휘 선정과 학습이 중세적 관점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방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 - 근대 한국어 교육의 보편성 모색

한국어교육을 위한 어휘 부문의 여러 조사와 연구 및 사전 편찬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국어교재도 많이 개발되어 여러 교육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교육용 어휘의 선정과 그러한 어휘를 적재 적소에 배치한 교재의 개발에서 중세의 부문별 어휘 선정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한국어교육을 위한 어휘 관련 작업의 현황은 김광해,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2003., 참조)

- 교육용 어휘집(등급을 나눈 것) 편찬이 빈도수 위주로 되는데, 이 빈도수 및 등급이 현대 한국을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어휘들을 재배열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부문별, 등급별 어휘 검토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총체성의 지향
- 현재 한국어교재는 대부분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회화를 중심으로 편찬되고 있는데, (그 기원은 朴通事에 있다고 본다) 교재들을 보면 중세의 각 부문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적절히 배치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그 상황이 현대 한국을, 또는 한국의 전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교과서들을 한국의 각부문을 전형적으로 반영하는 회화 또는 독본 교재로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 전형성의

## 지향

- 교육용으로 선정된 어휘와 편찬된 교재의 단원별 주제가 근대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세의 어휘집들이 중세적 세계 인식을 보이고 있듯이 오늘날의 어휘집이나 교재가 근대적 세계 인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국의 근대적 가치 지향을 다각도로 보일 수 있는 교재 또는 어휘집이어야 한다. - 가치 지향
- 교육용 어휘집의 편찬에서는 중세에 검증된 바 부문별 어휘 교육을 참고하고, 그 편찬 방식의 효용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역사성의 지향

## 한중 숫자어의 민족문화 의미 비교 연구

강 은 국  
(복단대학)

## 1. 서론

언어교육에 있어서 숫자어에 대한 교육은 그 어떤 언어에 있어서든지 자고로 그리 큰 일로 여겨오지 않았다. 한국어의 경우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본 민족에 대한 언어교육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타민족에 대한 언어교육에 있어서도 그 발음 변화나 결합규칙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고 만다. 숫자어는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의 부류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숫자어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하나”나 한어의 “一”이 한중 언어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어나 한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아마 쉽게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어의 “하나”는 기본수 일(1)의 뜻 이외에도 “완전, 전부, 시작, 동일, 진리, 이상, 훌륭함, 작음, 외로움” 등등 십여 가지의 민족문화의미를 갖고 있고 한어 “一”도 “전부, 완전, 시작, 동일, 진리, 훌륭함, 작음, 통일, 제왕” 등등 십여 가지 민족문화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숫자어는 그 어떤 언어에서든지 일정한 수(數)를 나타낸다는 기본의미 외에도 자기의 독특한 여러 가지 민족문화의미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숫자어에 대해서도 민족마다 그 선호도가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은 홀수를 선호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짝수를 선호한다. 그리고 이런 선호도는 시대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주(周)말, 선진(先秦) 시기에는 여섯(六)을 선호했지만 서한(西汉) 시기부터는 일곱(七)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张清常: 《汉语的15个数词》(语言教学与研究) 1990년 4기 참조)

이렇게 숫자어는 모든 민족어에서 다양한 민족문화의미를 갖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타 민족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물론 모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론 및 실천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부터 십까지의 기본 숫자어가 한중 두 언어에서 어떤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미를 나타내는가를 고찰하려 한다.

## 2. 본론

### 1) 하나(一)

(1)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전부 또는 모두”의 뜻을 나타낸다.

한국이나 중국의 건국 신화를 보면 시조(始祖)는 모두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하나는 신이나 신의 자격을 부여받은 통치자로서 하나의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전부를 의미한다. 또 한국어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전부”를 의미한다. “한몸”에서의 “하나”도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에는 “一天星斗”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一)는 “满”의 뜻 즉 “온 또는 모든”의 뜻을 나타낸다. 《礼杂记下》에는 “一国之人皆若狂, 赐未

知其乐也”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하나”(一)도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2)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동일함”의 뜻을 나타낸다.

한국어 속담에는 “한 날 한 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다”, “한 불당에서 내 사당 네 사당 하나”, “한 술의 밥 먹고 송사 간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같음 또는 동일함”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도 “하나”는 한국어에서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孟子离娄下》에는 “其揆一也”란 말이 있고 《庄子逍遥游》에는 “能不龟手一也”란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一”은 다 “같음, 동일함”의 뜻을 나타낸다.

(3)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시작”의 뜻을 나타낸다.

한국어 속담에는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한 술 밥에 배 부르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시작”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에는 “一元”이란 말이 있는데 보통 “사물의 시작”을 뜻하는바 《春秋繁露. 玉英》에서는 “谓一元者, 太始也”라 했고, 《汉书. 董仲舒传》에서는 “春秋谓一元之意, 一者, 万物之所从始也; 元者, 辞之所谓大也”라고 풀이했다.

(4)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뛰어남”의 뜻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균계일학”이나 중국어의 “斗南一人”과 같은 성구는 모두 여럿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어에서는 “두남일인”과 같은 성구를 그대로 차용해 쓸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방식을 문학작품들에서 더욱 폭넓게 쓰고 있다.

○ 번창하던 지난 일은 이미 헛되이/ 화려하던 놀이터도 풀 속이구나./ 오직 꿇긴 다리 선죽교만 남아있어/ 오백 년 왕업에 문충공 한 사람. <이개. 선죽교>

(5)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만물의 본원(本源)”의 뜻을 나타낸다.

유학에서의 “기일원론(气一元论)”이나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주문(一柱门)” 등에서 “일(一)”은 “만물의 본원”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에 대해 《淮南子. 诠言训》에서 “一也者, 万物之本也, 无敌之道也”라고 보다 명확히 풀이하고 있다.

(6)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양(阳)”을 뜻한다.

주역에서는 홀수는 양(阳)으로, 짝수는 음(阴)으로 칭한다. 이리하여 홀수이면서 최초의 수인 “하나”는 순양(纯阳)으로서 한중 두 언어에서 모두 태양, 하늘, 밝음, 수컷 등을 상징한다.

(7)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작음”의 뜻을 나타낸다.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란 유명한 서시를 남긴바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매우 작고 미미함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도 “하나”는 작고 미미함의 뜻을 나타낸다. “九牛一毛”, “沧海一粟”에서의 “一”이 바로 이런 뜻으로 쓰이었다.

(8)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허망함”의 뜻을 다같이 나타낸다.

“남가일몽(南柯一梦)이란 성구는 한중 두 언어에서 꼭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 “일(一)”은 “허망함”의 뜻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는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민족문화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미도 갖고 있다.

(9) “일”은 중국어에서 “제왕(帝王)”의 뜻을 나타낸다.

“하나”가 “제왕”을 뜻함은 《书吕刑传》에서 “一人, 天子也”라는 풀이에서 잘 알 수 있다.

(10) “일”은 중국어에서 “통일”의 뜻을 나타낸다.

두목(杜牧)의 《阿房宫赋》에는 “六王毕, 四海一”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一”은 “통일”의 의미로 쓰이었다.

(11) “하나”는 한국어에서 “외로움”의 뜻을 나타낸다.

한국 문학작품에서는 외로운 마음을 흔히 하나의 사물에 비추어 나타낸다.

○ 뜰 앞에 잎새 하나 떨어지는데,/ 마루 밑 슬피 우는 못 벌레 소리./ 홀쩍 떠나감을 잡지는 못하나,/ 유유히 그대 홀로 어디로 가려는가. <정지상. 송인(送人)>

여기서 시인은 그 외로운 심정을 뜰 앞에 떨어지는 “잎새 하나”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외로움”을 표현할 때 “一”보다는 “孤”를 많이 사용한다.

## 2) 둘(二)

(1) “둘”은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대립과 조화”를 상징한다.

중국어에서 “二纪”, “二耀”는 “일월(日月)”을, “二气”는 “음양(阴阳)”을, “二亲”은 “부모(父母)”를 가리킨다. 이렇게 중국어에서는 “二”가 서로 대립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두 사물을 가리킨다. 한국어에서도 “둘”의 이런 상징적 의미는 신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단군신화에서의 환웅과 웅녀 및 그들의 결합, 천지왕 본풀이에서의 천지왕과 총맹부인 및 그들의 결합 등이 “둘”이라는 숫자의 대립과 조화의 상징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2) “둘”은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화합”을 상징한다.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한 쌍의 잉어를 그린 “쌍리도”(조선시대), 한 쌍의 까치를 그린 “쌍작도”(조선시대) 등은 “둘”이라는 숫자의 “화합”의 상징성을 짙게 나타낸다. 중국어에 있어서도 “이(二)”라는 숫자는 “화합”을 상징하는데 가장 좋은 실례로 기쁠 “喜”를 겹쳐 쓴 “囍(쌍희)자를 들 수 있다.

(3) “둘”은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부차적”이란 뜻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이차적”, “둘째(로) 치고” 등에서의 “둘”이란 숫자는 “부차적”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도 “이(二)”는 한국에서와 같게 쓰인다. 《礼坊记》에는 “故君子有君不谋仕, 唯卜之日称二君”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二”는 “副”의 뜻으로 쓰이었고 《韩诗外传四》에는 “君行一, 臣行二”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次”의 뜻으로 쓰이었다.

(4) “둘”은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딴 또는 다름”의 뜻을 나타낸다.

한중 두 언어에는 “이심(二心)”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 언어에서 다같이 “충성스럽지 못한 마음 또는 배반하는 마음”이란 뜻을 나타내는바 여기서 “이(二)”는 “딴 또는 다름”의 뜻을 나타낸다.

(5) “둘”은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오직 하나 뿐임”의 뜻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둘도 없다”에서의 “둘”이나 중국어의 “独一无二”에서의 “二”는 다른 표현과 어울리어 “오직 하나뿐임”을 나타낸다.

(6) “둘”은 한중 두 언어에서 다같이 “여성”의 뜻을 나타낸다.

“둘”은 짝수로서 음수에 속하기에 “여성”을 상징함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실지로 “둘”이 “여성”을 상징하는 실례를 한국 민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날 전남 여수의 영당(影堂)(海神堂)을 지나는 어선들은 고사미(告祠米) 두 말을 바치고 큰절을 두 번 하면서 무사 항해를 기원했는데 그 이유는 여수 앞 바다를 관장하는 영당의 해신이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어에는 “再婚”이라는 말과 “二婚”이란 말이 있는데 “再婚”은 남성이나 여성이 두 번째로 결혼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二婚”은 재가한 여성을 낮잡아 가리키는 말이다. 참으로 흥미 있는 언어표현이다. “再”와 “婚”의 결합은 성적 구별을 나타내지 않지만 “二”와 “婚”의 결합은 “여성”만을 뜻한다는 성적 구별을 뚜렷이 나타낸다. 또 다른 한 실례로晋의 杜預가 쓴 《女记》에 “贞女无回二之行”(《太平御览》卷四四一引)이란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回二”란 단어는 改嫁를 뜻한다. “二”가 “여성”을 상징하는 좋은 실례들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둘(二)”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민족문화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 의미도 갖고 있다.

(7) 중국어에서 “이(二)”는 “열등함”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어에는 “二路货”, “二五眼”이란 말이 있는데 “二路货”는 열등한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고 “二五眼”은 능력이 차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二”는 기타의 표현과 어울리어 “열등함”의 뜻을 나타낸다.

(8) 중국어에서 “이(二)”는 “명확하지 못함”의 뜻을 나타낸다.

《吕氏春秋应言》에 “令二, 轻臣也”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二”는 “명확하지 못함”의 뜻으로 쓰이었다.

(9) 한국어에서 “둘”은 “흉조”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한 사람의 머리를 둘이 빗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 “두 사람이 한 대야에 세수하면 싸움한다” 등에서의 “둘”은 죽음이나 불화와 같은 “흉조”와 관련되어 있다.

(10) 문학작품에서 “둘”은 “남녀 동반자”란 상징적의미로 많이 쓰인다.

- 우리 둘이 나뉘어 생각하고 사느니, 차라리 바라보며 우는 별이 되자!

<이상화. 이별을 하느니>

- 밤처럼 고요한 끓는 대낮에/ 우리 둘이는 온몸이 달아...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둘”은 문학작품에서 흔히 인칭대명사와 결합되어 쓰이면서 “남녀동반자”를 상징한다.



## 3) 셋(三)

(1) “셋(三)”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세상만물의 바탕이 되는 기본수로 된다. 한중 두 언어에 있는 “삼재(三才), 삼신(三神), 삼원(三元), 삼의(三儀), 삼령(三靈)”은 모두 “천(天), 지(地), 인(人)”을 함께 이르는 말인데 이 천, 지, 인 셋은 신화의 세계를 이루는 기본요소이다. “삼신(三辰), 삼광(三光), 삼명(三明), 삼정(三精)”등은 모두 “해와 달과 별”을 함께 이르는 말인데 해, 달, 별은 광명을 이루는 삼대 기본요소이다. 한국어도 초성, 중성, 종성의 삼대요소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한중 두 언어에서는 “셋”을 세상 만물의 바탕이 되는 기본수로 친다. 이것은 노자(老子)가 말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万物”의 도교 사상과도 일치된다.

(2) “셋(三)”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성스러운 수로 된다. 불교의 “삼승(三乘)(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도교의 “삼신산(三神山)(신선이 거주한다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 그리고 “삼황(三皇)(천황, 지황, 인황)”, “삼존(三尊)(임금, 아버지, 스승)” 등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한중 두 언어에서는 “셋”을 성스러운 수의 표현에 쓴다.

(3) “셋(삼)”은 한중 두 언어에서 “많은 수(多數)”를 상징한다. 우리말의 “석삼년”, “서당개 삼년에 풍월 읊는다”,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라”, “구두장이 셋이 모이면 재갈량보다 낫다”등에서의 “셋”은 많은 수량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三思而後行”, “三番五次”, “三千大千世界” 등에서 “三”도 많은 수량을 나타낸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에서는 고대에는 “三, 五, 八, 九”네 개의 숫자로 많은 수를 나타냈다. (장청상. <한어의 15개 수사> <언어교육과 연구> 1990년 4기 참조)

(4) “셋(三)”은 한중 두 언어에서 “재앙의 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어에는 “삼구부동총(三九不動冢)”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한국 민속에서 음력 3월과 9월에 무덤을 건드리면 재앙이 있다 하여 무덤을 옮기는 것을 피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삼(三)은 구(九)와 함께 재앙의 수를 상징한다. 중국어에는 “三长两短”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의 죽음을 특별히 지칭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三”은 다른 단어와의 결합 속에서 재앙의 상징적 의미로 쓰인다.

(5) “셋(三)”은 한중 두 언어에서 “가장 차함”의 뜻으로 쓰인다. 중국어의 “三青子”, “三孙子” 그리고 한국어의 “삼류 극장, 삼류 작가”등에서의 “삼(三)”은 모두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셋(三)”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민족문화의 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 의미로도 쓰인다.

(6) 중국어에서 “三”은 “終”의 의미로 쓰인다. 《汉扬雄太玄经二进》에는 “三岁不还”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아래에 “三, 终也”라는 주석을 달았다.

(7) 한국 민속에서 “셋”은 제 삼의 생명의 탄생을 상징한다. 조선 시대 민화 <삼불제석>은 세 신이 합쳐진 삼신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한 제 삼의 생명의 탄생을 상징한다. 민간에서도 아이의 탄생과 직접 관련을 맺는 삼신(三神)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풍습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일례로 강원도 지방에서 음력 3월 3일을 삼신날로 정하여 제사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8) 한국 민속에서 “셋”은 “제역초복(除厄招福)”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숫자이다. 사람이 죽으면 열라대왕의 사자가 망자를 편히 모셔가라는 뜻에서 사자상에 짚신 3켢레와 밥 3그릇, 북어 3마리 등을 차린 사자상(이는 저승사자가 천황사자, 지황사자, 인황사자 셋이기 때문임), 남해안 조선(造船)의례에서 주로 3월에 배를 만들고, 배가 완성되면 선주가 배 안에서 3일간 잠을 자면서 배서낭의 점지를 받고, 배내림날에는 무당을 불러 3일간 굿을 하는 의례 등에서 “셋”이 제역초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넷(四)

(1) “넷(四)”은 한중 두 언어에서 “온 천하”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呂氏春秋》에는 “天圓地方”(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라고 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넷”은 사각형으로 상징되는 땅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한중 두 언어에 있는 “사해(四海)”, “사방(四方)”, “사표(四表)”라는 단어는 모두 “온 천하”를 이르는 말로서 문학작품에도 많이 나타난다.

(2) “넷(四)”은 한중 두 언어에서 “불길함”을 상징한다. 녀 사(四)자가 죽을 사(死)자와 발음이 비슷하기에 “사(四)”는 죽음을 상징하는 아주 불길한 수로 여겨왔다. “사(四)”를 꺼리는 경향은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한 것 같다. 중국의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나 자동차 번호에 “4”자를 그래도 쓰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쓰기를 꺼린다.

(3) “넷(四)”은 한중 두 언어에서 “모든, 전체”의 뜻을 나타낸다. “사철(四季), 사처(四处), 사례(四禮), 사덕(四德)”, “사면팔방(四面八方), 사통팔달(四通八達)”등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사(四)는 어떤 사물의 전체를 가리키거나 어떤 개념이 지칭하는 일체를 나타낼 경우에 쓰인다.

(4) “넷(四)”은 한중 두 언어에서 “기쁨”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는 북송 혹은 그 이전 시기의 무명 작가 지은 다음과 같은 사회(四喜)시가 전해지고 있다. “久旱逢甘雨, 他乡见故知, 洞房花烛夜, 金榜挂名时”. 이렇게 중국에서는 인생의 기쁨을 네 가지로 보았다. 한민족도 오래 전부터 그림으로 四喜를 표현했다. 그 일례로 조선시대의 “화조도”와 “조작도”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그림은 모두 까치 네 마리를 그려 인생의 四喜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넷(四)”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 의미로도 쓰인다.

(5) “사(四)”는 중국어에서 “滿”, 즉 “가득함”의 뜻으로도 쓰인다. 乐附詩集에 “弦歌感人腸四坐皆欢悅”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四”는 “坐”와 결합하여 “滿”의 뜻을 나타낸다.

(6) “넷”은 한국 민속에서 “辟邪”(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기능을 지니고 있다. 한민족의 전통 곳에서 모시는 신은 넷으로 되어있고 (조선시대의 민화 “사부신장도”가 바로 이 네 신을 그린 그림이다.), 제주도 영등곶에서 배의 안전을 위한 신 달램으로 영감놀이에 등장하는 영감이 넷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넷이라는 숫자가 한국 민속에서는 벽사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다섯(五)

(1) “다섯(五)”은 한중 두 언어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길한 수이다. “다섯(五)”은 홀수로 양에 해당하는 수인데 5가 겹치는 단오날은 태양이 가장 순수하고 그 빛이 왕성한 날로 일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성한 때이기에 천중가절(天中佳节)이라고도 부른다. 이리하여 “다섯(五)”는 양에 속하는 길한 숫자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길한 숫자로 이상적인 완전한 수를 나타낼 때에는 이 “다섯(五)”을 쓴다. (예: “오복(五福), 오곡(五穀), 오금(五金), 오성(五星)” 등)

(2) “다섯(五)”은 한중 두 언어에서 중심을 나타낸다. 오행설에 의하면 1, 2, 3, 4는 북, 남, 서, 동, 즉 오늘의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다섯(五)은 중앙을 가리킨다. 이렇게 다섯은 그 차례로는 다섯 번째이나 그 위치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3) “다섯(五)”은 한중 두 언어에서 길상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한국 민속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에 오곡밥을 해먹는데 거기에 곁들이는 반찬도 다섯 가지이고 국도 다섯 가지 건더기를 넣어서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해야 그 해의 운수가 트이고 병에 걸리지 않아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오(五)”로 길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북송 때의 “五马图”, 당나라 때의 “五牛图”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일례로 될 수 있다.

(4) “다섯(五)”은 한중 두 언어에서 제왕을 상징한다. 중국에서는 제왕을 진시황 때부터는 “皇帝”라 칭했는데 이런 칭호는 역경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것은 이 皇帝를 “黄帝”로도 표기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皇帝本又作黄帝). 역경에서 가장 가운데 자리에 위치해 있고 또 黃색의 위치에 있는 수가 바로 五이다. 이리하여 五는 皇帝를 상징하는 수로 된다. 한민족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작은 관계로 왕(王)으로 칭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다섯(五)”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

(5) 중국어에서 五는 불길함의 의미로도 쓰인다. 중국어에는 “五日子”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음력 5월 5일에 낳은 아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미신적인 관념에서는 이 날 낳은 아들은 불길하다고 믿는다.

## 6) 여섯(六)

(1) “여섯(육)”은 한중 두 언어에서 “온 우주”를 상징한다. 李太白의 시에는 “秦王扫六合, 虎视何雄哉”란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육합(六合)”이나 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육극(六极)”은 한중 두 언어에서 천지사방, 즉 온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여섯(六)”은 한중 두 언어에서 “태양 또는 제왕”을 상징한다. 전설에 의하면 태양신(日神)은 여섯 마리의 용(龙)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다. 이로부터 “육룡(六龙)”이란 단어가 생겨났으며 또 육룡(六龙)으로 태양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 육룡(六龙)은 후기로 내려오면서 황제의 어가(御驾)를 끄는 여섯 필의 말을 가리키기도 했다. “谁道君王行路难, 六龙西幸万人欢” (李太白诗). 한국어 사전들에서는 “육룡(六龙)”을 “임금의 어가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여섯(六)은 태양이나 제왕을 상징하는 수로 쓰인다.

(3) “여섯(六)”은 한중 두 언어에서 “모든, 전체”의 뜻을 나타낸다. “육친(六亲)”, “육축(六畜)”에서의 “육(六)”은 “모든 또는 전체”의 뜻을 나타낸다. “육(六)”이 “모든 또는 전체”의 뜻으로 많이 쓰이기는 주말(周末) - 서한(西汉) 시기이다. 주례(周礼)의 관리 행정 계통은 여섯으로 나뉘었는데 청조(清朝)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吏, 礼, 户, 工, 刑, 兵”의 육부(六部)로 되어 있다. 시경(诗经)에도 육언시(六言诗)가 나타나며, 오곡(五谷)으로 곡식을 통털어 이르던 표현도 육곡(六谷)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4) “여섯(六)”은 한중 두 언어에서 전형적인 음(阴)에 속한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역경(易经)에 의하면 홀수는 양(阳)에 짝수는 음(阴)에 속하는데 여섯은 짝수로서 전형적인 음(阴)에 속하는 수이다. 이리하여 효(爻)에서의 음효(阴爻)를 육(六)으로 칭하기도 한다. 육효(六爻), 육위(六位)도 바로 음효(阴爻)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어에는 “육의(六衣)”, “육복(六服)”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모두 왕후(王后)의 옷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섯이 전형적인 음(阴)을 대표한다는 아주 좋은 실례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여섯(六)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민족문화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미로도 쓰인다.

(5) “육(六)”은 중국어에서 모든 일이 아주 순탄함을 상징한다. 중국어에는 “六六大顺”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뜻이다.

(6) 한민족의 신화에서 여섯은 신성하고 길상을 나타내는 수이다. 신라의 6부족 시조 신화, 가락국의 6가야 시조 신화에서 여섯 시조는 각각 하늘에서 내려오는바 여섯은 아주 신성(神聖)한 수이다.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 신화에서는 왕건의 아버지가 도선(道洗)이 일러준 대로 집을 “六六”으로 지어 36구로 만든 후에 왕건을 낳게 된다. 여기서 여섯은 길상을 나타내는 수로 된다.

(7) 한민족에게 있어서 여섯은 불길함을 나타내는 수이기도 하다. 한국어에는 “육선달에는 앓은 방석도 안 돌려놓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민속에서 음력 유월과 선달에는 혼인 등 무슨 행사든지 하지 않음이 좋다는 뜻이다. 외세에 의해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은 한민족에게 있어서 여섯은 단순한 불길한 수로서가 아니라 아픔과 슬픔을 주는 수로 안겨온다.

## 7) 일곱(七)

(1) “일곱(七)”은 한중 두 언어에서 행운을 나타내는 수이다. 일곱은 양수 중에서 아홉 다음에 가는 가장 큰 수로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수로 인식하여 매우 즐겨 쓴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七夕), 칠난(七難)에서 벗어나 받는 복을 가리키는 칠복(七福), 모든 진귀한 보배를 일컫는 칠진만보(七珍万宝), 행운과 소망의 기탁 물인 북두칠성(北斗七星) 등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일곱은 행운을 상징하는 수로 된다.

(2) “일곱(七)”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성스러운 길수를 나타내는 수이다. 불교에서 “일곱(七)”은 석가가 태어나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独尊)”이라는 깨달음의 외침을 발한 데서 성스러운 수로 여긴다. 가락국의 신화에서 수로왕은 구지봉에서부터 산의 줄기가 일곱 번 솟아오른 봉황대에 가야의 기틀을 세우고 그의 열명의 왕자 중에서 일곱이 탈속성도(脱俗成道)한다. 중국 사서(史书)의 기록을 보면 공자의 대 제자와 같은 성현(圣贤)을 이룰 때 “칠십자(七十子)”, “칠십이자(七十二子)”, “건안칠자(建安七子)”, “죽림칠현(竹林七贤)” 등에서와 같이 칠(七)이란 숫자가 많이 쓰이었다. 이렇게 한중 두 언어에서 일곱은 성스러운 수로 중국의 서한(西汉) 시기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3) “일곱(七)”은 한중 두 언어에서 죽음을 상징한다. 한국어 속담에는 “칠성판(七星板)에서 뛰어 났다”, “칠성판을 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칠성판”은 관 속 바닥에 까는 북두칠성을 본따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은 얇은 널조각을 가리키는바 죽음을 상징한다. 중국의 민속도 이와 꼭 같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이 될 때까지 매 칠일마다 한번씩 일곱 번 제를 지내는데 이것을 “칠칠(七七)”이라고 한다.

(4) “일곱(七)”은 한중 두 언어에서 많은 수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는 많은 보배를 칠보(七宝)라 하고, 인간의 갖가지 감정을 칠정(七情)이라 하며,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필수품을 칠건사(七件事)라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칠(七)은 많은 수를 나타낸다. 한국어에는 “칠 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엔 못 산다”, “칠 년 대만에 단비 온다”, “칠 년 간병에 삼년 목은 썩을 찾는다”, “일곱 번 재고 천을 짜라” 등과 같은 속담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일곱도 많은 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일곱(七)”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민족문화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미로도 쓰인다.

(5) 중국어에서 “칠(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나타낸다. 중국말에는 “没料到出了个七”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주사위놀이에서 나온 말로서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것은 네모 꼴로 된 주사위 한쪽 면에 새긴 점(点)이 제일 많아서 여섯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6) 한국 민속에서 일곱은 새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다. 한국어에는 “일곱이레”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민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사흘 후와 초이렛날에서부터 일곱 이렛날까지 매 칠일을 한 주기로 하여 삼신할머니께 아이의 건강 장수를 비는 제의를 가리킨다. 이것을 “칠칠(七七)”이라고도 한다. 중국어에서의 “칠칠(七七)”은 죽음의 상징으로 쓰이지만 한국어의 “일곱이레”나 “칠칠”은 새 생명의 탄생을 상징한다.

(7) 한국어에서 “일곱(七)”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한국어에는 “칠삭둥이”, “칠푼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매우 어리석어 바보 같은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 8) 여덟(八)

(1) “여덟(八)”은 한중 두 언어에서 “모든, 전체”의 뜻을 나타낸다. 한중 두 언어에 있는 “팔경(八景), 팔곡(八谷), 팔덕(八德), 팔고(八苦), 팔난(八難)” 등에서의 “팔(八)”은 모든 또는 전체의 뜻으로 쓰인다.

(2) “여덟(八)”은 한중 두 언어에서 “운명”을 상징한다. 한국어에는 “팔자(八字)가 늘어지다”, “팔자를 고치다”, “팔자 도망은 독 안에 들어도 못한다” 등과 같은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팔자”는 한 사람이 타고난 운명을 가리킨다. 중국어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중국어에는 “八字帖”이란 단어가 있다. 중국의 재래식 혼례에서는 약혼 시 남녀 쌍방이 반드시 먼저 각자의 사주팔자를 적은 첩자(帖子)를 교환하였는데 이 첩자를 “八字帖”이라 한다.

(3) “여덟(八)”은 한중 두 언어에서 미인을 상징한다. 한국어에는 “팔등신(八等身) 또는 팔두신(八头身)”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머리의 길이와 신장의 길이가 1:8로 되는 체형을 가리키는데 옛 풍습에서는 이런 체형을 미인의 이상적인 표준 체형으로 보았다. 중국어에는 “八字眉”란 말이 있는데 이 “八字眉”는 당대(唐代) 부녀들 가운데서 유행되던 눈썹 모양으로서 흔히 미녀의 눈썹을 일컫는다. 그리고 두 언어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아름다운 사람을 팔방미인(八方美人)이라 한다.

(4) “여덟(八)”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성스러운 수로 쓰인다. “팔상(八相) (석가가 살아 생전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타난 여덟 가지 변신 상), 팔선(八仙), 팔신(八神), 팔공덕수(八功德水)” 등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여덟(八)”은 성스러운 수의 표현에 쓰인다.

(5) “여덟(八)”은 한중 두 언어에서 우주를 상징한다. 한중 두 언어에 있는 “팔극(八极), 팔굉(八紘), 팔황(八荒) 등은 우주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여덟(八)”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민족문화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6) 중국어에서 “팔(八)”은 아주 길한 수로 쓰인다. 이 八은 그 발음이 대량의 재물을 얻어 번창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发(발)”과 비슷하기에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숫자로 되는바 전화번호나 차번호 같은데 8자가 많이 들어가도록 무척 신경을 쓴다.

(7) 중국어에서 “팔(八)”은 재능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중국말에 “八斗才”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남북조 송(宋)대에 그 쓰임이 보이는데 재능이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8) 한국어에서 여덟은 좀 부실함을 나타낸다. 한국어에는 “팔삭둥이”, “팔푼이”, “여덟달반” 등과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좀 모자라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이다.

(9) 한국어에서 여덟은 풍요함을 나타낸다.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음력 8월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달로 된다. 그래서 한민족은 예로부터 “더도 덜도 말고 팔월 한가위만 같

오소서”라는 바람을 갖고 살아왔다. 팔월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계절이며 힘겨운 농사일도 다 끝나서 한가한 계절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농부들을 “팔월선(八月仙)”이라고 부르게 까지 되었다. 한국어에는 또 “팔진미(八珍味)”, “팔진성찬(八珍盛饌)”란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여덟도 풍요함의 뜻으로 쓰인다.

(10) 한국어에서 여덟은 경사로움을 상징한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한민족은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다. 이리하여 8월은 그 어느 달보다도 경사스러운 달로 된다.

## 9) 아홉(九)

(1) “아홉(九)”는 한중 두 언어에서 아주 많은 수 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 “구주(九州), 구족(九族), 구곡(九谷), 구덕(九德), 구선(九仙), 구사(九思), 구사일생(九死一生), 구우일모(九牛一毛)” 등에서 구(九)는 아주 많은 수 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

(2) “아홉(九)”은 한중 두 언어에서 하늘, 태양, 남성을 상징하는 최대의 양수(陽數)이다. 앞에서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동양의 음양사상에 따르면 홀수는 양수에 속하고 짝수는 음수(陰數)에 속한다. 그런데 9는 가장 완전한 수의 최소 단위인 3의 제곱수이다. 이리하여 9는 양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숫자이다. 따라서 양수인 이 9가 겹치는 음력 9월 9일은 양(陽)이 가장 넘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중구(重九) 또는 중양(重陽)이라고 한다. 전통명절의 하나인 중양절(重陽節)이 바로 이 날이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9가 하늘, 태양 등을 상징하는 수로 쓰인 실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구천(九天), 구중(九重)”이란 말은 한중 두 언어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전설 중의 하늘은 아홉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양(九陽), 구조(九鳥)”는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구조(九鳥)”가 태양을 가리키는 고대 신화에 태양에는 삼족조(三足鳥)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구조(九鳥)로 아홉 개의 태양을 가리켰다.

(3) “아홉(九)”는 한중 두 언어에서 황천(黃泉), 즉 저승을 뜻한다. “구천(九泉)”이란 말은 한중 두 언어에서 황천, 즉 저승을 뜻하는 말이다. “귀신이 구천을 헤매고 있다”, “冥冥九泉室, 漫漫長夜台(명명구천실, 만만장야대)” 등에서의 구천은 황천을 가리킨다. 한국 민속에서는 죽은 날을 모르는 객사자(客死者)나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많이 죽은 사람의 제삿날은 보통 음력 9월 9일로 정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도 9가 황천을 뜻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4) 주역에는 “구륙(九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양과 음, 또는 음양이 어우러져 만물이 생기는 도(道)를 가리킨다. 이렇게 아홉은 여섯과 함께 쓰이면서 음양의 조화에 의한 만물 생성의 도를 뜻한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아홉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민족문화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5) 중국어에서 구(九)는 제왕을 상징한다. 주역에 의하면 9도 제왕을 상징하는 수인 5와 마찬가지로 가장 가운데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9도 제왕을 상징하는 수로 된다. 역경에는 “九五, 飞龙在天, 利见大人”이란 말이 있는데 그 뜻은 9와 5가 서로 만나면 용(龍)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이때 위인이 꼭 출현한다는 것이다. 후세에는 “九五之尊”을 황제의 대칭으로 했다.

(6) 중국에서 구(九)는 지식인을 상징한다. 중국어에는 “老九”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혁명 시기 지식인을 가리키던 말이다. 문화혁명시기 주요한 비판 투쟁의 대상이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나쁜 분자, 우파분자, 반역자, 특무, 주자파, 반동학술권위 등 아홉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지식인이 아홉 번째에 속한다. 9가 지식인을 상징하는 시기는 원대(元代)까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원대에는 사회 각 계층을 10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一官, 二

吏, 三僧, 四道, 五医, 六工, 七猎, 八民, 九儒, 十丐. 여기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지식인은 예로부터 제9등에 속했다.

(7) 한국 민속에서 아홉은 불운의 숫자이다. 한국어에는 “아홉수”란 말이 있는데 “아홉수”란 “9, 19, 29, 39” 등과 같이 “아홉”이 들어 있는 수를 가리킨다. 그런데 민속에서는 남자의 나이에 이런 “아홉수”가 드는 해를 불운의 해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여긴다.

### 10) 열(十)

(1) “열(十)”은 한중 두 언어에서 가장 완전한 수, 가장 완벽한 수로 쓰인다. “십분(十分), 십전(十全),十方(十方), 십간(十干), 십계(十戒), 십선(十善), 십락(十乐)”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열(十)은 가장 와전하고 완벽한 수로 쓰인다.

(2) “열(十)”은 한중 두 언어의 기본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음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인다. 한국어에는 “열 번 재고 가위질은 한번 하라”, “열 골 물이 한 골로 모인다”,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못 막는다” 등과 같은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열은 다 많은 수를 나타낸다. 중국어의 “십사(十思), 십보방초(十步芳草), 십년독서(十年读书), 십년한창(十年寒窗)” 등에서의 십(十)도 모두 많은 수를 나타낸다.

(3) “열(十)”은 한중 두 언어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주역에 나오는 10간(干)과 12지(支)는 우주 만상의 이치를 나타내는 부호들인데 여기서 10간은 하늘을 상징하여 둥글게 배치하고 12지는 땅을 상징하여 네모나게 배치하였다. 따라서 10간으로 하늘의 이치를, 12지로 땅의 이치를 나타낸다.

(4) “열(十)”은 한중 두 언어에서 십자가(十字架), 네거리를 상징하는 숫자이다. 열의 한자 자형 “十”은 십자가나 네거리를 표상한다. 네거리를 한국어에서도 중국어에서와 같이 “십자가(十字街)”라고도 한다.

(5) “열(十)”은 한중 두 언어에서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한중 두 언어에 있는 “十方세계(十方世界)”는 우주를 가리키는 말인데 무한한 공간 속에서 그 어떤 속박에서나 벗어나 자유자재로 활동함을 상징한다. 그리고 “십장생(十长生)”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열 가지 짐승과 사물을 가리키는데 장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열은 한중 두 언어에서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수로 쓰인다.

(6) “열(十)”은 한중 두 언어에서 생명의 탄생을 상징한다. 인간 세상에서 임신 열 달에 새 생명이 탄생되므로 그 어떤 언어에서나 열은 새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수로 된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열(十)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비슷한 민족문화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민족문화의미로도 쓰인다.

(7) 중국어에서 “십(十)”은 경사로움을 상징한다.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절로서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다. 이리하여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十)은 매우 경사스러움을 상징하는 수로 된다.

(8) 한국 신화에서 열은 나라를 상징하는 수로 쓰인다. 백제 시조 온조와 비류 신화에,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와 더불어 나라를 세워 국호를 십제(十濟)라 했다. 후세에 나라가 부강해지자 백제(百濟)라 국호를 고쳤다.

##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1부터 10까지의 기본 숫자어가 한중 두 언어에서 어떤 민족문화 의미를 갖고

쓰이는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숫자어는 그 어떤 언어에서나 일정한 숫자만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가 아니라 민족에 따라 서로 부동한 민족문화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의 부류이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어 교육자들은 부동한 민족의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해야 외국어 교육의 질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본 숫자 1-10은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다른 민족문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것은 수사가 주로는 수적 개념을 나타내는 특수한 부류의 단어라는 사정, 그리고 한중 두 언어가 동일한 문화권에 처해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 참고 문헌

-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辞源》. 상무인서관. 1980.
- 《辞海》. 上海辞书出版社. 1999.
- 《汉语大词典》. 한어대사전출판사. 2000.
- 《中华成语熟语辞海》. 学苑出版社. 1995.
- 《国俗语义研究》. 吴有富. 상해외국어교육출판사. 1998.
- 《应用语言文化概论》. 赵爱国. 姜雅明.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3.
- 《汉语15个数词》. 언어교육과 연구. 1990. 4.



# 한국어 의식론: 무엇이 생략 현상을 조정하는가

김 병 원  
(울산대학교)

## 1. 문제의 발견

생략 현상은 우리말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생략 현상은, 앞의 말에 나온 표현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표현 형식 전개상의 반복 피하기 관행이라고 해석하는 예가 많다. 예컨대, 이대규(1998)는 문장 성분의 생략 현상을 설명하면서 “소나무는 잎이 늘 푸르다. 그리고 [ ] 잎이 바늘 같다”에서, [ ]는 앞에 나온 ‘소나무’를 생략한 자리인데,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 말을 생략”(506-7)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표현 형식 전개법을 하나의 교육 목표로 진술하고 있다.

목표: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 말을 생략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다. (507).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표현 형식 전개법 “선행어 반복 피하기”만으로는 생략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안다. 예컨대, 아래에 옮겨 쓴 학습 자료는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연수부 김홍규 편(개정판, 1996) 한국어 교재의 첫 쪽에 나와 있는 예문이다. 이탤릭으로 표기한 부분은 설명의 편의상 필자가 더한 것이고, [가] [나]도 이 예문에서 의미로 보아 무엇인가가 생략된 자리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자가 삽입한 것이다.

“저는 엘버트라고 합니다. [가] [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이른바 표현 전개법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 따라, 첫 표현에 나온 ‘저’를 다음 표현에서는 생략한 것이 [가] 자리라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나]에 있다. [나] 자리에는 ‘당신’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의 표현 어디에도 ‘당신’이 선행되어 있지 않다. 그 ‘당신’은 ‘만나다’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행어가 없는데도 [나]에서처럼 ‘당신’을 생략하는 현상을 “선행어 반복 피하기”로 설명할 수는 없다. 여기 [나]는 표현 형식 전개의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서 벗어난 예이다.

또, 다음 예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펴낸 한국어 교재(1992)의 12쪽에 나와 있다. 여기서도 이탤릭으로 표기한 부분은 설명의 편의상 필자가 더한 것이다.

갑1: “*이름이* 무엇입니까?”

을: “[다] 톰 존슨입니다.”

갑2: “[라] 미국 사람입니까?”

갑1의 물음에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을은 [다] 자리에 을 ‘이름’을 생략하고, 그냥 “[ ] 톰 존 손입니다”라고 하였다.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 따른 예이다.

그런데 그 관행에 따른다면, 갑2의 물음 “미국 사람입니까?”의 주어 [라]는 ‘이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름이 미국 사람입니까?”는 이 대화의 내용상 성립되지를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사람입니까?”의 의미상 주어는 ‘당신’(또는 ‘그 사람’일 수도 있음)인데 여기서는 ‘당신’이라는 선행어가 없는데도, 그것을 생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위에서 살펴본 고려대 김홍규 편 교재에 나온 [나]에서 선행어 ‘당신’이 없는데도 다음 표현에서는 ‘당신’ 없이,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된 것과 같다. 즉, [나]나 갑2의 [라]는 표현 형식 전개법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서 벗어난 예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교재(1991)에도 동일 종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예들이 나와 있다. 이 예들은 숫자 2와, 그림으로 보여주는 머리와 나비와 미라라는 이름의 어린이와 개에 대한 묻고 응답하는 대화이다. (여기서도 이탤릭으로 표기한 부분은 설명의 편의상 필자가 더한 것임.)

1쪽: “*이거* 뭐예요?” “*이거* 이(2)예요.” / “*이거* 이(2)예요?” “예, *이거* 이(2)예요.”

2쪽: “*이거* 뭐예요?” “[ ] 머리에요.” / “*이거* 나비예요?” “예, [ ] 나비예요.”

6쪽: “[ ] 누구예요?” “[ ] 미라예요.”

1쪽에서는 묻는 말의 ‘이거’를 응답에서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서 벗어난 예이다. 그런데 이에 대조적으로, 2쪽에서는 ‘이거’의 반복을 피한 응답들이 나온다. 이것은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 따른 예가 아닌가. 한편, 6쪽에서는 선행어 ‘이 아이’ 없이 “[ ] 누구예요?” “[ ] 미라예요”가 나오고 있다. 이 예들도, 앞서 살펴본 예 [나]와 [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결국,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교재의 경우에도, 2쪽의 표현들만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 맞는 예라고 볼 수 있고, 1쪽의 표현들은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서 벗어나는 예들이다. 그리고 6쪽에서는 선행어 없는데도 ‘아이’를 생략하면서 묻고 응답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 2. 의식론과 ‘표현 형식 전개법’의 차이

이제 우리는 “선행어 반복 피하기”라는 표현 형식 전개법만으로 한국어의 생략 현상들을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국어 학습 목표로 제시한다면 문제가 없겠는가.

한편,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생략이 필요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부분부분을 생략해서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유창하게 사용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기서 잠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한국어 교재의 생략 예들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들은 분명히 한국어에 능한 한국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행어 반복 피하기”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왜 그렇게 어수선하게 섞어서 써놓았겠는가?

만약 그들이 실제 대화의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는다면, 대개의 경우,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도록, 어떤 표현을 생략하고 생략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하면서 표현 형식을 전개하였을 것이다. 한국인이면 거의 누구나 그럴 수 있음을 다음 제 3 항의 “의식론적 해석”에서 실제 대화 녹음 자료 관찰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평소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 모두는, 생략 여부를 '무의식적으로' 잘 가려서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해서 짧은 대화를 인위적으로 만들 때에는 '의식적으로' 생략법을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들이 교육 자료에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이거* 뭐예요?” “*이거* 이(2)예요?”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어 반복 피하기” 같은 표현 형식 전개법을 적용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사용할 수는 없고,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Consciousness) 기능에 따라야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예컨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면서, “*이거* 뭐예요?”라고 하면, 발화자의 의식이 ‘*이거*’에 초점을 두면서, 청자의 의식 초점도 ‘*이거*’에 맞추기를 기대한다. “*이거* 뭐예요?”에서 ‘뭐예요’는 (초점의) 주변이 된다. 그러니까, 의식은 한번에 표현 한 토막 “*이거* 뭐예요?” 전부를 의식하는데, 그 의식 한 토막 안에는 초점과 주변이 합쳐져 있다. “*이거* 뭐예요?”와 같은 그런 한 토막의 의식을 ‘억양 단위’(Intonation Unit)라고 하고, 한 토막의 억양 단위 길이는 대개 1초 내지 2초이며, 억양 단위 하나에는 소리마디 10개 정도가 포함되는 것 같다 (Chafe, 1994; 김병원, 2000). 억양 단위 하나의 길이가 1-2초 정도인 것은, 생리적으로 우리가 호흡할 때 한 번 내쉬는 숨의 길이가 대개 1-2초 정도인 것과 일치한다.

“*이거* 뭐예요?”에 이어서 그 물음에 응답을 할 때에는, 이미 두 사람이 ‘*이거*’를 공동으로 의식하게 되었으므로, 그것은 주변으로 돌려서 약하게 발음하거나 대개는 아예 생략을 해서 “[ ] 예요”라고 한다. 만일, 묻는 이가 의식의 초점을 ‘*이거*’에 두었는데 응답자도 역시 그 ‘*이거*’에 초점을 둘 이유가 있으면, 물론 응답에서도 ‘*이거*’에 초점을 두어, “*이거* 2예요”라고 하게 된다. 이렇게, 의식 중심으로 의미-표현 전개를 이해하면, 말하는 이의 의사소통 목적에 따른 의식과 의식의 초점 이동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의식의 전개에 따라 주변의 생략 현상이 일어나게 됨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의식론’ 또는 ‘언어 의식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대규(1998)는 우리말의 생략 현상을, 표현 전개상의 “선행어 반복 피하기”로 설명하였다. 이 설명은 표현 형식 전개법 즉, 문법 중심이다. 언어에는 각종 표현 형식을 전개하는 틀이 있고, 그 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생략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예의 하나가 “선행어 반복 피하기”라고 본 것이다.

연구자들 중에는 표현 생략 현상을, 단순하게, 표현 형식면으로만 보지 않고, 대화하는 두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생략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다. 예컨대, 남기심과 고영근(1985)은 “선행어 반복 피하기” 대신에, “언어외적(言語外的)인 상황에 따라 표현 일부를 생략하는 관행”(26-27)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갑)이 “값이 얼마요?”라고 하였는데, (을)이 “오천 원이오”라고 했다면, (갑)이 ‘값’을 언급하였으므로 (을)은 ‘값’을 생략하고 “[값이] 오천 원이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갑)이 말을 이을 때에는 역시 ‘값’을 생략하고 “[값이] 너무 비싼데요”라 할 것이고, (을)은 그 말을 받아서 “그럼 [값을] 오백 원만 덜 받지요”라고 할 것이라 하였다.

물론, 남기심과 고영근(1985)의 예에서, 처음 (갑)의 말에 ‘값’이 표현되었고, 다음 이어나간 세 마디 말에서는 그 ‘값’이 생략되었으므로, “선행어 반복 피하기”의 관행 예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표현의 생략 문제를, 언어외적 상황에 따라, 서로 이해하는 내용의 표현을 생략하는 관행이라고 한 것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선행어 반복 피하기”는 언어의 표현 전개면에서 생략 현상을 설명하는데 반해, 동일 현상을 “언어외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생략한 예라고 보는 관점은 언어를 사용하는 심리의 설명이기 때문이다.

생략의 현상을 표현 문법 중심으로만 보면, 선행어의 반복을 피하는 경우만은 설명할 수 있으나, 선행어가 있어도 그것을 생략하지 않고 다시 반복하여 쓰는 예는 설명할 수 없다. 또, 선행어가 없는데도 어떤 표현이 생략된 경우, 또는 선행어는 없어도 막연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 같은 것도 설명할 수 없다.

가령,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 경우, 우리는 “사랑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사랑해”에는 주어도 목적어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 존재나 그 말을 듣는 상대의 존재를 서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와 ‘너’를 생략한 예이다. 영어에서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밝혀서 굳이 “I love you”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문장 요소의 일부를 생략하지 않고 대개 문법 형식에 맞추어 문장을 전개하는 “I love you”와 같은 예에서도, 말소리를 낼 때에는 love만 분명하고 뚜렷하게 소리 낸다. 나머지 I와 you는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고 약하고 짧게 발음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둘은 여기서 주변을 이루고 있다. 즉, 글자로 쓰면 주어와 목적어를 대명사로라도 표현해서 문법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순간의 말소리에서는 그 주어나 목적어는 주변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우리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주변의 발음을 약화시킨다. 여기에는 어떤 공동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가 의식의 언어 사용 기능일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이기동(K. Lee, 1982, 539-550)은 언어 사용에서의 의식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그의 영문으로 쓴 논문은, 주어의 생략과 ‘-가’ ‘-는’의 사용 심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략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거기에 나온 예문 중에는 (8) “온다”와 (9) “버스 온다”가 있었다. 이 예 (8)과 (9)를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의식’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이탤릭으로 표기된 부분과 밑줄을 그은 부분은, 설명의 편의상 필자가 더한 것임.)

“먼저, (8) “온다”라고 말 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발화자 A와 B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오고 있는 것을 A가 먼저 보게 되면 (8)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경우 A는 B의 마음속에 ‘버스’ 개념이 들어있다고 보고, ‘온다’는 말만 하면 ‘온다’와 ‘버스’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의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A가 생각한다는 점이다.

“(9) “버스 온다”라고 말하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보자. 발화자 A와 B가 길을 걸으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버스가 갑자기 오고 있는 것을 A가 본다. 이런 경우 당연히 (9)라고 말할 것이다. 이때, A는 B의 의식 속에 ‘버스’의 개념이나 ‘온다’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버스와 온다는 개념을 한꺼번에 B의 의식 속에 처음으로 넣어준다.” (542-3)

이기동(1982)의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선 발화자 A가, 버스가 오고 있음을 의식한다. 그리고 상대방 B를 의식하면서, 자기가 의식한 바 즉, 버스가 온다는 것을 말하려는 순간, B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의식한다. 이때 A의 의식은 ‘버스’ ‘온다’의 개념 중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A의 의식은, (8) “온다” 또는 (9) “버스 온다”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그 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온다”는 초점이고 이 경우 생략된 ‘버스’는 주변이다. “버스 온다”에서는 의식의 초점에 따라, 만일 ‘버스’에 초점이 있으면 ‘온다’가 주변이 되고, ‘온다’에 초점이 있으면 주변인 ‘버스’를 생략하거나 약하게 발음한다. 이것이 바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작용하는 의식의 기능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8)의 “온다”나 (9)의 “버스 온다” 중에서 한 쪽을 의식이 선택한다고 하자. 이때에, 그에 앞서 발화자가 그런 개념들을 무엇으로부터 선택하고, 그런 개념들의 개별 선택과 모양과 나열 방법의 선택은 무엇으로부터 선택하는가? 이 의문은 전통

적인 언어의 두 가지 범주 '의미'와 '표현 형식'(언어 지식)으로 풀 수 있다. 즉, 어떤 생각을 내용(의미)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내용의 표현에 적절한 표현 형식들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와 표현 면에서, 각각의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고, 이들을 연계키기는 의식 과정이 언어의 사용 과정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기능이 '의식'에 있다고 본다. 다만,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 **의식**이 양 면(의미와 표현)의 선택과 연계 과정에 매우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순간순간 생각을 표현하게 된다. 한편,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아마 그런 과정의 전부 또는 부분 부분을 거의 언제나 **의식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는 모국어나 외국어에 익숙한 경우, **의식**이 생각(의미)과 표현을 각각 선택하고 연계하는 경험이 축적되면, 그 결과로, 생각과 표현 사이에 '언어사고'(Verbal Thinking, Chafe, 1994, 41)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언어 학습은 궁극적으로 '언어사고'를 생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본다.

### 3. 의식론적 해석

근자에 이르러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의식을 연구하고 있는데, 언어에 관련된 '언어 의식론'을 많이 연구하는 철학자 설(Searle, 2002)과 언어학자 체이프(Chafe, 1994, 1998, 2000)의 이론에 크게 의존하여,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언어 사고를 생성시켜주는 의식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정리(의식론)를 바탕으로 우리말의 생략 현상을 의식론에 입각해서 다시 이해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연구에서 의식론의 위치는 문법에 대한 개념의 특징에 있을 것이다. 즉, 문법이란 형식 전개 규칙이 아니다. 문법은 생각들을 언어로 표현할 때에 서로를 연결시켜 합쳐나가는 길이다. (체이프, 1994, 119)

**<1> 의식은 전체를 하나로 의식 할 수 있다.** 의식은, "이거 뭐예요?" 하나를 전부로 의식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이거 뭐예요?"와 응답 "이거 이(2)예요"를 전부 하나로 의식 할 수도 있으며, 대화자 모두와 주변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의식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의식의 폭 결정은, 의식하는 사람의 의식 능력이나, 의식의 목적, 환경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다.

**<2> 의식 한 토막 안에는 '초점 하나와 '주변(들)'이 있다.** "이거 모두 뭐예요?"에서 가령, '이거'에 초점을 두면, 나머지 '모두' '뭐예요'는 주변이 된다. 또, 상황에 따라서 초점이 '모두'에 있을 수도 있다. 이때에는 '이거'와 '뭐예요'가 주변이 된다.

그리고, 초점은 반드시 분명하게 발음하고, 나머지 주변(들)은 그대로 두되, 약하게 발음해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이것은 말소리로 의식과 주변을 구별해줘서 상대방(청자)이 초점을 의식하여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참고로, 영어와 같은 형식 구성/전개 중심의 언어에서는 주변을 대명사나 대동사 같은 것으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으면서도, 모든 주변은 반드시 약한 소리로 약화시킨다.

**<3> 의식은 초점의 위치를 바꾸면서 무단히 이동한다.** 의식은 잠시도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한다. 예컨대, 을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을 갑이 의식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거] 뭐예요?"라 할 때에 '이거'는 주변이 되므로 약하게 발음하거나 생략해서 "[ ] 뭐예요?"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을이 그 말에 응답을 할 때에 갑의 의식 초점을 의식하고, "[ ] 뭐냐구요?"라고 되물을 수도 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자기 것이면서 왜 묻느냐?"는 뜻으로) "이거 [뭐냐구요]?"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발화자의 초점이었던 ‘이거’에 다시 초점을 두면서, ‘뭘냐구요’는 생략하거나 약화시켜서 단순히, “이거?”라고 응답 할 수도 있다.

한 사람이 길게 이어서 말을 할 때에도 의식의 초점 이동은 동일하다. 가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당신 것** 아납니까. 근데 이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라고 했다면, 아마 일반적인 경우, 초점이 “이것이 → 당신 것 → 무엇이냐고 → 나는”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주변은 약화시키거나 생략 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성공적인 대화에서, 발화자는 자신의 뜻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식 즉, 상대방이 현재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발화자가 ‘의식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순간순간 초점을 정하거나 이동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Chafe, 1994: 54)

이런 특성을 가진 의식과 의식의 기능 이해는, 우리말의 생략 현상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즉, 버스가 오는 것을 본 A의 머리 속 생각은, 기다리던 버스가 온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생각을 B에게 말로 표현하려는 순간, 그런 생각들 중에서 무엇을 초점으로 하고, 무엇을 주변으로 하여, 전체를 한 마디 말로 표현할까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에 A는 B의 의식 내용까지를 포함한 A 자신의 생각들 중에서 표현에 적절한 내용만을 선택하고 초점과 주변을 정한다.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말이다. 그 말 속에서 생략 현상을 우리는 자주 접한다. 이런 생략의 심리 과정을, 단순히 “선행어 반복 피하기”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략의 예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쓴 예문들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는 생략의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의 표현 전개법의 하나 “선행어 반복 피하기”로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실제 데이터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대화는 K국제대원 한 학생이 독서지도학과의 <독서와 언어사고> 교과목 과제로, 연구 조사한 보고서 “일상 대화에 나타나는 생략 현상 연구”에 포함된 실제 녹음한 모-자 사이의 대화 전사이다.

### 어머니(모)와 아들(자)의 대화

녹음/전사: 전길자

때와 장소: 2003년 5월 20일/가정

(모1) “야, 4월 9일날 [(1)나] **니네 학교** 같건데, 수요일, 근데 그때 [(2)니네 학교] **벗꽃** 피냐?”

(자1): “아아.”

(모2): “ [(3)벗꽃] 안 피지?”

(자2) “아, [(4)벗꽃] 안 피요... [(5)벗꽃] 조금 피요. 조금.”

(모3) “그럼 [(6)?] **재미가 없지**. [(7)벗꽃이] 만개해야 하는데, 러면. 4월 말쯤에는 [(8)?] **되겠냐?**”

(자3) “4월 9일?”

(모4) “9일 쯤 [(9)벗꽃이] 피면 [(10)나에게] 얘기해. [(11)벗꽃이] 피면 [(12)내가] 가고, [(13)벗꽃이] 안 피면 [(14)내가] 안 가고...”

<생략의 종류별 정리>

[] 선행어 없는 예

가: [(1)] (10) (12) (14) ----- ‘말하는 이’ **나**의 표현 생략

나: [(6) ?] 재미가 없지 ----- ‘벗꽃 보러 가도’의 생략

다: [(8) ?] 되겠냐? ----- ‘벗꽃 보러 가도’ 또는 ‘벗꽃 피게’의 생략

□ 선행어 있는 예

라: *니네 학교* → (2) ----- “선행어 반복 피하기

마: *벚꽃* → (3) (4) (5) (7) (9) (11) (13) ----- 선행어 반복 피하기

<해석>

□ 선행어 없는 예

위 <생략의 종류별 정리>의 가, 나, 다에 포함된 6개의 예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이 생략되어 있고, 이어서 계속 그런 생략 현상이 나타난 예들이다. 이런 현상은 의식의 특성 <1>과 <2>로 설명해야 한다. 즉, 상대의 의식까지도 포함해서 전체를 의식하는 가운데(의식 특성<1>), 초점을 살리고 주변을 생략하고 있음(의식 특성<2>)을 보여준다.

□ 선행어 있는 예

위 <정리>의 라와 마에 포함된 8개의 예들은, 처음에 선행어(‘니네 학교’와 ‘벚꽃’)가 나왔으므로, 상대방(청자)이 그 개념을 의식하고 있다고 이해하면서, 그 선행어의 반복을 피하고 있다. 이 예들은 표현 전개법 “선행어 반복 피하기”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위의 가, 나, 다에 포함된 예들은 ‘예외’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식론으로는 위 정리 가-마 전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 4. 맺는 말

위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아도, 생략 예가 모두 14개 발견되었는데, 그중 8개는 선행어의 반복 피하기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나머지 8개는 그럴 수 없는 예들이었다. 그런데다가, 의식론으로는 14개 전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언어의 사용을 설명하려면, 표현 전개법 보다는 의식론으로 설명하는 편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 연구에서는 표현만을 다룰 수 없다. 표현의 출발인 생각(의미)을 다루면서 표현을 연구해야 비로소 사실에 가까운 언어의 연구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 논문은 표현 전개법보다는, 언어 의식론을 따라야만 언어 전개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로 생략 현상을 다루었다.

그리고, 처음 논의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낸 한국어 교재 몇 개에 드러나는 예들에서 출발하였다. 표현 전개법과 같은 ‘문법’에 의존해서 문법 학습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려 할 때에, 교육 목표에 따라서는, 한국어가 배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언어라는 인상을 준다고 판단된다. ‘문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예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의식론에 따른 한국어의 사용 심리 이해는 한국어를 배워서 익혀야 하는 사람들에게, 언어 의식의 변모를 통해, “한국어로 생각”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맞는 한국어의 구성/전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어의 생략 현상 한 가지만을 검토해서 의식론의 설명 능력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생략 현상 하나만으로도, 언어 연구와 교육에서, 표현 현상 쪽만을 보고 현상을 설명하려는 입장은 피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언어 사용 심리에 해당하는 언어 의식론을 도입할 때에, 우리는 겉으로만 보아서는 ‘예외’일 수밖에 없는 한국어의 생략 현상들이 실제로는 오히려 한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예들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식론 연구와 더불어 한국어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언어 사용 현상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언어 관련 의식론을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학습에 더욱 효과적인 교수법과 자료가 연구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병원. 2002. 의식론: 의식의 언어와 사고 전개 기능. 2002년도 한국인지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인지 과학, 145-150.
- 김홍규 편. 1996. 한국어 회화 1 (개정판). 서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연수부.
- 남기심 · 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1992. 한국어 1.
- 이기동. 1982. “언어와 의식” 조용한 아침 나라의 언어학. 한국언어학회 편. 서울: 한신문화사.
- 이대규. 1998. 국어 교육의 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199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I.
- 전길자. 2003. “일상 대화에 나타나는 생략 현상 연구.” 대학원 <독서지도학과>의 교과목 “독서와 언어사고”의 연구조사 보고서.
- Chafe, W. 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Chafe, W. 1998. Verbal and Nonverbal Thought. In Sandstr, S. (ed.) *Intuitive formation of meaning: Symposium held in Stockholm*, April 20-21, 53-64.
- Chafe, W. 2000. Loci of Diversity and Convergence in Thought and Language. In Putz, M. & Verspoor, M. H. (eds.), *Explorations in Linguistic Relativ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102-123.
- Lee, K. 1982. Language and Consciousness.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lected Papers from SICOL-1981*. Hanshin Publishing Company, Seoul, 539-550.
- Searle, J. R. 2002. Consciousness. In Searle, J.R. *Consciousness and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36-60.



## 두 개의 허구 장르에 대한 옛 한중의 인식

— 옛소설과 가전문학을 중심으로 —

김 창 룡  
(한성대학교)

### 1. 머리말

무릇, ‘허구’라는 말은 묘한 구석이 있는 어휘이다. 이를테면, 그것이 정치의 분야에 들어가면 이것은 지극히 부정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으나, 이것이 문득 문학의 범주에 들어서면 그 의미는 새롭게 빛을 발하게 된다. 허구야말로 바로 문학의 원천이자 생명인 까닭이다. 역언하여 문학에서 허구의 힘을 거세시킨다면 문학의 설자리도 사라질 일이 자명하다. 산문의 대표격인 소설이야 그 허구의 직접성에서 더 이를 나위도 없겠거니와, 운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시의 경우에조차 그것은 허구적 상상력 또는 상상적 허구력에 의해 가꾸어진다. 곧, 언뜻 보아 허구와 무관한 듯싶은 시조차도 광의적 허구의 개념 안에 들어있으니, 이에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허구가 그 진면모를 발휘하고, 문학하는 이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봉을 받은 것은 바로 20세기 들어선 근·현대에 들어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오히려, 19세기까지의 봉건주의 시간대 안에서의 허구는 지극한 천덕꾸러기वाद 같은 한심한 신세를 면치 못하였음도 사실이다. 사실과 진실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유교의 가르침 안에서는, 허구는 참에 대한 거짓이요, 사실에 대한 허위일 뿐이며, 그와 같은 왜곡과 혼란으로 말미암아 진실과 도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해독일 따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구란 것이 이렇듯 부정적이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한중간에 그 인식의 정도가 똑 같게 나타난 것이었을까?

또한 옛소설과 가전문학이 똑같이 허구를 토대로 이룩된 장르였음에, 문학의 흐름상에서 그 두 장르가 나란히 똑같은 대접을 받고 진행되었던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이하에 서술하고자 한다.

### 2. 옛소설에 대한 인식

옛 서사문학의 대표격인 설화와 소설을 운위할 때, 중국을 모르는 체하고 단독으로 그 연구를 진행할 수는 천만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설화 중에서도 문헌에 기록되어 남아 전하는 상당수의 전설은 중국 설화와의 긴밀한 유대와 영향관계가 발견되고 있다.<sup>32)</sup>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수의 전설과 신화, 민담 등은 일찌감치 설화 대중에 의해 주도되어왔던 것이요, 그 나라 고유한 특성을 따라 각기 전개되어 나갔기에 한중 비교문화적인 관계를 강력히 주장해보기 어려운 국면이 없지 않다.

한편, 소설문학은 조선 세조조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시작과 남상으로 보고 있는 일반론을 준

32)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참조.

수했을 때 이 작품을 명대 구우의 「전등신화」와 분리시켜 그 단독으로만 논급했다가는 정저와(井底蛙) 신세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조선조 소설사의 큰 산맥으로 광해조 무렵에 나타난 「홍길동전」 또한 중국 명대의 「수호지」거나 「서유기」, 「전등신화」 등과 단절시켜 언급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중 관계의 도도한 흐름이 언제까지나 그 모양 그대로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다름아니라, 통상 이른바 조선 후기라고 책정되는 임병양란 이후의 옛소설 양상은 더 이상 중국 소설을 모델삼고 그 표제나 소재, 또는 주제의 상당 부분, 혹은 일부분이라도 취용해 오던 경향으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지는 현상을 암만해도 둔과하기 어렵다. 숙종조 김만중의 환몽소설인 「구운몽」에 오면 벌써 중국의 몽자류(夢字類) 작품인 「홍루몽」보다 앞선 걸음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나중인 정조 때 박지원의 이른바 연암소설이나, 바로 그 무렵에 대중예술의 꽃을 피운 바 지금까지 민족 최고의 고전소설로 연상되는 「춘향전」에 이르면 더 이상 중국소설과의 관련성을 말하기가 지난해진다.<sup>33)</sup> 말하자면 중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면서, 독자성을 찾아가는 이 같은 진행이야말로 한국 고소설의 중대한 한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물론, 이상은 한국 고소설의 거대 봉우리와의 같은 작품 중종을 일례로 든 것이기는 해도, 이미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소설들에서는 이 같은 독창의 발걸음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로서 중요한 의미가 된다. 요컨대, 「영향적 허구」에서 「독창적 허구」로의 새로운 전이 — 이를 「옛 소설의 영향과 독창」이란 말로 대신해도 무방하다 — 로 인한 허구문학의 새 지평이 열린 셈이다.

이와 같은 장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 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까지 마침내 불변하지 않았던 바, 이 장르에 대한 불문률적 사고방식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을 「고인들의 소설관」이라 해도 무방한 것이지만, 아무튼 이는 다분히 부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물론, 지극히 일부분의 지식인에 의해서 「소설 유용론(有用論)」에 대한 표출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작 「구운몽」의 작자 김만중이나, 단편소설의 작자인 연암 박지원, 「천군연의」의 저자 정태제(鄭泰齊), 혹은 「육미당기(六美堂記)」, 「일락정기(一樂亭記)」의 작자 등 손수 창작적 행위에 들어갔던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손수 짓지 않은 지식인 일각에서도 약간의 지지가 보인다.<sup>34)</sup> 그 가운데 김만중의 「삼국지연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은 오늘날 안목에서도 참으로 적실하고 참신한 지적이 아닐 수 없겠다.

삼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르러 유현덕이 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조조가 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서 소리쳤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가 주는 힘이다. 만약 진수의 『삼국지』나 사마오공의 『자치통감』으로 무리를 모아놓고 강설하여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통속소설을 짓는 이유이다.<sup>35)</sup>

그럼에도, 이는 별반 그 사회적 반향을 불러 모으기 어려웠다. 개인 차원의 영향력 없는 외침일 따름이었다.

그 나머지, 조선 전기의 지정 남곤, 퇴계 이황이거나 고봉 기대승, 후기의 택당 이식, 어우 유몽인, 소재 이이명, 성호 이익, 청장관 이덕무 등 조선조 사대부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일, 곧 소설

33) 연암소설을 비교문학적으로 다룬 사례는 지금껏 찾아보기 어렵고, 「춘향전」의 경우도 중국 당나라 때의 소설인 「앵앵전(鶯鶯傳)」이나, 청대의 희곡인 「서상기(西廂記)」 등과 관련지어 그 영향 수수관계를 시도한 논문 몇이 있었으나, 호응을 얻지 못해 별다른 성과 없이 매듭지어진 셈이 되었다.

34) 오춘택, 「조선 전기의 소설 의식」, 어문론집 23, 고려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2.9, 참조. 장효현, 「조선 후기의 소설론」, 위의 책, pp.576~585 참조.

35) 김만중, 『서포만필』, 통문관, 1974, pp.650~651.

을 짓거나 읽는 행위에 대해 단연코 ‘사갈시(蛇蝎视)’ 혹은 ‘이단시’했던 것이니,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원용하면 이러하다.

중종 때 채수(蔡寿)가 설공찬전(薛公贊传)을 지은 데 대해 그 물의가 상당하였으니, 그것은 당시 사헌부의 계(啓)에 올린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심상치 않았던 분위기를 심분 짐작해 볼 길 있다.

蔡寿作薛公贊传 其事轮回祸福之说 甚为妖妄 中外惑信 或翻以文字 或译以谚语 传播惑众.

채수가 지은 「설공찬전」은 그 이야기가 모두 윤회회복지설로 매우 요망한 것입니다. 조야에서 현혹되어 믿으니, 어떤 자는 한자로 베끼거나 어떤 자는 한글로 번역하여 퍼뜨리면서 대중을 미혹시키나이다.

불교 수용과 요망한 허구의 내용이 유가의 개념과 크게 저촉된 경우이다.

퇴계가 일찍이 매월당 김시습의 인물평에 대해 질문하던 제자 허봉에게 준 답변은 냉정한 것이었다.

梅月別是一种异人 近於索隐行怪之徒 … 观其与柳襄阳书 金鰲新话之类 恐不可太以高见远识许之也.<sup>36)</sup> 매월은 별스런 일종의 이인이므로, 색은행괴(索隐行怪)하는 무리에 가깝다. … 그가 유양양(柳襄阳)에게 보낸 글이거나, 「금오신화」같은 것을 보면 높은 소견 및 앞을 내다보는 식견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듯싶네.

고봉 기대승이 선조 앞에 올린 상소는 「삼국지연의」를 예로 삼으면서 소설 읽기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顷日 张弼武引见时 传教内 张飞一声 走万军之语 未见正史 闻在三国志演义云 此书出来未久 小臣未见之 而或因朋辈间闻之 则甚多荒诞 … 臣後见其册 定是无赖者 哀集杂言 如成古谈 非但杂驳无益 甚害义理 … 非但此书 如楚汉衍义等书 如此类不一 无非害理之甚者也 诗文词华 尚且不关 况剪灯新话太平广记等书 皆足以误人心志者乎…

지난번 장필무를 불러 보셨을 적에 안에 전교하시기를 ‘장비 한 소리에 만군을 쫓았다.’는 말은 정사(正史)에선 본 일이 없고, 「삼국지연의」에서 들었는데, 이 책은 나온 지 오래지 않아 소신이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혹 봉우들 사이에서 들은 바로는 황탄함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 신이 나중 가서 그 책을 보았는데 정말 무뢰매가 잡스런 말들을 거두어 모아 가지고 고담 형태를 이룬 것이나이다. 단지 잠박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심히 의리를 해하는 것입니다. … 한갓 이 책만 아니라 「초한연의」 등 책과 같이 이같은 종류가 한 가지 만이 아니니, 도리를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시문이나 사화(詞華)도 오히려 이와 관계있지 않거늘, 하물며 「전등신화」, 『태평광기』 등의 책은 하나같이 사람의 심지를 그르치기에 충분한 것들이나이다.

이밖에도 「삼국지연의」에 관련한 조선조 문사들의 품평은 한결같이 냉소와 비난이 어린 것이었다.<sup>37)</sup>

36) 이황, 「답허미숙문목(答许美叔问目)」, 『퇴계집』 2, 한국문집총간 30, 1989.

37) 이를테면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三国衍义 … 印出广布 家户诵读 试场之中 前後相续 不知愧耻 亦可以观世变矣.”

또, 택당 이식은 『택당선생별집』 15 잡저에서, “如陈寿三国志 马班之亚也 而为演义所掩 人不复观 今历代各有演义 至於皇朝 开国盛典 亦用诞说敷衍 宜自国家痛禁之 如秦代之焚书可也”

이 밖에 “世传 作三国演义者 病暗而死去 诚不无此理 其语诸葛以怪神者 亦足受此罪矣. 『소재집』 권12.

이를 의미상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으니, 하나는 그것이 '반사실적(反史實的)' 이유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반유교적(反儒敎的)'인 이유에 둔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반역사적·반윤리적이란 말로 대신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선 '반역사적'이라 함은 이를테면 사마천의 『사기』거나 반고의 『한서』, 범엽의 『후한서』, 진수의 『삼국지』로 표상되는 중국의 역사적 기록은 경전 다음가는 금과옥조의 글인데, 명대 나관중이 썼으리라는 「삼국지연의」를 위시하여 모든 연의소설(오늘날의 역사소설에 해당함 - 필자주)들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이요, 둘째로 '반윤리적'이라 함은 봉건주의 시대의 정경대원이자 절대 규범이 되는 유가 정신을 무시하는 내용이 비일비재하다는 데에 문제를 두고 있다.

그런데, 반역사적이며 반윤리적인 내용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허구 한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통 유학자의 눈으로 볼 때에 소설은 한갓 거짓말과 날조의 부질없는 산물일 따름이었다. 허구는 다름 아닌 거짓과 날조란 말과 동격의 의미로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의 이론을 가르치고 배우는 오늘날의 가치 기준에서 보면 정말로 정체적이고 반문화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 안에서는 그러한 주장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요, 충분한 명분을 지닐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면, 전통 유학자들의 이렇듯 확고한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원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가 대성인 공자의 이른바,

◇ 子不语怪力乱神 (述而, 20)

공자께서는 괴이한 것과 사나운 완력, 미혹한 일과 귀신에 관련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 季路问 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问死 曰 不知生 焉知死. (先进, 11)

계로가 귀신 섬김에 대해 물었다. 공자 말씀하기를, 산 사람도 능히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리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 가라사대 아직 삶도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죽음을 알리오?

등의 가르침에서 그 가능성의 단서를 찾을 만하다.

춘추전국시대에 다양한 사상적 자유의 한마당이었던 제자백가가 성행하였지만, 기나긴 역사에 걸쳐서 이러한 사상의 확대를 지양하는 대신에, 한 가지 사유 체계로의 집약을 선택하였다. 곧, 공맹이 주창한 유가의 가르침 이외의 공부는 모두 이단으로 간주하였던 중국의 학문적인 전통으로 말미암아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 이외의 낭만적이고 상상적인 세계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가인 공자는 절대로 괴상하고 사납고 문란하고,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으므로, 그들 유학자들이 쓴 책에는 신화 같은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더욱이 유교의 세력이 가장 컸던 한대(汉代)에 허다한 옛날의 신화나 전설이 유학자들에 의해 말살되고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소설은 일찍 발달되지 못했던 것이다.<sup>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춘추전국시절에 보였던 사고의 다양화는 위진남북조의 지괴담을 초석으로 6세기 당나라 무렵에 다시 그 면모를 과시한다. 어느새 진실(faith)과 사실(truth) 만을 추구하는 유가 개념에서 벗어나, 허구를 기반으로 삼은 소설의 출현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통상 한국고전소설의 기원을 15세기 「금오신화」로 보는 것이

38) 호운익, 『중국문학사』, 장기근 역, 1974, p.129.

아직까지의 일반론이라고 한다면, 무릇 9세기 정도의 차이가 난다.

15세기에 「금오신화」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이후 한국 소설의 지속적인 발판 구실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 율분해소의 차원에 그쳐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였다. 이후 이 작품은 이 땅에서 일실되다시피 하였고, 엉뚱하게도 20세기 초 일본에서 되찾을 수 있었을 정도였다. 정체성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다. 그리하여 임병양란 이전까지 고작 「월생몽유록」·「대관재기몽」·「수성지」 등, 가물에 콩 나듯 겨우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니, 정녕 전쟁 이후에나 제대로의 궤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식인 사회에서 용납을 받게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분위기 안에서 겨우 유지될 수 있을 따름이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정통의 아문학(雅文学), 혹은 순정문학(醇正文学)의 대열에 끼지는 못하였고, 속문학(俗文学)의 차원에서 별도의 진행을 보였던 것이지만,<sup>39)</sup> 적어도 심각한 논란의 대상은 아니었다.

한국이 유가의 가르침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차라리 경직성마저 띠었던 반면, 중국은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 있게 다루었던 점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의 소설 인식에 관한 차이를 엿볼 길 있다.

### 3. 가전문학에 대한 인식

앞에서, 전기소설은 외적 영향에서 내적 독창으로 가는 전이의 과정이 있음을 밝혔거니와, 전기소설과 더불어 허구적 산문의 또 한 가지 형태였던 가전(假传)만은 전 과정을 통해 별반 이러한 전이를 겪지 않았다.

가전이야말로 과거의 어느 다른 장르보다도 특히 중국과 상호 긴밀한 맥락 속에서 공유해 오던 장르였으니, 이는 오히려 전기소설에서보다 더 철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에 한중가전의 개별 단위 및 전체 단위로서의 비교문학적 검토가 큰 비중으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 장르에 대한 인식은 앞서 전기소설과는 달리 그 발생에서 소멸까지 아주 조용한 흐름을 보였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와는 달리, 오히려 이 장르 발생 초창기의 중국에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아주 요란하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저 중국의 이른바 중당기(中唐期)에 첫 남상(濫觴)을 보았던 이래 동방가전사상 꺼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은 불후의 명품(名品) 「모영전(毛穎傳)」 가전사에 있어 최대의 반향(反响)과 영향을 불러일으켰던 한유(韓愈; 768~824)의 이 작품에 대해 다시 어떠한 수식어로써 이것이 지닌 의미를 곡진히 할 수 있을는지 망연한 바 없지 않다.

이렇듯 뒷시대 한·중의 문학사에 여러 백년 두고 지울 수 없는 의미로 남았을 뿐이었지만, 아 이러니하게도 이것의 초조(初肇) 개창(開創)의 무렵에는 벌써 적지 않은 요단(鬧端)을 안고 시작하였던 것이란 논의가 있다.

사실 한유가 일개 사물을 사람인양 살려다가 이런저런 사실을 끌어낸 것과 같은 시도는 중국 산문학 사상 미증유의 첫 과격적인 기획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리고 과연 한유와는 동시대 문인이었던 장적(張籍)이 한유의 어떤 형태 작문에 대한 부정론적인 성조(聲調)가 진즉에 따라 있었음이

39) 명대의 평론가인 서사증의 『문체명변』에서는 전(傳)을 열전·가전·탁전·가전의 4종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엄청난 물량의 전기소설은 그 존재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던 양, 그 분류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채 도외시하였다. 이에 아문학과 속문학 구분의 잣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후대의 괘잡일(郭箴一)은 이러한 전기소설들을 별전(別傳)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고 있다.

다. 한유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였으니, 대개 장적의 한유 글 비판의 근거는 어떤 문장의 희필적 유오성(游娛性)으로 요약하여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듯싶었다.

그는 한유의 작문 행위가 군자의 수신(修身)과 덕성 함양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노름과 다를 바 없어 실없는 이야기 따위에 불과하니 그만둘 것을 충언(忠言)하였던 것이다.

比見執事多尚駁雜無實之說 使人陳於前以為歡 此有以累於令德……且執事言論文章不謬於古人 今所為或有不出於世之守常者 竊未為得也 願執事絕博塞之好 棄無實之談 弘廣以接天下士 嗣孟軻揚雄之作 辨揚墨老釋之說 使聖人之道 復見於唐 豈不尚哉<sup>40)</sup>

요사이 집사(執事)(한유를 일컬음 ; 필자주)께서 상당히 잡박하고 무실(無實)한 설(說)을 높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앞에 늘어세우고 즐겁게 해주는 것을 보는데, 이는 훌륭한 덕에 누(累)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의 언론과 문장은 옛사람에 어긋나지 않는데, 지금 하시는 바는 세상의 상도(常道)를 지키는 이보다 혹 더 나을 게 없어 어딘지 마땅치 못하는바 되지요. 바라건대 집사께서는 놀이 취미를 끊고 실없는 이야기를 버려, 널리 천하의 선비들과 접하여 맹가(孟軻)·양웅(揚雄)의 작품들을 읽고, 양주(楊朱)·묵직(墨翟)·노자(老子)·석가(釋迦)의 설을 가려내어 성인의 도가 다시금 당(唐)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어찌 가륙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친분 관계<sup>41)</sup>에서 볼 때 이 글의 취지가 비난이 아닌, 충정어린 권고를 함에 있었던 것이지만, 일단은 장적이 한유의 어떠한 문장 태도에 대해 실없는 담설(談說) 정도, 다시 말해 이단적인 창작행위 쪽으로 간주했음을 명백히 시사하고 있다.

사실은 이단을 끊고 유가(儒家)의 문장에 빛을 내보라는 이 충고는 노(老)·불(佛) 이단에 대해 누구보다도 배타적이기로 유명했던 한유<sup>42)</sup>에게는 별 의미 없는 설득으로 보였을 터이다.

그리하여 남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 있을망정 자신은 어디까지나 성인지도(聖人之道)의 기본 궤적(軌迹)을 따르고자 힘쓰는 일면 노(老)·석(釋) 같은 이단을 배척하는 자기의 굳건한 의지를 재삼 못 박고 있으며, 나아가 무실(無實)·잡박(雜駁)한 설과 박새(博塞)의 충고에 대하여도 승교(承敎)할 수 없음을 차분히 응수하고 있다.<sup>43)</sup> 자신의 하는 일이 유가의 도(道)와는 전혀 아무런 상충 없어 무방한 것임을 스스로 자허(自許)하고 있다.

40) 『한창려집(韓昌黎集)』 제2책 제14권의 「답장적서(答張籍書)」, 제목 아래 주기(注記)의 원용인.

41) 『한창려집(韓昌黎集)』에는 장적(張籍)과의 교계(交契)가 도타운 것이었음을 알려 주는 상당한 작품들이 보인다. 제1책 제5권 「조장적(調張籍)」·「병중증장십팔(病中贈張十八)」, 제7권의 「만기장십팔조교(晩寄張十八助敎)」·「여장십팔동효완보병일일복일석(與張十八同效阮步兵一日復一夕)」과, 제2책 제9권의 「영설증장적(咏雪贈張籍)」, 제10권의 「하장십팔비서득배사공마(賀張十八秘書得裴司空馬)」·「우중기장박사적후주부희(雨中寄張博士籍侯主簿喜)」, 제14권의 「답장적서(答張籍書)」·「중답장적서(重答張籍書)」, 제16권의 「대장적여이절동서(代張籍與李浙東書)」 등이 그것이다.

42) 그의 잘 알려진 「논불골표(論佛骨表)」(제5책 제39권 表狀)가 그 대표적 일례라 할 것이다. 「답장적서(答張籍書)」 가운데도 ‘仆自得聖人之道而誦之 排前二家 有年矣(저는 성인의 도를 배워서 외고, 앞에 든 二家(釋·老 ; 필자주)를 배격해온 지 여러 해입니다.) 한유의 제자 겸 사위로서 『한창려집(韓昌黎集)』을 펴내기도 했던 이한(李漢)의 「창려문집서(昌黎文集序)」에 역시 한유의 ‘酷排釋氏’를 강조했다.

43) 吾子又汎吾與人人爲無實駁雜之說 此吾所以爲戲耳 比之酒色 不有閑乎 吾子汎之 似同浴而汎裸裎也 若商論不能下氣 或以有之 當更思而悔之耳 博塞之汎敢不承敎…… .

그대는 또한 내가 사람들에게 실없고 잡박한 얘기나 제공한다고 나무랐는데, 이것은 나의 희사(戲事)일 뿐이니, 주색과 비해서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대가 이걸 나무람은 마치 함께 목욕하고 나서 알몸임을 꼬집는 거나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논의함에 심기를 가라앉히지 못한다 하셨음에 혹 그 같은 일이 있다면 마땅히 다시 생각해서 반성할 따름이겠지만, 놀이에 대한 충고만큼 감히 그 훈교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들 사이 왕래된 두 번째 서신의 주지(主旨)는, 장적 쪽에서 이단자들을 깨우쳐 억제하게끔 하는 명저(名著)를 내보라는 권유에 대해, 한유는 자신의 능력 바깥일로 돌려 사양을 보이는 내용이다.

그러한 속에서도 역시 잡박과 무실에 대한 처음 생각을 접어 두지는 않고 있으니, 장적의 다음 언급에서 역력히 나타나 보이는 바이다.

……君子发言举足 不远於理 未尝闻以驳杂无实之说为戏也……或以为中不失正 将以苟悦於众 足戏人也 是玩人也 非示人以义之道也.

……군자의 발언과 거동은 이(理)에서 멀지 않습니다. 일찍이 박잡 무실(驳杂无实)한 말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혹 중정(中正)을 잃은 그것으로 장차 대중에게 구차한 환영을 입는다면 이는 희인(戏人)이요 완인(玩人)이니, 사람들에게 올바른 도를 제시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유의 제2답신인 「중답장적서(重答张籍书)」 가운데서는 오히려 장적의 무실 · 잡박의 비판에 앞 시대의 전고(典故)를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논박 대응하는 구절이 있어 주목을 끈다.<sup>44)</sup>

고문운동가(古文运动家)로서 문장이 도를 밝히는 도구라는 신념이 강했던 나머지 소위 ‘문자관도지기(文者贯道之器)’의 원천<sup>45)</sup>이자 송대에 이른바 ‘문이재도(文以载道)’의 원조격<sup>46)</sup>인 한유에게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은 그의 문학관의 색다른 일면을 엿보게도 하거니와,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고 논란거리 되었던 그 ‘무실잡가지설(无实驳杂之说)’이란 구체적으로 한유의 어떠한 창작 근거를 놓고서 그리 일컬었음인가. 크게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나, 두 사람 사이 주고 받은 서한 글 가운데는 단 한차례도 어떻게 할 구체적인 작품명이 나타나지 않아 더욱 묘연키만 하다.

그 같은 중에 다만, 『한창려집(韩昌黎集)』 제4책 권36 잡문에 들어있는 「모영전」 제하의 주기(注记)에는 이것의 영문을 알려주는 모처럼의 낭보(朗报)가 있었다.

公作此传当时 有非之者 张籍书所谓戏谑之言 谓亦指此.

창려공(昌黎公) 한유가 이 「모영전」을 지었을 당시 이를 비난하는 이가 있었으니, 장적의 글에 이른바 ‘희학의 말’이라 함은 바로 이 작품을 지적한 뜻이었다.

이 같은 정보 사실의 신빙성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sup>47)</sup> 그 이후에는 장적에

44) ……驳杂之讥 前书尽之 吾子复之 昔者夫子犹有所戏 诗不云乎 善戏谑兮 不为虐兮 记曰 张而不弛 文武不能也 恶害於道哉 吾子其未之思乎.

잡박하다는 비평에 대하여는 앞의 편지에서 다 말씀드렸으니 그대께서 되읽어 보시지요. 옛날 공자께서도 오히려 농담하신 바가 있고, 『시경』에서도 ‘농담과 해학을 잘하되 지나침이 없네’라 하지 않던가요. 『예기』에도 가로되, ‘팽팽히 당기기만 하고 느슨히 풀지 않는 것은 문왕(文王) · 무왕(武王)도 하지 않으셨다’ 하였으니, 어찌 도(道)에 해(害)가 되리이까? 그대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셨나보군요.

45) ‘文者 贯道之器’는 한유의 제자이자 사위인 이한(李汉)의 전개 「창려문집서(昌黎文集序)」 맨 허두의 글이다.

46) ‘그(韩愈 ; 필자주)는 또 남을 가르칠 때에 도(道)와 문(文)의 이자(二者)를 병중(并重)하였으니 송대(宋代)의 제출(提出)된 문이재도(文以载道)의 구호(口号)는 실로 이에서 출발(出发)되었던 것이다’(이가원, 『중국문학사조사(中国文学思潮史)』, 일조각, 1972, p.134.)

47) 한유의 문집은 본래 그의 사위인 이한(李汉)이 펴냈다고 했거니와, 여기에 주(注)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

의해 '희학지언(戏謔之言)'이란 말로써 비난의 표적이 되어왔던 작품이 다름 아닌 「모영전」이라고 한 이 메시지 그대로 통념되어 왔던 의례적인 사실도 둔과하지 못할 것이었다. 이것은 한유의 「답장적서(答张籍书)」 가운데 '……为无实杂驳之说'이라고 한 본문 내용 바로 아래 주기(注记)에,

驳杂之说 世多指毛颖传 盖因摭言 有云韩公著毛颖传 好驳塞之戏 张水以书勤之耳.

잡박지설에 대해 세상에서 대개 「모영전」을 지적하는데, 이는 대개 들리는 말에 의한 것이다. 한공(韩公)이 「모영전」을 짓고 잡기놀이를 좋아함에 장수부(张籍, 필자주)가 편지로서 권책(劝责)했음이라.

한 것으로 저간의 사정을 알 만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사실무근만은 아닐 수도 있는 단서를 찾아보지 못할 바 아니다. 즉 앞의 「모영전」의 각주 인용부분에서 장적의 글에 이른바 '희학지언(戏謔之言)'이라 함은 바로 「모영전」을 지적한 뜻이라 한데 연결지어,

……旧史亦从而为之言曰 讥戏不近人情 是岂有识者哉

『구사(旧史)』에서도 장적(张籍)을 따라 말하되, 기롱(讥弄)인지라 인정에 가깝지 못하니 이 어찌 양식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라 했다는 사실이 그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유와 같은 시대 나란히 산문학의 거장으로 이름 높았던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여양회지서(与杨海之书)」<sup>48)</sup> 가운데의 다음과 같은 글,

足下所持韩生毛颖传来 仆甚奇 其书恐世人非之 今作数百言 知前圣不必罪侂也.

축하(杨海之; 필자주)께서 한생(韩生)의 「모영전」을 지녀 오셨을 때 저는 매우 그 글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까 걱정됩니다. 지금 수백 언을 지음으로써 앞 시대의 성인(圣人)도 이것을 희작(戏作)으로 허물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렸습니다.

을 통해 볼 때 또한 짐작 가는 바가 없지 않은 것이다. 곧 유종원의 안목으로도 「모영전」은 당시 개념에서는 다소 모험적인 글로 보였던 그 사실 자체로, 역시 장적이 뒤섞여 순정(醇正)치 못한 단 뜻의 '잡박지설(杂驳之说)'로 보았던 그 바로 그 문제작일 수 있는 개연성은 스스로 상송된다는 뜻이다.

장적에 반해서, 유종원은 이 「모영전」 한 편에 대해 사뭇 그 존재적 의의를 인정하고 적극 비호하는 방향에 섰고, 그 취지를 바로 「독한유소저모영전후제(读韩愈所著毛颖传後題)」<sup>49)</sup>라는 글로써 밝혔다. 위 인용문의 말미, 즉 앞 시대의 성인도 허물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자 지었다는 그 수백 언(言)이란 것도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모영전」 파동이 있던 이후에는 중국에서 이 형태에 대한 논란은 다시 일지 않았다. 얼마 후 사공도(司空图; 837~908)는 거울을 의인화한 「용성후전(容城侯传)」을 지었는데 더 이

은 목판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북송·남송의 때를 타서 완성하였을 테요, 이 시기에 사부총서간본(四部丛书刊本)의 『주문송교창려선생집(朱文公校昌黎先生集)』이며, 사고전서진본(四库全书珍本) 4집의 『오백가주창려문집(五百家注昌黎文集)』 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 바로 위에 보는 『한창려집(韩昌黎集)』의 주기는 후자 오백가주본(五百家注本)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 이는 한유의 다음 시대인 송 학자의 수적(手迹)에 의한 것이겠지만, 그런 만큼 이 같은 정보 사실을 어느 정도 신빙해야 할는지에 대한 일말의 부담은 남는다.

48) 『유하동전집(柳河东全集)』 제33권 '书'의 소재.

49) 『유하동전집(柳河东全集)』 제21권 '제서(題序)'의 소재.



상 아무런 말이 없었고, 그 다음 송대에는 소동파(1036~1101)가 무려 6편의 같은 형태 작품들을 썼다. 그러면서 이 문학 형태는 반론이나 잡음은 고사하고, 확고한 발판을 내리는 단계에 들어섰다. 소동파 계열의 문장가로서 진관(秦观; 1049~1100)의 「청화선생전」, 장퇴(张耒; 1250경)의 「죽부인전」 등 출현과 더불어 중국 가전은 점차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음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명대 서사증의 『문체명변』이 세운 전(传) 4체 가운데 한 위상을 차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12세기에 처음 이 문학 형태가 나타났으니, 임춘(林椿; 1150경)의 「국순전」·「공방전」 및 이규보(李揆報; 1168~1241)의 「국선생전」·「청강사자현부전」 등이 그것이다. 이후 조선조가 다할 때까지, 나아가 현대에 이가원의 「화왕전」에 이르기까지 이 장르는 꾸준한 지속을 보여왔지만, 중간에 하등의 장르 시비 같은 것을 찾을 길 없다. 오히려 「모영전」을 일대 조종(祖宗)으로 알고 최고의 규범으로 삼았던 종종의 기록들만 볼 수 있을 따름으로,<sup>50)</sup> 엄연한 정통 문필의 한 가지 형태로서 꾸준히 인식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가전 장르와 소설 양식의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그것이 허구의 수법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허구 자체에 있음이 아니라, 그 허구가 자아내는 내용의 허황됨과 강륜(綱倫)의 문란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허구가 중심 수법으로 삼아 만들어지는 가전 장르와 옛소설은 똑같이 유가의 개념상 결코 수용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장적은 「모영전」을 두고서 ‘잡박 무실’하다 했고, 한국의 기대승도 「삼국지연의」를 일러 ‘잡박 무익’하다고 하여 두 장르에 유사한 비난이 가해졌음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 장르는 일정한 시금석 뒤에 양성적인 장르로서 순항을 거듭하였고, 다른 한 장르는 음성적인 장르로서 행로의 어려움을 거듭했어야만 했다.

다시 말해, 가전문학 쪽에서는 중국이 그 초기에 강한 반발 속에서 출발을 하였으나, 대개 송나라 소동파의 창작 이후에는 이것이 정통문학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었던 반면에, 한국은 발생의 초기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거부 없이 꾸준히 유지되었던 사실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서사증 『문체명변』의 이른바 ‘전’ 4자 분류 안에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가전의 내용이 성정을 문란케 할만한 문제성이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서, 소동파 및 그 계열 문인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가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설문학 쪽에서는 중국이 그 발생의 초기인 당대에서부터 유연한 탄력성을 나타내 보였던 반면에, 한국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에 대한 경직성을 면치 못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조차 전기소설은 마침내 정통문학의 궤도에까지는 오르지 못하였다. 서사증의 『문체명변』에도 전의 분류 안에서 제외되어 있고, 『문장변체』·『고문사유찬』·『문체론』 등 그 어느 책에서도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근대에 와서야 광잡일 같은 이가 별전(別傳)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소설들을 수용했던 것이다.<sup>51)</sup>

50) 예컨대, 고려 이규보가 그의 벗인 사관(史館) 이윤보가 계를 인격화 시킨 「무장공자전(无肠公子传)」에 대해, “한유가 지은 「모영전」·「하비후혁화전」에 견준다고 해도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것이 뒤질는지 잘 알 수 없다.”고 칭찬했다거나, 조선조에 남유용은 한유의 「모영전」의 뒤를 잇는다는 취지에서 「모영전보(毛穎全補)」를 지은 일 등, 「모영전」은 상당수 문사들의 귀감으로 자리 잡았다.

51) 그는 별전이 “關於一人一事的逸事奇聞” 하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이라고 하면서, 이를 신괴(神怪)·연애(戀愛)·호협(豪俠)의 3가지로 세별(細別)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당대 소설의 정화[唐人小說의精華]라 하였다. (『중국소설사』 台灣商務印書館, pp.85~86)

한국의 경우, 두 장르에 똑같이 중국으로부터 일정 시간의 검증 과정을 거쳐 들어왔음에도, 가전 장르에 대해서는 전면 수용의 태도를, 소설 장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보다 훨씬 불용의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조선시대는 유례없이 성리학 본연의 훈교에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수용의 태도를 취했기에, 성정을 흠뜨리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등 분방의 허구 장르인 소설을 받아들이는 자세 면에서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본다.

이는 비단 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일반적인 측면에서조차 그 대강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하다. 예컨대, 조선 초기의 개가금법이나 적서차별 같은 것은 유교 종주국인 중국에서 강조했던 법은 아니었다. 복제문제 같은 것도 한국에서 훨씬 심각하게 시행하였다. 송대 주자로 완성되었다는 성리학도 한국의 퇴계나 율곡 성리학에서 심화의 양상을 나타냈으니, 이 모두 우연한 현상만은 아닌 듯싶다.

옛소설 문학이 갖는 일탈의 성격에 대한 거부적 반응이 중국에서보다 한국 편에서 사뭇 강고하게 작용하였던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전자매체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권 현 숙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 I. 들어가는 글

지식 정보 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는 정보 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며, 그러한 변화는 교육의 패러다임에도 필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 활동은 사회라는 보다 큰 범주 안에서 수행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이 급속히 확대되고, 인터넷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등 지식정보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가치 있는 인간의 여러 능력과 품성 계발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보 활용 능력이 정치·경제·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에 따라 한국의 교육은 급속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현대 지식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ICT를 도구로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ICT 활용 교육의 잠재력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연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둘째로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로는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 흥미를 향상시켜 성취 수준을 높이고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로는 교육의 장을 무한히 확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이 세계화·정보화되어 가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방향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체제로 전환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이해는 언어능력의 신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접목한 실제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경향은 이러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이 표현되는 문화적인 요소를 습득해야 한다. 문화적인 내용들은 전통적인 관습이나 예절·의식주 생활에서부터 역사·환경·정서 및 현대사회에 이르는 모든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강의에서는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과 더불어 어떻게 한국어 이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사용될 전자매체는 오프라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전자교과서로서 다솜아이티에스에서 개발한 D.Book Maker라는 전자책 툴을 사용하여 직접 제작한 것이다. 일반 교과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다량의 사진자료와 동영상자료, 음악자료, 악보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학습자의 흥미를 높여주고 학습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II. 한국의 전통 문화

### 1. 한국의 전통적인 민간 신앙

#### (1) 가정 신앙

가정 신앙이란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지켜준다고 믿어지는 신들에 대한 신앙을 뜻한다. 이러한 가정 신앙의 대상으로는 성주, 조상, 조왕, 삼신, 터주, 측신, 문신 등을 들 수 있고, 가정 신앙의 종류로는 푸닥거리, 살풀이, 고사, 안택굿 등이 있다.

##### 가. 가정 신앙의 대상

**성주(성조:成造)** 성주는 가정에 복을 주고 지켜주는 집의 신이다. 따라서 성주신은 모든 집마다 모셔져 있고, 그 신은 집주인을 지켜준다. 성주신은 주로 쌀을 담은 단지에 모시며, 모시는 장소는 주로 대들보나 대청마루이다. 특히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할 때에는 성주를 제일 먼저 위하였다.

**조상(조령:祖靈)** 집안의 번창을 위해 조상신을 모시는 것이다. 집안의 번창은 곧 부(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상신은 곡물을 담은 단지에 모셨다. 그 집의 장남에 의해 4대조가 모셔지는 경우가 흔하다.

**조왕** 조왕은 부엌의 아궁이와 부뚜막을 맡고 있는 신으로서 불의 신이다. 아궁이는 불을 때어 음식을 만들고, 방을 따뜻하게 하는 등 인간 생활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 부엌은 화재가 발생하기가 쉽다는 점 때문에 조왕신을 믿게 되었다.

**삼신** 삼신은 산신(産神)·삼신할머니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아기를 낳고 기르는데 관계가 있는 여신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아기를 가진 어머니나 갓난아기가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삼신을 믿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터주** 터주신은 터주대감이라고도 하며 집터를 다스리는 땅의 신이다. 터주신을 잘 모시지 못하면 터주신이 성을 내어 재앙을 입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음식을 장만하고 고사를 지내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었다. 민속놀이 중 지신밧기나 집을 짓기 전 고사를 지내는 것도 모두 터주신을 달래기 위한 방법이다.

**문신(門神)** 대문을 지키는 신으로 그 집에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구실을 하였다. 대문간 윗벽에 흰 형걸 또는 삼베를 매달거나, 무장의 무서운 얼굴을 그려 붙이기도 하고, 글을 써 놓기도 한다. 입춘이 되면 대문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고 써 붙이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

**측신** 변소를 담당하는 신이다. 옛날에는 집으로부터 변소는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밤에 변소를 가게 되면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또 변소의 구조상 위험이 따르기도 했는데 측신은 이러한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다.

##### 나. 가정 신앙의 종류

**푸닥거리**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경우에 무너 한 사람만을 불러서 간단히 하는 행사이다.

**살풀이** 가정의 불화나 재수, 운이 없을 경우에 식구나 집터에 살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녀를 불러 행하는 것이다. 살이 끼인 사람의 생일날을 잡아서 행하는데, 형태나 규모는 거의 푸닥거리와 비슷하다.

**고사** 고사란 1년에 한두 번 집에 있는 여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가정 신앙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고사는 시월에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판에 떡을 담아서 안방·건넌방·마루·사랑방·부엌·마구간·변소·광·마당·우물·장독대 등 그야말로 집의 구석구석까지 놓는다. 그냥 놓아두었다가 이웃과 나누어 먹기는 하지만, 보통은 주부가 떡을 놓아둔 곳마다 가서 손을 비비며 소원을 빈다.

**안택굿** 가족들이 사는 집안에 부정하고 잡스러운 잡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사이다. 특히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울타리 안을 성과 같이 튼튼하게 지키고 집안의 각 신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가족에게 축복이 있길 기원하였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하면 안택굿을 하였다.

## (2) 마을 신앙

마을 신앙은 국가 성립 초기 단계의 제천 행사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으로 마을의 협동과 단합을 위하여 행해진 일종의 축제이다. 지역에 따라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그 형태와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풍요로운 수확, 마을의 태평, 가축의 번식 등을 기원하고 있다.

또, 마을 신앙은 주민 모두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신앙 형태보다도 마을의 단합을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형태로는 유교식 제사로 행하는 동제와 무당의 굿으로 하는 도당굿(또는 별신굿)이 있다.

### 가. 솟대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얹힌 마을 신앙의 대상물을 일컫는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동제를 모실 때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여 마을 입구에 세운다.

솟대는 마을 입구에 홀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장승, 선돌, 탑(돌무더기), 신목 등과 함께 세워진다. 솟대 위의 새는 대개 오리이다.

### 나. 장승

장승은 마을 어귀에 세워져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 질병, 재앙 등을 물리치고 마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대개 솟대와 더불어 세웠는데 몸 기둥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글을 새겼다. 장승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지만 돌로 만들기도 한다. 돌장승의 명칭은 지방에 따라 영남과 호남에서는 '벽수', 제주도에서는 '돌하르방'이라고 한다.

### 다. 서낭당

서낭당은 토지와 마을을 지켜주는 서낭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이다. 서낭당은 고갯마루 큰 길 옆 또는 마을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그 형태는 돌무더기만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당집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혹은 마을에서 섬기는 신목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오색 천을 매단 새끼줄을 감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다니면서 돌이나 나무 또는 오색의 천 등을 올려놓고 개인의 소원이나 마을의 평안을 빌었다.

이러한 서낭당은 마을과 마을, 그리고 마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 표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지방에 따라서 성황당, 선황당, 천황당, 서황당이라고도 한다.

### (3) 무속 신앙

무속은 민간 신앙이 무당을 통하여 표현되는 신앙 형태이다. 국가 성립 초기 단계에 행해지던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국가적인 행사도 무속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폭넓게 행해졌으나, 유교가 지배하던 조선 시대에는 사람의 마음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 하여 불교와 함께 탄압을 받았다.

#### 가. 굿

무당을 통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인간의 운명을 조절해 달라고 비는 제사의식이다. 굿의 종류에는 무당이 되기 위한 내림굿,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굿, 집안의 평안을 위한 안택굿, 죽은 사람의 넋을 하늘로 보내기 위한 진오귀 굿, 마을공동체의 평안을 비는 마을 굿 등 그 목적과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 나. 굿에 사용되는 도구

무당은 무당 옷을 입고 굿을 하는데, 무당이 굿을 할 때는 장구, 징, 피리, 해금 등의 악기와 칼, 작두 그리고 점치는 도구, 방울, 부채, 종이돈, 깃발, 무당이 섬기는 신의 그림 등 각종 도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무당은 무당 옷을 입고, 길게는 3~4일 동안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 (4) 주술과 점복

#### 가. 주술(咒術)

주술이란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의 하나이다. 기와에 귀신 얼굴을 새기는 것,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 마을 입구에 장승이나 솟대를 세우는 것 등이 주술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귀신과 재앙을 쫓거나 복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

#### 나. 점복(占卜)

점복이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주술 행위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주로 짐승의 뼈, 나무, 쌀, 돈, 방울 등을 이용하여 점을 쳤다. 그밖에도 사람의 얼굴이나 손금을 보고 그 사람의 일생을 판단하기도 하였다. 또 꿈을 해석하여 미래를 점치기도 하였다.

또 일년 동안의 재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새해에 토정 비결을 보기도 하였으며, 이사를 가거나 결혼하는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점을 많이 쳤다.

### (5) 풍수지리

풍수지리는 산이나 땅의 모양과 기운이 사람의 삶이나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상이다. 그리하여 좋은 땅을 택하여 나라를 세우거나 집을 지으면 나라가 발전하고 집안과 개인이 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도읍과 마을, 집의 터잡기, 길내기 뿐만 아니라 묘자리를 선택하는데도 풍수지리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러한 풍수지리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양지바르고 홍수와 가뭄에도 피해가 덜한 곳을 찾기 시작한데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라 말 도선국사에 의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풍수지리 사상은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널리 퍼지게 되어, 우리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에 정할 때 풍수지리 사상에 크게 의존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원래 풍수지리는 도읍이나 살아있는 사람이 살 집터를 잡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과 연관되어 조상의 묘자리를 잡는 묘지 풍수로 바뀌어 갔다.

오늘날도 풍수라고 하면 묘자리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른 폐단도 대단히 크다. 그러나 풍수 지리는 살아있는 자의 복을 위하여 죽은 자의 땅을 좋은 곳에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터를 잡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국인의 일생과 가정 의례

### (1) 출생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는 여자는 결혼하면 아들을 많이 낳아서 남편의 가계를 계승하게 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자식은 마음대로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아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하여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자식은 삼신 할머니가 낳게 해주신다고 생각했다. 삼신 할머니는 출산을 담당하는 신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낳고, 기르는 데에 영향을 주는 여신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뱃속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으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단정히 한다.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진통이 있게 되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방을 택하여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은 뒤에는 바로 대문에다 금줄을 매었는데, 아들인 경우에는 고추와 숯을 달고, 딸인 경우에는 숯과 흰 종이를 매달았다.

금줄은 더럽고 나쁜 잡귀의 출입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금줄을 친 집에는 함부로 가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 이 금줄은 대개 21일 동안 쳐 놓았다. 아기를 낳은 뒤 아기 엄마에게는 삼신상에 놓았던 쌀과 미역으로 밥과 미역국을 끓여 먹였다.

### (2) 백일과 돌

**백일** 아기가 태어나서 백 일째 되는 날을 백일이라 하여 간단한 잔치를 벌인다. 백일은 아기가 어려운 고비를 넘은 것과 아기 엄마가 건강을 다시 찾은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백일에는 백설기 또는 수수팥떡을 찌서 백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아기가 잘 자란다고 해서 이웃에게 떡을 나누어준다. 떡을 받은 집에서는 실타래나 쌀 또는 돈을 그릇에 담아준다. 실타래는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뜻이 있고, 쌀과 돈은 부자가 되라는 뜻이 있다.

**돌** 태어나서 만 1년이 되는 날을 첫돌이라고 한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태어난 지 1년 내에 어린 아기가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돌잔치는 건강함을 축하하는 뜻이 있다.

돌에는 백일보다 더 큰 잔치를 벌인다. 돌날에는 아기에게 돌상을 차려서 축하한다. 돌상에는 떡, 과일 등을 차려 놓고, 특히 책, 종이, 연필, 돈, 바늘, 실 등을 놓아 아기가 무엇을 먼저 집는가를 보고 장래를 점치기도 하였다.

돌날에는, 남자 아기의 경우에는 전복을 입히고 복건을 씌워서 도령의 복장을 해 주고, 여자 아기의 경우에는 치마와 색동저고리로 곱게 단장해 주었다.

### (3) 관례와 계례

관례와 계례는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교적 전통 사회에서의 성년식이다. 오늘날에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간단한 축하를 해준다.

**관례** 관례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남자아이에게 상투를 틀고 갓을 씌우는 성인식으로 이것이 끝나면 성인으로 대우하였다.

관례는 조선 시대의 선비 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말에 단발령이 내려지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광복 후에는 거의 없어졌다.

**들돌 들기** 평민층에서는 복잡하고 형식적인 관례보다는 ‘들돌 들기’ 같은 것으로 실질적인 성년식을 하였다. 이것은 미리 정해 놓은 돌을 들어올리게 하여, 어른으로서의 노동력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계례** 계례는 15세가 넘거나, 또는 혼례를 앞둔 여자에게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아 쪽을 찌어 주는 성년식이었다.

### (4) 혼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를 이루는 것이 가족이다. 가족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우리 조상들은 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음과 양이 합해져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대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혼례의 시기** 조선시대에는 남자는 12세, 여자는 16세 쯤이 되면 혼인을 하였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 중에는 30세가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는 늙은 총각도 있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일곱 살이 되면 한 자리에 앉지 못한다.”하여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중매쟁이가 중매를 서서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인 절차** 혼인을 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보낸다. 사주란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시간을 뜻하는데, 신부집에서는 사주를 받으면 혼인 날짜를 정하고, 궁합을 보아서 신랑과 신부의 앞날을 점치기도 하였다.

사주도 좋고 궁합이 맞으면 혼인할 것을 결정하고 혼인 날짜를 잡는다. 신랑집에서는 혼인 2, 3일 전에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데, 그 예물을 함 속에 넣어서 보내므로 “함을 보낸다”고 한다. 예물은 금반지나 신부의 옷감 등으로 이루어졌다. 함진아비가 함을 신부집에 전하는데, 마땅히 전해야 할 귀한 예물인데도 쉽게 넘겨주려 하지 않고 함 값을 내라 하면서 장난을 하였다. 함이 전해지고 나면 함진아비 일행은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

**혼례 의식**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그 곳에서 예식을 올렸다. 마당 가운데에 상을 놓



고, 상위에 푸른색과 붉은색의 보자기에 짠 나무로 만든 기러기나 암수 두 마리의 닭, 푸른색 실과 붉은 색 실, 소나무 가지와 대나무 가지를 꽂은 꽃병, 백미 두 그릇, 밤과 대추 그리고 계절에 맞는 과일을 올리고 촛불을 켜 놓는다.

청색은 신부 쪽, 홍색은 신랑 쪽의 색이다. 기러기나 닭은 부부가 서로 금슬 좋게 지내라는 뜻이며, 소나무와 대나무는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고, 밤과 대추는 아들을 많이 낳고 오래 살라는 뜻이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술을 세 번 나누어 마시게 되면서 혼례는 이루어진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며 얼굴에는 연지와 끈지를 찍어서 예쁘게 꾸몄다.

혼인식을 올리고 난 뒤 첫날밤은 신부집에서 자게 된다. 첫날밤에는 간단하게 술과 과일이 준비된다. 신랑과 신부는 축하의 술을 나누면서,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자식을 잘 기를 것을 다짐하였다.

**신행과 폐백** 신부집에서 2, 3일 지낸 뒤, 신랑은 신부를 가마에 태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를 신행이라 하고 “시집간다”고 한다. 신부는 시댁으로 가서는 친정어머니가 싸준 대추, 밤, 마른 안주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와 시댁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데 이것을 폐백이라고 한다. 이 폐백은 오늘날 신식 결혼식에서도 반드시 행해지고 있다.

신부를 맞은 신랑집에서는 여러 친척과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 (5) 회갑 · 진갑 · 칠순

**회갑** 만 60세가 되는 것을 회갑(回甲) 또는 환갑(還甲)이라 한다. 회갑 날에는 큰상을 차려 놓고, 회갑을 맞은 어른과 그 배우자가 함께 앉아 상을 받는다. 상을 높이 잘 차릴수록 효성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상을 차리고 회갑을 맞이한 부부가 앉으면, 아들딸들이 차례대로 절을 하고 술을 따라 올린다. 그리고 손아래 친척도 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친지들은 서로 술을 권하며 즐겁게 보낸다.

**진갑과 칠순** 만 61세가 되면 진갑(進甲)이라 하고, 회갑이 지나 덩으로 얻은 나이라 해서 작은 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만 70세가 되면 ‘고희(古稀)’ 또는 ‘칠순’이라 해서, 오래 산 것을 축하하는 큰 잔치를 베푼다.

#### (6) 상례

**임종**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환자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요와 이불을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서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눕힌다. 유언을 하면 받아쓰거나 녹음해두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것을 임종이라 하며,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을 자식의 도리로 여겼다.

**장례식** 숨을 거두었음이 확인되면, 유족들은 슬픔을 참고 예를 갖추어 장례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장례는 집안 살림 형편이나 가족 구성,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3일장 · 5일장 · 7일장 · 9일장 등으로 치르며, 어느 의례보다도 엄격한 격식에 따라 예를 갖추고 경건하게 치른다.

정해진 조문 기간이 끝나면 관을 예쁜 꽃상여에 실어 장지로 옮긴다. 영정과 초상을 앞세우고, 요령을 잡은 소리꾼이 부르는 슬픈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상여를 메고 장지로 향한다.

미리 만들어진 자리에 관을 내리고 흙을 덮어 다진 다음 봉분을 만든다. 1년 뒤에는 소상을, 2년 뒤에는 대상을 지내고 탈상하였다. 상제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고 탈상할 때까지 행동과 말씨에 조심하며 생활하여야 한다.

상례에 있어서 장례식은 자손이 주관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자손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관례와 혼례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면, 장례와 제사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7) 제례

**제사** 옛 사람들은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 계신 조상 모시듯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사란 돌아가신 조상에 대하여 계속 효도를 다하는 의식이며, 나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야 하는 일이었다.

제사에는 차례와 기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례는 명절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고, 기제는 돌아가신 날 자시(하루의 제일 첫 시간)에 지내는 제사이다. 흔히 제사라 하면 기제를 말하는데,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지내게 된다. 제사는 지방이나 집안에 따라 그 준비와 절차에 차이가 있다.

집안의 장손은 5대조까지의 신위를 사당에 모시며, 제삿날이 되면 해당되는 분의 신위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게 된다. 사당과 신위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다. 요즘은 사진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을 써서 신위로 삼는다.

**제사 음식** 제사에 쓰는 음식과 물건을 제수라고 한다. 음식으로는 메(밥), 갱(국), 나물, 나박김치, 간장, 꿀 또는 조청, 편(떡), 포, 유과류, 과일, 제주(술), 송늬 등이 마련되고, 물건으로는 수저와 제기, 모사, 사진이나 지방, 향로, 촛대 등이 마련된다.

특히, 제사 음식에는 고춧가루와 파, 마늘 등을 쓰지 않아야 하며,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실 때에 특히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제수가 모두 준비되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의해 제사상을 차린다. 제사상의 크기는 돌아가신 분의 벼슬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제사를 모시는 종손 집의 살림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제사상이 차리기가 끝나면 집안의 장손이 주관하여 정해진 격식과 절차에 의해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격식이 엄격하고 복잡하나 그 뜻은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다. 제삿날이 되면 자손들이 함께 모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같은 자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나누며, 서로 어려운 점을 도와가며 대를 이어 나가는데 이는 우리의 소중한 생활 양식이다.

## III. 맺는 글

본 발표에 사용된 전자교과서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중에서 전통적인 민속과 예절, 예술과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CD-1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족문화의 바탕이 되는 말과 글, 그리고 우리 민족의 기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소개와 더불어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종교생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가족제도와 가정의례, 전통예절 등을 소개하였다.

CD-2에서는 우리 고유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민족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소리와 전통 미술,

한국의 춤과 무예 그리고 한국인의 삶이 담긴 의식주 생활 등을 소개하였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학습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흥미를 유발시켜 내재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화와 관련된 요소를 접목하여 병합된 학습의 형태를 취하면 언어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성공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전자교과서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국수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한 한국문화 교육을 목적으로 집필·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한국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 봉 희  
(연대대학)

## 1. 들어가는 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민족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민족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익히는 것이고 보면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마련이다. 언어의 기호가 기표와 기의로 나뉘어지고 기의와 기표가 자의적으로 결합된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합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이는 반증적으로 우리에게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적 맥락을 떠나서 체계적으로 그 언어에 내재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도리를 의식하게 하며 단순한 문법과 번역의 한계를 의식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의사 소통을 위한 언어 속에는 많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문화를 모르고서는 언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사 소통의 능력은 어휘 문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 능력을 망라하게 된다. 외국어 교육이 이민족간의 의사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언어에 내재한 문화적 내용과 문화적 맥락과 배경에 대한 교육은 가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화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동적인 존재로 국수주의 혹은 사대주의라는 함정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통문화를 한국 문화의 유일한 특징으로 간주하고 현대 문화의 내용을 배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통문화의 교육과정에서 현대인의 일상 생활의 문화를 반영하고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규범과 행동 양식을 반영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간접적이거나 한국 현대인들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속담은 세련되고 함축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인간이 집단적 사회 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 경험과 사유 및 공감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상사와 인간의 삶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형성하면서 그 민족의 문화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전통 문화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다. 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고유의 속담에 나타나는 한국 민족의 성격과 인간관을 살펴봄으로서 속담과 한국 전통 문화의 함수 관계를 논의하면서 문화 교육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 2. 언어 의식

오랜 역사를 통해 농경 문화를 영위해 온 한국의 문화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에 더 익숙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간과 인간의 의사 소통의 구실을 해오고 있는 언어에 대해 한국인들은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만큼이나 말을 중요시 해왔다. 그것은 말이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심성을 읽고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어의 다변하고 풍부한 대인법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성향을 해석할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타인과의 교섭에서 득을 볼 수 있다는 속담들이 많다.

- ◎ 말은 온 공을 갚는다
- ◎ 말만 잘하면 천 냥 빚도 갚는다
- ◎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바로 말에 대한 중시는 그것도 청자의 귀맛을 고려한 말은 이렇게 힘이나 대가 없이 자신에 유리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신비화되고 있다:

- ◎ 일 잘하는 아들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들 낳으라.
- ◎ 거짓말도 잘하면 올벼 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 ◎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 ◎ 문 바른 집은 써도 입 바른 집은 못 쓴다.
- ◎ 바른 말 하는 사람 귀염 못 받는다.

위의 속담은 말의 신비화를 극화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위의 속담들은 집단의 하위 문화적 차원에서 자신의 원칙이나 소신,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처지나 태도, 심경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약삭빠른 눈치에 해당된 언어관이기도 한 것으로 소극적인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화 교육에서 문화 사대주의를 벗어나 과학적인 시각으로 전통 문화를 조명하는 것의 필요성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말을 위한 말의 속담도 나오게 된다:

- ◎ 길은 길 닳, 말은 말 닳
- ◎ 말은 할수록 늘고 뒷박질은 할수록 준다

한국 속담에는 전전궁궁의 자세로 조심스럽게 말을 접근할 것을 주장하는 속담들도 많다. 그것은 물론 말이 자칫 화를 불러오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한 나의 품위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 계집 입싼 것
- ◎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 3. 타자 의식

거시적 차원에서 전통 문화는 질서와 권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 전통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중심적인 다원주의 시대의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데올로기의 종말과 의사 소통의 핵을 이루는 의미의 해체를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권력의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전통 사회에서는 시시각각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 타자의 존재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체통을 세우며 그 권력 질서에 편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전통적으로 한국 민족은 대인 관계에서 신분 지향적인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게 되는데 이는 타자 의식의 반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능력 위주의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당대의 한국 교육 현실 역시 이러한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여 결과 속의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 속을 떠나 겉에 집착해 버리고 말게 된다:

- ◎ 대문이 가문
- ◎ 양반이 물에 빠져도 개해엄은 안 친다
- ◎ 매를 맞아도 은가락지 낀 손에 맞는 것이 좋다

물론 한국의 전통 속담에는 그러한 타자 의식에 대한 풍자와 야유의 속담도 적지 않게 있다:

- ◎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 냉수 먹고 이빨 썩는다
- ◎ 동냥치가 동냥치를 꺼린다.

권위와 위계 질서를 지향하는 이러한 타자 의식은 개인의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양가성으로 인해 겉과 속이 전도되는 이율배반적인 무가치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많은 속담들은 언어 관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중요시하며 노력보다는 안일함을 추구하는 타성의 온상으로도 되고 있다:

- ◎ 공짜는 양젓물도 마다 아니한다
- ◎ 내일의 천자보다 오늘의 재상
- ◎ 동성동분 아주머니 술도 싸야 사먹는다
- ◎ 똥 누러 갈 적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주체와 타자, 말과 속셈의 불일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회의와 불신, 피해의식 등이 짙게 배여 있게 하고 있다:

- ◎ 아는 놈이 도둑놈
- ◎ 가까운 무당보다 먼 데 무당이 용하다
- ◎ 사돈집과 뒷간은 멀어야 한다
- ◎ 도둑질도 혼자 해먹어라
-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요즘 한국의 정치 풍토는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으로 얼룩져 있다. 필자는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것이 위에서 언급한 피해 의식과 책임 혹은 의무의 회피라는 뿌리깊은 전통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유권자들은 바로 그들의 성토와 비난의 소리를 속 시원히 노출시키면서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나 할까 - 그러한 정치인들을 산출한 것이 자신들이라는 간단한 사실에 대한 반성마저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매년 선거마다 그 후유증으로 피해의식을 거듭 경험하게 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 4. 정감 의식

정감에 대한 한국의 속담에서는 이성이나 객관적인 기준, 가치보다는 오랜 유대 관계를 통해 형성한 정 자체에 대한 집착 혹은 콤플렉스를 보여 줄 때도 있는데 오래 사귄수록 정이 두터워진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 ◎ 신정이 구정만 못하다
- ◎ 사람은 헌 사람이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 ◎ 정 각각 흥 각각
- ◎ 고와도 내 님 미원도 내 님
- ◎ 갑작 사랑 영 이별

그리하여 그러한 돈독한 정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를 낮추며 인간 관계에서 지연, 학연, 혈연 등 관계를 중요시하고 원칙이나 소신보다는 정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게 된다:

- ◎ 벼슬은 높이고 뜻은 낮추어라
- ◎ 옷은 낮에 칩 뵈으라
- ◎ 가재는 게 편이다
- ◎ 유유상종
- ◎ 지척의 원수가 천리의 벗
- ◎ 까마귀라도 내 땅 까마귀면 반갑다
- ◎ 며느리 미우면 손자도 밉다
- ◎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데 없다

#### 5. 나오는 말-문화 비평의 의미

한국의 속담은 우리가 진주처럼 닦고 닦아 문화의 정수로 이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어느 미학가의 얘기대로 우리가 정신을 기술하기 위해 단 하나의 말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비판적이라는 말일 것이다. 비판적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나 우열을 가르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분석과 해석의 논리를 지적 토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문화 교육은 마치 이데올로기의 싸움처럼 그동안 너무도 그 문화에 대한 자세나 입장, 태도에 지나치게 恋戀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 교육적 자세는 왕왕 민족 중심주의 사고로 자민족의 모든 풍속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 세계관이 마치 우주의 중심이라도 차지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이성의 분석보다는 합리화와 자연화의 경향에 급급한 무의식을 노출시키면서 사대주의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국어의 학습 과정은 이질적인 문화의 접근 과정으로 외국어 학습자들은 문화적인 벽을 절감하게 된다. 필자는 2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절' 인사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인에 대한 인상을 묻는 익명의 설문지를 배포한 적이 있는데 비록 그것이 한국인들의 인사 예절에서는 일상적으로 극히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문화이지만 문화대혁명이라는 평등과 부정의 쇄뇌를 걸친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불건적이다',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요시한다' 등 부자연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인 부분이 적지 않았다.

문화 교육의 사대주의는 자칫 그러한 문화의 장벽을 더 절감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 표면에 깔린 심층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 없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나 긍정적인 인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은 비록 한국어에 한해서는 그것을 처음으로 접하는 초등학생이지만 수능시험을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며 그만큼 자국 문화에 대한 공지와 내면화의 교육을 받아 왔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아이러니적 구조는 한국어 학습의 전 과정에서 노출하게 되는 갈등 구조이다. 이러한 아이러니 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식의 흥미와 수양, 지적 동기를 쌓아가기 위해서도 비판적인 문화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을 갖지 않고 비교적 차원에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질적인 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문화 교육 과정에서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는 것이 거부감보다 지적 흥미를 유발하는 다원주의의 시대적 조류를 접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동질성은 (다른 부분을 제쳐놓더라도 어휘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다른 언어보다 유리한 입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심층 문화의 분석으로 그들이 익숙한 표층 문화를 뛰어넘어 낯설게 하기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교육 방법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그만큼 배우는 것은 아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르는 것이 없으면 지적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또한 하나의 역설이다. 다른 한편 이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이 어휘나 문법 교육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어휘나 문법을 초급 단계의 교육으로, 여러 가지 문학 장르 그리고 설명문 등 형상화한 문화 교육을 중급단계의 교육으로, 이론적이고 논쟁적이고 전문적인 문화 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 과정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본고는 한국 민족의 부정적 특성을 반영한 속담, 즉 언어의식, 타인의식, 정감 의식 등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의미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인 민족 문화라고 해서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문화 교육에서 비판적인 시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물론 논문으로서의 격식과 심도있는 전개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유기적인 논리 관계의 정립 등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 시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면서 본고를 마친다.



이 성 도  
(산동대학)

## 1. 머리말

언어와 문화의 관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에 대해 한국어 학자 최현배 선생님은 ‘한 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그 말로써 들어가며, 그 말로써 하여가며, 그 말로써 남기나니, 이제 조선 말은 줄잡아도 반만년 동안 역사의 흐름에서, 조선 사람의 창조적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그 성과의 끼침이라’<sup>52)</sup>고 말씀하셨다. 언어(말과 글)는 문화를 빚어내는 도구이고 문화를 담은 그릇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과정이어야 하겠고 한국문화 교육을 떠나서는 한국어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고 봐야겠다.<sup>53)</sup>

그래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도입에 관한 연구와 성과물들이 근년에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언어 교육에서 ‘문화적 인소(또는 문화 요소)’<sup>54)</sup>를 배제하고 단순히 어음·어휘·문법만 가르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 교육이 곁들여져야 한다. 이는 역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지식에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문화를 가르침에 있어서 ‘한국개황’이나 ‘한국문화’라는 학과목 또는 ‘한국지리’, ‘한국역사’, ‘한국종교’, ‘한국민속’, ‘한국의 정치와 경제’ 등 학과목의 설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가 가장 많이 잘 반영된 한국 속담 교육을 통하여 한국 문화 교육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어 평 먹고 알 먹기라 여겨진다.

이에 필자는 2000년과 2003년에 ‘한국어속담’이라는 강좌를 한국어학과 2학년 후학기(제2학기) 이상의 학생들의 선택과목으로 설치해, 한 학기(약 18주)에 주당 2시간씩 가르쳐 봤는데 학생들의 취미를 자아냈다. 속담의 일반적 특성, 한국(어) 속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강의하고 나서 주로 한국 속담을 내용별로 40가지로 분류하여<sup>55)</sup> 약 400개 정도를 가르쳤다. 필자는 가르치면서 한국

52) 최현배 <우리말본>(1937)의 ‘머리말’에서.

고영근(1995) 262쪽에서 재인용.

53) 이득춘(2000) 393쪽 참조.

54) 이득춘(2000) 395쪽 참조.

55) 1. 강의성/인내성 2. 신중성/침착성 3. 진실성/정직성 4. 겸손 5. 근면 6. 게으름 7. 대담성/결단성 8. 확신성 9. 융통성 10. 무관심 11. 편견/착각/옹졸함 12. 표리부동 13. 파렴치성 14. 어리석음 15. 거짓/겉치레 16. 교활성 17. 교만성 18. 잔인성 19. 조급성 20. 조심성 21. 나약성 22. 공포심/비겁함 23. 고집/억지 24. 욕심/인색함 25. 기쁨/만족/행복 26. 기대/소원 27. 사랑 28. 슬픔/외로움/섭섭함/억울함 29. 협력 30. 불가능 31. 필연/우연 32. 평가 33. 주객전도 34. 말(언어) 35. 인정세대 36. 생활세대 37. 먹는 것 38.

문화에 대한 지식이 모자람을 더욱 실감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지명 관련 한국 속담<sup>56)</sup>의 예를 들면서 한국 언어·문화교육(필자의 수준으로는 '문화교육'이라는 고차원의 용어를 씬에 저어하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이라 함이 더 타당할 지도 모르겠다.)을 이야기 해보려 한다.

## 2. 본론

### 1) 속담을 통한 지리교육과 고장 소개

한국 문화의 터전이요 배경이 되는 지리에 대한 교육과 고장에 대한 소개를 한다. 예를 들면:

- (1) 팔도에 술 걸어놓았나
- (2) 강계도 평안도 땅이다
- (3) 문경이 충청도가 되었다 경상도가 되었다
- (4) 닫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경상도까지 하루에 갈까
- (5)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서부터 긴다
- (6) 두만강이 녹두죽이라도 곰방술이 없어서 못 먹겠다
- (7) 낙동강 잉어가 뛰니까 사람방 목침이 뿔다
- (8)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있어야 마시지
- (9) 동해의 물을 보고 죽으라
- (10) 삼남이 풍년이면 천하는 끓주리지 않는다
- (11) 서울 안 가본 놈 있나
- (12) 천안 자고 직산 자고
- (13) 의주를 가려면서 신 날도 안 꼬았다
- (14) 강계 색시면 다 미인인가
- (15) 경주 돌이면 다 옥돌인가
- (16) 강원도 포수
- (17) 지리산 포수
- (18) 홍성 가서 말 자랑 말고 광천 가서 돈 자랑 말라
- (19) 수들이 녕변(영변)에 다녀오듯
- (20)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 (21) 봉산 수숫대 같다
- (22) 나중에야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 (23)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 (24) 영주 가서 말 잘못하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꼴이 된다
- (25) (진도) 일년 농사지어 삼년을 먹는다
- (26) 이왕이면 창덕궁
- (27) 함양 가서 벼슬 자랑 말고  
통영 가서 돈 자랑 말고

돈/재물 39. 새로운 속담 40. 기타

56) 이 글에서는 지명뿐만 아니라 강, 산, 건물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시켰으며, 속담뿐만 아니라 일부 성구, 낱말도 포함시켰음을 일러둔다.

- 남원 가서 소리 자랑 말고  
 별교 가서 힘 자랑 말랬다  
 (28) 홍길동이 합천 해인사 떨어/털어 먹듯

한국에는 풍수설과 관련된 속담도 있다. 이를 테면:

- (29) 살아서 진천 죽어서 룡인(용인)  
 (30) 살아서 제천 죽어서 성주  
 (31) 살아서 장성 죽어서 순창  
 (32) 살아서는 포천 가야 양반이고 죽어서는 장단 가야 양반이다

## 2) 속담을 통한 실화와 전설 교육

한국 속담에는 역사 사실이나 전설에서 비롯된 속담들이 적지 않다. 이를 테면:

- (33) 강경 장애 조깃배 들어왔나  
 (34) 떠들기는 천안 삼거리  
 (35) 강화도련님인가 우두커니 앉았다  
 (36) 개성 여자 남편 보내듯 한다  
 (37) 경상도 문둥이 좃 잘라먹듯 한다  
 (38) 교천 부자가 눈 아래로 보인다  
 (39) 남산 봉화 들 제 인경 치고 사대문 열 제 순라군이 제격이라  
 (40) 남산골 샌님  
 (41) 남산골 딸각발이  
 (42) 담양 갈 놈  
 (43) 동상전에 들어갔나  
 (44) 무산 군수 같다  
 (45) 밀양놈 씹/싸움하듯  
 (46)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  
 (47) 평택이 무너지나 아산이 무너지나  
 (48) 은진은 강경으로 꾸려간다  
 (49)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50) 함흥차사  
 (51) 합천 해인사 밥이나  
 (52) 송도 오이/외 장사  
 (53) 알고 보니 수원 나그네/ 다시 보니 수원 손님  
 (54) 신창리 영감의 송사/ 신창리 이영감의 판결  
 (55) 안악 사는 과부  
 (56) 양주 사는 홀아비/홀애비  
 (57) 평안도 참빗 장사  
 (58) 평양 황고집이라  
 (59) 포천 소 까닭이라

## 3) 속담을 통한 한국인의 성격 소개

한국어에는 한국인의 지역별 성격을 나타낸 속담들이 적지 않다. 이를 보면:

- (60) 녀살 좋기는 강화년이다
- (61) 경기도 까투리
- (62) 경상도 고집불통이다
- (63) 경상도 문둥이  
전라도 개똥쇠  
경기도 각쟁이  
충청도 더듬수  
강원도 감자바우/감자바위
- (64) 수원 남양 사람은 발가벗겨도 삼십리를 간다
- (65) 전라도 사람은 벗겨놓으면 삼십리 간다
- (66) 전라도 사람에게 밥상이 두 개
- (67) 전라도 사람 열 명은 당해도 한 사람은 못 당해낸다
- (68) 서울 경기 놈들 때문에 뺏다가 생기고  
충청도 놈들 때문에 구보가 생기고  
전라도 놈들 때문에 철조망이 생기고  
경상도 놈들 때문에 취침이 생기고  
강원도 놈들 때문에 국민학교가 생겼다
- (69) 충청도 양반
- (70) 경상도 사나이
- (71) 고려 공사 삼일
- (72) 조선 공사 삼일
- (73) 조선 사람은 낮 먹고 산다
- (74) 조선 놈은 해장술에 망한다

이 외에도 한국인의 성격을 표현한 말들이 있다. 예를 들면:

- (75) 알개(함흥·함경남도 출신자)
- (76) 찰락(함경북도 출신자)
- (77) 쫄감자(자강도·량강도 출신자)
- (78) 이전투구( 함경도 사람)
- (79) 노랑이/노랭이(평양·평안남도 출신자)
- (80) 북데기(평안북도 출신자)
- (81) 멍호출림(평안도 사람)
- (82) 물렁포(황해도 출신자)
- (83) 석전경우(황해도 사람)
- (84) 태산교약(경상도 사람)
- (85) 풍전세류(전라도 사람)
- (86) 청풍명월(충청도 사람)
- (87) 똥갈매기(강원도 출신자)

(88) 암하노불/암하고불(강원도 사람)

(89) 경중미인(경기도 사람)

지역별 한국인의 성격 차이의 원인을 밝혀준다. 또 수업 시간에, 이런 말들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한 토론을 전개할 수도 있다.

#### 4) 속담에 반영된 한국인의 관념

(90) 경기 밥 먹고 영주 구실을 한다

(91) 고양 밥 먹고 양주 구실/양주 밥 먹고 고양 구실

(92) 딸자식 두면 경상도 도토리도 굴러 온다

(93) 금강산 그늘이 관동 팔십리

(94) 금강산도 식후경

(95) 남남북녀

(96)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 싸우면 가본 놈이 못 이긴다

(97) 남대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 다투면 안 가본 놈 이긴다

(98) 남대문 구멍같다

(99) 압록강이 팔죽이라도 굶어죽겠다

(100) 대동강도 팔아먹을 놈

(101) 서울이 낭이라

(102) 시골 각쟁이 서울 곰만 못하다

(103) 서울 놈 못 속이면 보름씩 배 앓는다

(104) 서울놈은 비만 오면 풍년이란다

(105) 서울 양반은 글 힘으로 살고 시골 농꾼은 일 힘으로 산다

(106) 마소의 새끼는 제주/시골로 보내고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

(107)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우마를 낳으면 상산에 보내라

(108) 여식을 나거든 웅천으로 보내라

(109) 서울 소식은 시골 가서 들어라

(110) 인왕산 차돌을 먹고 살기로 사돈의 밥을 먹으라

#### 5) 속담을 통한 기타 한국 문화 교육

(111) 남산에서 돌팔매질을 하면 김씨나 이씨 집 마당에 떨어진다

한국인의 성씨에 대한 소개를 한다. 한국에 왜 김씨나 이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 어떤 사람의 말처럼 과연 '번식력'이 강해서일까?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켜 볼 수도 있다.

(112) 팔도를 무른 메주 밧듯 한다

한국인의 '메주'문화에 대한 소개를 한다.

(113) 의주 파발도 똥 놀 때가 있다/의주 파천에도 곱똥은 누고 간다

옛날의 '파발꾼'에 대한 이야기와 '아관파천' 등 옛날에 발생한 '파천'의 몇 가지 실례 든다.

(114) 서울 가는 놈이 눈썹을 빼고 간다

왜 '수염을 깎고 간다' 또는 '갓 벗고 간다'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눈썹'을 빼고 간다고 했을까?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킬 수도 있다.

### 3. 맺는 말

이상 한국(어) 속담을 통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간단히 살펴봤다. 속담의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한국의 지명(강·산·건물 등까지) 관련된 속담(성구·낱말까지)에 한해서 예를 들어봤다.

한 민족의 속담에는 그 민족의 문화가 다분히 담겨 있다. 우리는 속담을 가르칠 때 발음이나 단어를 가르치고 속담의 사전식 풀이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순수한 언어교육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 교육의 기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속담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문화적인 요소도 발굴해 가르침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속담에 대한 이해를 가일층 심화하고 그 속담을 더욱 인상 깊게,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속담을 알맞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의 수준 제한과 시간 촉박으로 설명과 논술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개요만 서술했다. 논문 발표 때 미비한 점을 어느 정도 '미봉'해보려 한다.

끝으로, 아직 잘 정리되지 못했지만 필자가 수집한 지명(역시 산·강·바다·건물 등까지) 관련 한국 속담(일부 성구 또는 낱말도 포함함)을 참고로 별첨한다. 지면 관계로 속담의 뜻풀이는 생략한다.

### 참고 문헌

- 이득춘. 2000. '한국어 교수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한 학습 소감'.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엮음), 태학사.
- 고종석. 1999. '평양감자와 함흥차사'. <국어의 풍경들>(고종석). 문학과지성사.
- 천소영. 2000.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우리말의 속살>(천소영). 창해.
- 김익두. 1998. <우리문화 길잡이>. 한국문화사.
- 박병주. 1996. <도시 순례 스케치 - 한국의 도시>. 열화당.
- 이기문. 1962. <속담사전>. 민중서관.
- 김도환. 1995. <한국속담활용사전>. 한울.
- 엄병섭·박용순·김종선·류영걸. 1992. <조선속담집>. [조선]사회과학출판사
- 정대룡. 2000. <토속어·성속어 사전>. 우석.
- 리선풍·리룡득. 1993. <속담 이야기>. 국학자료원.
- 姜信道. 1986. <朝汉成语谚语词典>. 商务印书馆.
- 이희승. 1998.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조선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1960-1962. <조선말사전>(전6권). [조선]과학원출판사.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79. <한국어독본>(고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제3~40쪽: 제1과 '지방별로 본 한국인의 성격'.

## 별 첨

지명 보기:

갑산 강경 강남 강동 강북 강원도 강진 강화 개성 경기 경상 경상도 경주 고양 고창 과천 관덕  
정 관동 광주(廣州) 광천 교천(教川) 금강산 금천(衿川) 낙동강 남(南) 남대문 남대지 남산 남산  
골 남양 남원 남촌 남태령 남청(納淸) 녕변 달성위 담양 대동강 대마도 동대문 동상전 동실령  
동작(이) 동정 동정호 동해 동해수 두만강 련산(連山) 령남 룡문산 룡인(龍仁) 룡천관(龍川關)  
릉라도 만수산 모화관 무등산 무산 무주구천동 문경 밀양 백두산 백운대 별교 벽창(호) 보은 봉  
산 부안 북(北) 북산 북악 북청 북한(北漢)  
사근내 사대문 삼각산 삼남 삼수 삼척 삼천포 새재 서울 선유봉 성주 송도 송파장 수구문 수양  
산 수원 순창 송산(嵩山) 신창리 아랫대 아산 악박골 안동 안성 안악 안협 압록강 양주 양천 양  
화도 연안 연희궁 염천교 영주 오간수 오강(五江) 온양 우대 웅천 위초산(渭楚山) 은진 의주 인  
왕산 인천 자인(慈仁) 장단(長湍) 장성 장항 전라도 정선 제주 제천 조선 종로 지리산 직산(稷  
山) 진도 진천 창덕궁 천안 춘천 충주 충청도 태백산 태산 통영 파주(坡州) 팔도 평안 평안도  
평양 평택 포천(抱川) 하동 한강 한라산 한수북산 한양 함양 함흥 합덕 합천 해인사 형산(荊  
山) 홍문재 홍성 황해도 회덕(懷德)

속담 등:

갑산에 갈망정  
강경 사람 벼락 바위 쳐다보듯 한다  
은진은 강경으로 꾸러간다  
강경 장에 조깃배 들어왔나, 떠들어대기는 천안 삼거리  
강계도 평안도 땅이다  
강계색시면 다 미인인가  
호박 넉출/넉쿨/덩굴이 뻗을 적 같아선 강계 위초산 뒤덮을 것 같지  
동무/벗 따라 강남 간다  
제비는 작아도 강남 간다  
강남의 굴은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탕자가 된다  
강남 장사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를 간다  
강원도 감자바우/감자바위  
강원도 놈들 때문에 국민학교가 생겼다  
강원도 삼척이다  
강원도 참사(參事)  
강원도 포수  
(강원도)암하노불/암하고불  
(강원도) 툇갈매기  
살고 나면 도로 강진(康津) 원  
넉살 좋기는 강화 년이다

강화 도련님인가 우두커니 앉았다  
 개성 여자 남편 보내듯 한다  
 경기 까투리  
 경기 밥 먹고 영주/청흥도 구실을 한다  
 서울 경기 놈들 때문에 뺏다가 생기고  
 경기도 까투리  
 경기도 깍쟁이  
 (경기도) 경중미인  
 경상 감사도 나 싫으면 그만  
 금일 충청도 명일 경상도  
 문경이 충청도가 되었다 경상도가 되었다  
 경상도 고집불통이다  
 단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경상도까지 하루에 갈까  
 경상도 놈들 때문에 취침이 생기고  
 딸자식 두면 경상도 도토리도 굴러온다  
 경상도 문둥이, 전라도 개똥쇠, 경기도 깍쟁이, 충청도 더듬수, 강원도 감자바우  
 경상도 문둥이 좃 잘라먹듯 한다  
 경상도서 국 쬐는 놈 전라도 가도 국 쬐다  
 경상도 입납  
 경상도 사나이  
 (경상도) 태산교약  
 경주 돌이면 다 옥돌/옥석인가  
 경주/광주 생원의 첫 서울이라  
 고려 공사 삼일  
 고양 밥 먹고 양주 구실  
 서울 놈 못난 건 고창 몸의 불알/좃만도 못하다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삼십리부터 긴다  
 감사면 다 평양 감사고 현감이면 다 과천 현감이더냐  
 관덕정 설탕국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홍성 가서 말 자랑 말고 광천 가서 돈 자랑 말라  
 교천 부자가 눈 아래로 보인다  
 금강산 그늘이 관동 팔십리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도 제 가기 싫으면 그만이다  
 밥을 금강산 바라보듯 한다  
 금강산 상상봉에 물 밀어 배 띄워 평지 되거든  
 금천 원이 서울 올라 다니듯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한다



낙동강 잉어가 뛰니까 사랑방 목침이 뿔다  
 남남북녀  
 남대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 다투면 안 가본 놈 이긴다  
 남대문 구멍 같다  
 모로 가나 기어 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라고 한다  
 이그러진 방망이 서울 남대문에 가서 꺾었다  
 남대문에서 할 말을 동대문에서 말한다  
 남대문 입납  
 연안 남대지도 팔아먹을 놈  
 배가 앞 남산만 하다  
 남산 봉화 들 제 인경 치고, 사대문 열 제 순라군이 제격이라  
 남산 소나무를 다 주어도 서캐조롱 장사를 하겠다  
 남산에서 돌팔매질을 하면 김씨나 이씨 집 마당에 떨어진다  
 남산골 딸각발이  
 남산골 샌님  
 남산골 생원/샌님이 망하여도 걸음 걷는 보수만/는 남는다  
 남산골 샌님은 뒤지하고 담뱃대만 들면 나막신을 신고도 동대문까지 간다  
 남산골 샌님이 신청안 고직(庫直)이 시킬 재주는 없어도 뽕 재주는 있다  
 남산골 샌님이 역적 바라듯 한다  
 남산골 재앙동이 샌님  
 수원 남양 사람은 발가벗겨도 삼십리를 간다  
 남양 원님 굴 회(脛) 마시듯  
 함양 가서 벼슬 자랑 말고  
     통영 가서 돈 자랑 말고  
     남원 가서 소리 자랑 말고  
     별교 가서 힘 자랑 말랬다  
 남촌 양반이 반역할 뜻을 품는다  
 서울이 무섭다니까 남태령부터 긴다  
 남청장(納淸場)을 만든다  
 남청장이 되었다  
 수돌이 냉변을 다녀오듯  
 달성위(達城尉) 궁마직(宮馬直)이 명위를 걸었나  
 담양 갈 놈  
 도깨비 대동강 건너듯  
 대동강도 팔아먹을 놈  
 대동강에서 모래알 चु기  
 우수·정칩에 대동강 풀린다  
 청명하면 대마도를 건너다보겠다. (청명한 날이면 청국도 들여다보겠다)  
 남산골 샌님은 뒤지하고 담뱃대만 들면 나막신 신고도 동대문까지 간다  
 못된 바람은 동대문 구멍에서/으로 (다) 들어온다

남대문에서 할 말을 동대문에서 말한다  
 동상전(东床廛)에 들어갔나  
 동실령(峠) 소똥구리  
 종로에서 뺨 맞고 동작이에서 눈 흘긴다  
 동정 칠백리(에) 흰화 사설한다  
 동정호 칠백리  
 굴껍질 한 조각만 먹어도 동정호를 잊지 않는다  
 동해의 물을 보고 죽으라  
 백두산이 무너지나 동해수가 메어지나  
 두만강이 녹두죽이라도 곰방술이 없어서 못 먹겠다

락동강 잉어가 뛰니까 사랑방 목침이 뿜다  
 련산 김씨 모도락(墓道乐)  
 고개를 련남으로 두어라/돌려라  
 룡문산 안개 두르듯  
 룡문산에 안개 모이듯  
 살아서 진천, 죽어서 룡인  
 채비 사흘에 룡천관 다 지나겠다  
 룡라도 수박 (같다)  
 (량강도·자강도) 쫄감자

만수산의/에 구름 뒹듯  
 모화관(慕华馆) 동냥아치 떼 쓰듯  
 무산 군수 같다  
 문경 새재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문경이 충청도가 되었다(가) 경상도가 되었다  
 밀양 놈 씹/싸움하듯  
 무등산 수박  
 무주 구천동이야

백두산이 무너지나 동해수가 메어지나/메워지나  
 달갈로 백운대 치기 . 달갈로 백운대 친다  
 별교 가서 힘 자랑 말렸다  
 벽창호 같다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 처자가 울겠다  
 봉산 수숫대 같다  
 봉산 참배는 물이나 있지  
 부안 댁 가라말  
 남남북녀  
 한수 북산에 썩은 양초(粮草) 쌓이듯 한다

북악이 평지 되거든  
 북청 물장수  
 까투리 북한(北漢) 다녀온 셈이라

사근내(沙斤乃) 장승(長丞)만하다  
 남산 봉화 들 제 인경 치고 사대문 열 제 순라군이 제격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삼각산 돌도 많고 곱의 씹엔 돌도 많고  
 삼각산 밑에서 잔 물 먹는 놈  
 삼각산 바람이 오르락내리락  
 삼남이 풍년이면 천하는 굶주리지 않는다  
 나중이야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삼수갑산을 갈망정. 내일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삼수갑산을 가서 산전을 일귀먹더라도.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강원도 삼척(이다). 강원도에 안 가도 삼척. 춤기는 삼청(三淸) 냉돌이라.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문경 새재 박달나무는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서울이 무섭다니까 새재서부터 긴다  
 입이 서울  
 서울 가는 놈 감투부탁 받은 격  
 서울에 감투부탁  
 서울 가는 놈이 눈썹을 빼고 간다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 싸우면 서울 가본 놈이 못 이긴다  
 서울(가서) 김서방(집) 찾기/찾는다  
 서울 경기 놈들 때문에 뺏다가 생기고  
 충청도 놈들 때문에 구보가 생기고  
 전라도 놈들 때문에 철조망이 생기고  
 경상도 놈들 때문에 취침이 생기고  
 강원도 놈들 때문에 국민학교가 생겼다  
 서울 곁에 시골내기라  
 시골 깍쟁이 서울 곰만(도) 못하다  
 서울 길도 물어서 가라  
 서울 김서방 집도 찾아간다  
 서울 까투리  
 서울 깍쟁이/깍쟁이  
 모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  
 서울 내기/나기  
 이그러진 방망이 서울 남대문에 가서 꺾었다  
 서울 놈 못난 건 고창놈의 불알/쫓만도 못하다  
 (시골 놈이) 서울 놈/사람(을) 못 속이면 보름씩/보름을 배를 앓는다/똥을 못 본다  
 서울 놈/사람은 비만 오면 풍년이란다  
 서월 놈으로 글썽질 몰르므로 말썽지사 몰르랴(제주말)  
 하룻망아지/강아지 서울 다녀오듯

서울 뜨기

서울 양반은 글 힘으로 살고 시골 농꾼은 일 힘으로 산다  
 서울 사람의 옷은 다듬이 힘으로 입고 시골 사람의 옷은 풀 힘으로 입는다  
 마소의 새끼는 제주/시골로,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  
 사람은 낳으면 서울에 보내고 우마는 낳으면 상산(上山)에 두어라  
 서울서 뺨 맞고 안성 고개 가서 주먹질한다  
 서울 소식은 시골 가서 들어라/들으라  
 서울 아침이다  
 서울 안 가본 놈 있나  
 서울에 가야 과거도 본다  
 금천 원이 서울 올라다니듯  
 서울이 낭이라  
 서울이 낭이라는 말을 듣고 삼십리부터 간다  
 경주 생원의 첫 서울이다  
 서울이 무섭다 하니까 남태령/새재(서)부터 간다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서부터 간다  
 입만 가지면 서울 이서방 집도 찾아간다  
 서울 혼인에 깍쟁이 오듯  
 양화도 색시 선유봉으로 돈다  
 살아서 제천 죽어서 성주  
 송도 계원(契員)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  
 서울서 매 맞고 송도서 주먹질한다  
 송도 외/오이 장사  
 송과장(松坡場) 옷머리  
 못된 바람은 수구문으로 들어온다  
 수구문 차례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를 간다  
 알고 보니 수원 나그네. 다시 보니 수원 손님  
 수원 남양 사람은 발가벗겨도 삼십리를 간다  
 살아서 장성, 죽어서 순창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송산이라  
 신창리 영감의 송사/ 신창리 이영감의 판결

아래뎛 사람

평택이 무너지나 아산이 무너지나  
 악박골 호랑이 선불 맞은 소리(라)  
 안동읍 장은 삼경이면 파한다 (왔니경? 장 가봤니경? 이제 가니경?)  
 돈 닳돈 벌려고 보리밭에 갔다가 안동포 속곳만 뚱칠했다  
 서울서 뺨 맞고 안성 고개 가서 주먹질한다  
 안성맞춤

안성맞춤 안장맞춤  
 안성(安城)장에 풋송아지처럼  
 안성 피나팔  
 안악 사는 과부  
 안협(安峽) 교생(校生)이라  
 압록강이 팔죽이라도 굶어죽겠다  
 고양 밥 먹고 양주 구실. 양주 밥 먹고 고양 구실  
 양주 사는 홀아비  
 허리에 돈 차고 학 타고 양주에 올라갈까  
 양화도 색시 선유봉으로 돈다  
 양화도 색시 선유봉을 걷는다  
 연안 남대지도 팔아먹을 놈  
 연희궁 까마귀 골수박 파먹듯(한다)  
 염천교 밑에서 돼지 흘레를 붙이는 것이 낫겠다  
 지저분하기는 오간수 다리 밑이라  
 오강(五江) 사공의 닻줄 감듯  
 온양 온정에 헨다리/전다리 모이듯 (한다)  
 우뚝사람  
 여식(女息)이/을 나거든 웅천으로 보내라  
 호박 년출/녕쿨/덩굴이 번을 적 갈아선 강계 위초산 뒤덮을 것 같지  
 은진은 강경으로 꾸러간다  
 의주를 가려면서 신 날도 안 꼬았다  
 의주 파발도 톱 놀 때가 있다  
 의주 파천에도 곱똥은 누고 간다  
 인왕산/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리 간다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있나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 없다  
 괭기는 인왕산 솔가지라  
 인왕산 중허리 같다  
 인왕산 차돌을 먹고 살기로 사돈의 밥을 먹으라  
 인왕산 호랑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있어야 마시지  
 인천 짠물이다  
 양천 원님 죽은 말 지키듯  
 영주 가서 말 잘못하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꼴이 된다  
  
 자인(慈仁)장 바소쿠리  
 살아서는 포천 가야 양반이고 죽어서는 장단 가야 양반이다  
 살아서 장성, 죽어서 순창  
 장항선이다  
 경상도서 죽 쬐는 놈 전라도 가도 죽 쬐다

전라도 감사가 화대 찌를 찻겠느냐  
 경상도 문둥이  
 전라도 개똥쇠  
 경기도 깍쟁이  
 충청도 더듬수  
 강원도 감자바우  
 전라도 곡식이라  
 전라도 놈들 때문에 철조망이 생겼다  
 망둥이/망둥이가 뛰니까 전라도 빗자루도 뿔다  
 전라도 사람 열 명은 당해도 한 사람은 못 당해낸다  
 전라도 사람에게 밥상이 두 개  
 전라도 사람은 벗겨놓으면 삼십리 간다  
 전라도 육자배기 평안도 수심가  
 (전라도) 풍전세류  
 정선 골 물방아/물레방아 물레바퀴 돌 듯  
 제주말 갈기 서로 뜯어먹기/뜯어먹는다  
 제주말 제 갈기 뜯어먹기  
 제주말 갈기 외로 질지 바로 질지  
 제주 미역 머리 감은 듯  
 마소의 새끼는 제주/시골로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  
 제주에 말 사 놓은 듯  
 살아서 제천 죽어서 성주  
 조선 공사 삼일  
 조선 놈은 해장술에 망한다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한다  
 조선 바늘에 되놈 실 꿰듯  
 조선 사람은 낮 먹고 산다  
 종로 깍쟁이 각 집 앞으로 다니면서 밥술이나 빌어먹듯  
 종로에서 뺨 맞고 행랑뒤킨목/행랑뒤/동작이에서 눈흘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흘긴다  
 주인 기다리는 개가 지리산만 바라본다. 턱 떨어진 개 지리산 바라보듯/쳐다보듯 한다  
 지리산 지리산이 되다  
 지리산 포수  
 천안 자고 직산 자고  
 살아서 진천 죽어서 룡인  
 (진도) 일년 농사 지어 삼년을 먹는다  
  
 이왕이면 창덕궁  
 떠들기는/떠들어대기는 천안 삼거리라  
 천안 자고 직산 자고  
 경기 밥 먹고 충청도 구실을 한다

춘천 노목계. 춘천 토목공  
 충주 곁은 고비(考妣)  
 충주 자린 꼽쟁이. 충주 달래 꼽쟁이 같다  
 충청도 더듬수  
 금일(은) 충청도 명일(은) 경상도  
 문경이 충청도가 되었다 경상도가 되었다  
 충청도 놈들 때문에 구보가 생기고  
 (충청도) 양반  
 (충청도) 청풍명월  
 태백산 갈가마귀 게발 물어다(가) 던지듯  
 태백산 백액호가 송풍나월 어루(는)듯  
 티끌모아 태산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태산이 광풍에 쓰러질까. 태산 중약 만장봉이 모진 광풍에 쓰러질까  
 갈수록 태산이다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송산이라  
 함양 가서 벼슬 자랑 말고  
 통영 가서 돈 자랑 말고  
 남원 가서 소리 자랑 말고  
 별교 가서 힘 자랑 말랬다

파주 미륵 (갈다)  
 팔도를 무른 메주 밧듯 (한다)  
 팔도에 술 걸어놓았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평안남도) 노랑이/노랭이  
 강계도 평안도 땅이다  
 평안도 수심가처럼 간다간다만 부른다  
 평안도 참빗 장사  
 (평안도) 맹호출림  
 (평안북도)북대기  
 내 배 부르니 평양감사가 조카 같다  
 제 배가 부르니 평양 감사가 조카 같이 보인다  
 감사면 다 평양감사고 현감이면 다 과천 현감이더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평양 기생을 열 번 얻어도 정은 들 수 있다  
 살갑기는 평양 나막신  
 평양 돌팔매 들어가듯  
 평양 병정의 발싸개 같다  
 평양 황고집이라  
 평택이 무너지나 아산이 무너지나

포천 소(疏) 까닭(이라)

살아서는 포천 가야 양반이고 죽어서는 장단 가야 양반이다

작아도 하동 얘기

한강 가서 목욕한다

한강 모래 사장에 허를 박고 죽을 일이다

한강 물 다 먹어야 짜나

한강 물이 제 굽으로 흐른다/간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흘긴다

한강에 그물 놓기

한강에 돌 던지기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있나

한강이 녹두죽이라도 쪽박이 없어 못 먹겠다

한라산 토끼 모양

한라산이 금덩어리/금덩이라도 쓸 놈(이) 없으면 못 쓴다

한수 북산에 썩은 양초 쌓이듯 한다

한양 소식은 시골로 가야 잘 듣는다

(함경남도) 알개

(함경도) 이전투구

(함경북도) 찢락

함양 가서 벼슬 자랑 말랬다

함흥차사

합덕 방죽에 줄 남생이 늘어앉듯(제터 방죽에 줄 남생이 늘어앉듯)

합천 용인사 밥이나

홍길동이 합천 해인사 털어/떨어 먹듯

형산의 백옥이 흙 속에 묻혔다

죽제비 난장 맞고 홍문재 넘어가듯

홍성 가서 말 자랑 말고 광천 가서 돈 자랑 말라

황해도 처녀(라).

황해도 처녀 밤낮을 모른다

황해도 판수 가얏고/가야고/가야금 따르듯

킴킴하고 욕심 많기는 회덕(懷德) 선생(이라)

회덕 송씨 가구락(家具樂)



## 『韩国事情』의 授业内容和 授业方法

이 길 원  
(동아대학교)

### I. 머리말

21세기에 들어서 한국어 학습자의 나라와 지역 그리고 연령과 레벨 등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다양화는 점점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도 다양화되었고 그에 부응해야 할 역할이 또한 크게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움직임과 당면과제로서 부상되어 꼭 다루어져야 할 항목 중의 하나가 「한국사정」과 「한국문화」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한국에 관한 관심의 첫 발걸음에서 한국어의 입문교육이 그 역할을 맡아 준다면 그 입문과 함께 학습내용의 폭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가 본래부터 습득했던 문화와 학습하고자 하는 다른 문화로서의 한국문화에 관한 이해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언어교육만이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국사정과 한국문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내용이라는 면에서 주목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한국사정」이라는 분야는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연구와 교육분야에서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정」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에 한국과 외국의 대학에서의 「한국어·한국사정」 과목 설치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 II. 「한국사정」의 수업내용

#### 1. 과목의 설치

- (1) 한국국내: 정규 유학생(학부, 대학원, 연구생 등)  
비정규유학생(자매대학과건교환단기유학생, 단순어학연수생 등)
- (2) 한국국외: 한국학 정규과정  
교양강좌과정

#### 2. 내용별 분야

- (1) 「한국」 이름의 제목  
한국의 지리·한국의 풍토, 한국의 자연  
한국정치, 한국정당,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의 외교  
한국의 경제, 한국의 경영, 한국의 산업, 한국의 과학기술

한국의 농업, 한국의 어업, 한국의 사회, 한국인의 생활, 한국의 인물, 한국인의 생활습관, 한국의 교육, 한국의 역사, 한국의 법률, 한국인의 언어행동, 한국인의 사회의식, 한국의 연중행사, 한국의 가족, 한국의 사상, 한국의 종교, 한국의 예술, 한국 문학, 한국의 음식, 한국의 스포츠 등

(2) 일반적 내용의 제목

도시와 농촌, 인간관계, 교회와 절, 대학생활, 패션, 선거제도, 식사와 건강, 기업경영, 역사적 인물, 가치관, 생과 사, 마스크, 여가생활 등

3. 수업의 목표

(1)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어학력 강화

· 한글의 기원, 편지쓰기, 소논문 작성법, 산문강독, 한국어의 특징

(2) 일반교양과 전공과목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 자연계(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에서 더욱 중요

4. 수업의 특색

(1)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

(2) 비교·대조적 관점에서 진행

(3) 간단·명료한 내용도 필요(통계 등)

(4) 다양한 교구의 준비

### III. 「한국사정」의 수업방법

1. 강의식

(1) 학습자의 한국어능력

(2) 학습자의 한국에 관한 기초지식

2. 토론식

(1) 토론과 대화(디스커션)

① 한국어 능력

② 문제의식과 기초지식

③ 학습자간의 차이극복(한국어능력과 기초지식)

3. 학습자 발표

(1) 개인, 짝(프로젝트, 연구성과 발표)

(2) 그룹

4. 교재 독해식

- 윤독회(다른 수업방법과 병행)

5. 교재 시청식

- 비디오, 슬라이드, O.H.P, 음성 테잎 등

6. 교외 실습식

(1) 교외체험학습

① 문화활동

- 사물놀이 체험, 한국가요 부르기 등
- 태권도, 씨름 등 체험
- 영화와 연극 관람 등

② 교외학습

- 절, 교외, 산, 바다 등 명소 순례
- 시청 등 공적 기관 방문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 신문사, 방송국 등
- 홈 스테이, 집 방문

(2) 인터뷰, 앙케이트 조사

**IV. 「한국사정」의 전문성**

- (1) 한국생활(연구와 일상생활)의 전제
- (2) 최소한의 지식
- (3) 외국어교육, 다른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V. 맺음말**

(1) 교재

- ① 교재개발의 시급성
- ② 활자교재와 시청각교재
- ③ 교재의 성격을 넓고, 깊게

## (2) 내용

- ① 한국적인 것
- ② 다양한 학습자에게 적합할 것
- ③ 학습자의 필요성에 따른 내용

## (3) 영역

- ① 한국인의 자연·풍토
- ② 한국인의 행동 양식
- ③ 한국적 회사, 인간
- ④ 한국의 종교·예술
- ⑤ 한국의 현대사회

## (4) 「한국어」·「한국어·한국사정」·「한국사정」·「한국문화」

· 교재가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정보로서의 「한국사정」과 「한국문화」의 내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사정」의 문화적 매체로서의 교재개발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겠지만 한국 내에서의 체험학습을 통한 한국사정 알기와 한국문화의 체득이 중요하며 외국에서의 한국사정 학습 환경 조성도 대단히 필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한국사정의 지도법 개선으로서는 교재에 어떠한 한국사정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재 이외의 부교재의 이용과 교구개발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 참고 문헌

<한국의 역사·문화 관련 교재>

지명관. 1985. 「한국문화사」.

국내교재편찬위원회 편. 1986. 「한국사개설」.

박영규. 1996.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Richard Saccone. 1994. 「The Business of Korean Culture」.

Richard Saccone. 1993. 「KOREANS to remember : So Famous People who Helped Shape Korea」.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Republic of Korea. 「Religious Culture in Korea」.

## 북경대 한국어학과 학생에 대한 문화 교육

한 진 건  
(북경대학)

문화란 무엇인가. 1871년 영국 문화인류학자 테러(Tylor)가 그의 저서인 '원시문화'라는 책에서 문화란 정의를 내린 다음으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의는 300여 개나 되었다.

1871년 테러가 내린 문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문화 또는 문명이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사물의 총체이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 사물의 총체는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및 아무런 이가 얻어진 재능과 관습을 포괄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런이란 것은 사회인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정의가 생긴 때로부터 세계 문화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기술학(記述學)적 개념, 역사학적 개념, 범주학적 개념, 심리학적 개념, 구조학적 개념, 발생학적 개념에 입각하여 문화의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이 삼백 몇 십 가지의 정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문화에 대한 공인된 통일적 개념이 없는 것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문화가 내포된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문화란 개념을 서로 달리 규정해 주는 것은 사람마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념이 틀린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관념적 가치 형태의 차이성은 문화 개념에 대한 상이점이 생기는 근본적 원인으로 된다. 그리하여 문화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하면, 문화의 어원을 밝히는 데로부터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최초의 문화란 개념은 인간과 자연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지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 고대의 철인은 문화를 인문화성(人文化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易傳>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문화를 보고서 그것이 세계를 만드는 역할을 가진다는 것이다.(觀乎人文以化成天下)

서양에 있어서 문화란 말은 최초에는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단어의 본디 의미는 <토지 경작> 또는 <동식물에 대한 육성>이라는 것이다. 그 후 그 뜻은 점점 인식되어 <배양>, <교육>, <발전>, <신앙>, <존중> 등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발전은 자연계로부터 출발하여, 인류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사고 방식을 보여 주었는 바, 이것은 서양 문화의 기원은 물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뻔하게 표출되고 있다.

문화란 개념은 점점 연역되어 두 가지 의미상의 이해가 기계 된즉,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와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문화란 유형적 물질과 상대되는 무형적인 정신을 가리킨 즉, 인간의 여러 가지 정신적 현상 또는 산물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랑, 풍속, 습관, 윤리 도덕, 지식과 학문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무릇 물질과 자연계 이외의 모든 것이면 다 문화라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문화 개념에 대한 서로 틀린 이해는 주로 이 넓은 의미에서의 화로부터 생긴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주로 인간의 주체성이 있는 정신 세계에 치우쳤으며,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주로 인간이 개조하는 결과물에 치우쳐 있으므로, 자연계가 인류 사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표징하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전자는 인간을 주체로 하는 주체적 문

화이고, 후자는 자연계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능적 문화이다.

최초의 문화 개념에 있어서 동양을 비롯한 문화학자들은 주체적 문화에 치우쳐 보고 그 정의를 내린 것이고, 서양은 기능적, 즉 객체적 문화에 치우쳐 보고 그 정의를 내린 것이다. 개체적 문화관을 가지는 이들은 문화란 인류 사회의 실천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성과물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은 인류 사회의 모든 문화 현상 또는 정신적 활동이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경험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문화에 대한 개념도 인류 문화 활동에 의하여 생겨진 결과물에만 치우쳐 보는 것이다.

객체적 문화관의 알맹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문화란 것은 사회 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얻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인 즉, 그것은 본능적인 생물학적 유전 또는 선천적 행동 방식과 구별된다. 이 의미에서의 문화는 유기물질을 초월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둘째, 문화란 것은 인간 개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도구이며, 인간의 징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인 즉, 그것은 인간 개체를 초월할 수 있고, 승전할 수 있는 사회적 성질을 띠는 것이다.

셋째, 문화란 것은 단순하고 고립된 여러 가지의 요소의 첨가물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통일체이다. 이리하여 이 의미에서의 문화는 특별한 규칙성을 가지고 인간이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된 것이다. 넷째, 문화란 것은 동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다.

위의 분석을 보고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객체적 문화의 정의는 문화를 인간의 창조물로 보고, 그 창조물을 인간 본체 이외의 존재로 보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정의는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문화란 것은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 이외의 결과물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는 인간 사회의 생존 방식을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빠질 수 없는 능동적 인간이란 요소별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주체적 문화란 개념은 바로 이 차원에서 내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토론하는 것은 정의와 관련된 문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 사고 방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 우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 즉 문화의 주체적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객체적 결과물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배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학생들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문화 교수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국 문화의 발전 역사, 즉 한국 문화의 기원, 한국 문화의 흐름, 한국 문화의 발전 추세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의 포괄적 개관도 배워 준다. 그 다음 한국 문화의 구성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주로 한국 전통문화의 특징, 한국 현대 문화의 특징, 21세기 한국 문화의 패턴 등이다. 이 부분에서 주로 전통문화의 형태, 전통 문화의 구성 원리, 전통 문화를 읽는 방법, 전통 문화의 회복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한국 현대 문화의 특징이란 장에서 주로 한국 현대인의 의식 구조를 놓고 수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서열 의식, 가족 의식, 권위 의식, 의존 의식, 극단 의식, 숙명 의식, 한국인의 한, 한국인의 가치관 등등이다. 21세기의 한국 문화에 있어서 미래 사회의 문화 위상과 문화의 발전 방향을 위주로 해서 수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도 학생들에게 배워 준다. 우리 학생들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중한 교류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실정에 맞추어서 실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대비 분석하는 방법도 배워 준다.

문화란 것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중한 양국의 사회 형태, 사상 의식이

서로 틀린 데 따라, 그 습관이나 처사 방법도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나라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면,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상호간에 알력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성미가 급하고 일을 할 때도 빨리 치워버리는데, 이와 반대로 중국 사람은 성미가 급하지 않고 일을 할 때에도 천천히 하므로, 한국 사람은 이에 눈에 거슬려 중국 사람이 “慢慢的”이라고 평가한다. 중국 사람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 이런 일 때문에 자주 말썽도 생기는 것이다. 때로는 어떤 회사 책임자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직원들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데, 한국 사원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을 다그치고, 중국 사원은 별소리가 많을 뿐 아니라 심지어 태공할 수도 있다. 만약 이 날 밤에 끝내는 일은 당장 필요한 것이면, 불평이 있지만, 욕하지 않는 것인데, 작가 짐작하여 내일 오전에 가서 하여도 되는 일이면, 욕질하거나 그만 두고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권위주의에 의하여 산출된 한국 회사 사원에 대한 욕질, 체벌은 한국 사원은 접수할 수 있지만, 중국 사원은 절대 접수할 수가 없다. 1980년대 중국 광동성에 있는 하나의 한국 회사가 어느 날 직원들에게 계속 야근을 시켰는데, 그 때 어떤 중국 사람이 피곤해서 중간 휴식 때 자 버렸기에 무릎을 꿇으라는 체벌을 받게 되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중국 노동법에 의하여 판결하였는데, 그 한국 회사가 공개적인 사과와 벌금의 처벌을 받았다.

중국 사람은 오랜 동안에 사회주의 제도 아래서 살아왔기에, 권위주의 사상이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 평등사상이 생기게 되었기에, 권위주의를 부리면 그들은 스스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다. 그 때 당시 광동성 그 한국 회사 사장이 나와서 사원을 체벌하는 것은 사원에 대한 사랑이라고 변명하였지만, 도저히 중국 사원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접수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한 양국 간의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그 문화도 점점 접근하고 융합하게 될 것이니, 중한 양국 사람도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21세기는 여러 가지 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시대로 되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의 국정을 보고서 객체적 문화가 활발히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주체적 문화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바꿔 말하면 외계의 사물은 나날이 더 문화적으로 되어 가고 있지만, 사회주체인 인간은 객체적 완벽에서 주체적 삶의 완벽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즉 객체적 문화와 주체적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의 본질은 본능적 충동과 애욕이 충만한 것이다. 그렇지만 인류 문화에 소속된 과학 기술은 개인의 자유, 행복과 대립되는 것인즉, 과학 기술은 발전될수록 개인의 애욕과 본성이 받는 압제는 더 많아질 것이다. 더욱이 공업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인간은 물질과 기술의 압제에 시달려, 물질만 바라고 정신적인 것을 바라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살고 있는 사회 현실만 보고 미래의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기술적 합리성에 의하여 행동하고 창발 의욕과 비판적 정신이 약해질 것이다.

문화 발전의 최고 성취는 인간 심성의 완전한 해방이다. 이러한 해방은 인간이 심리적 압제에서 벗어나고 예술과 미학에 대한 추구로써 인간의 참된 행복을 실현케 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최종 목적이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가르칠 적에 이런 문화 융합기의 문화 충돌의 본질을 밝혀야 학생들은 한국 문화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한국 문화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한 문화의 차이와 한국어교수

태 평 무  
(중앙민족대학)

## 1.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문화의 일반 양상과 중한 문화의 차이 및 그에 의한 한국어교육문제 등을 둘러싸고 필자의 미숙한 견해나마 피력하려 한다.

## 2. 문화의 일반 양상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자기의 견해가 있어 그 종류가 200여 가지나 되며 오늘까지 통일된 견해는 없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문화란 보통 인류가 세계를 개조하는 방식과 능력 및 그에 의해 얻어지는 물질성과와 정신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류가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객관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며 그 도전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해서 인류가 그것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또 그 시대, 그 민족행동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지식수준, 가치표준, 생활태도, 심리상태, 세계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계를 개조하는 방식과 능력이 다름에 따라 그들이 세계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도 다르게 된다. 따라서 세계를 개조하는 능력과 방식은 민족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거기에 문화의 차이가 반영되게 된다. 이러한 문화는 유형의 물질적 형태로 표현되며 정신적으로 내재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광의적 의미에서 말하면 문화는 또 물질문화와 제도문화 및 심리문화의 세 개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문화란 인류가 창조한 여러 가지 물질문명 이를테면 생산도구나 교통도구, 일상생활도구, 건축, 복장, 음식, 주거 등 방면의 것을 말하고, 제도문화는 사회 각종 제도와 생활습관 이를테면 노예제도, 봉건제도, 자본주의제도, 사회주의제도, 생활방식, 혼인방식, 풍속습관, 친족관계, 이름과 휘, 지리, 법률, 예의 등 방면을 말하고 심리문화는 사상관념, 심리적 특징, 사유방식, 종교신앙, 가치관념, 심미관념과 취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의 측면은 어느 하나나 그 민족의 언어의 특유한 성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로 하여 민족마다 자기의 독특한 어음체계, 어휘체계, 문법체계, 수사학체계 등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한 민족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늘 그 민족의 문화와 연계시켜 연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문화의 측면에서 언어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분야를 문화언어학 또는 인류언어학이라고 한다.

## 3. 중국과 한국의 전통문화의 차이

### 3.1 중국의 전통문화

한 민족의 문화의 특성을 한계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벽찬 일이며 그 전모를 반영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그것은 우선 200여 가지나 되는 문화의 정의조차 통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포용범위도 또한 대단히 넓어 그것을 하나의 글에서 정확히 귀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필자의 초보적인 견해나마 천명해보려 시도한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지적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주지하다 싶이 한 민족의 전통 문화 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경제 조건, 정치구조, 사회구조 및 지리적 환경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국 전통 문화의 발생, 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전통 문화로 말하면 우선 중국은 농업국가로서 약 6000년 전부터 농경사회로 들어갔다. 육상교통이 극히 불편하였고 내지 광활한 지역에 활동의 여지가 컸으며 또 과학이 극히 낙후하였던 중국에서는 자급자족의 소농경제가 필연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했으며 개방적인 상업경제가 그리 발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농업사회에서는 근로하고 소박한 민족적 성격과 함께 안정되고 보수적이며 산만한 민족적 성격이 형성되게 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몇 천년 동안의 정치체제와 정치구조는 장기적인 봉건전제주의 제도였다. 그 전제주의는 진시황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2000여 년이 되며 전제주의와 관료기구가 중국전통문화 특히 제도문화에 깊은 역사적 락인을 찍어주었으며 중국을 세계의 주체이며 중심으로 간주하였다. 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적었다고 보아진다.

세 번째로 중국은 종법제도와 가족제도가 보편적으로 성행된 나라로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종법구조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종법의식과 가족의식이 강하다. 중국의 전통 문화는 바로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심리적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다.

네 번째로 지리적 환경도 중국전통문화에 영향이 컸다고 본다. 중국은 아세아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동쪽으로는 바다와 잇닿아 있고 서북쪽은 높은 산과 사막으로 되어 있으며 960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광활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폐쇄된 지리적 환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문화가 발달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멀리 격리되어 있으며 그들과의 교류가 비교적 적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대외에 개방한 적도 몇 번 되지만 개방보다 폐쇄된 시기가 훨씬 더 길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폐쇄된 지리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중국문화는 서방과 다른 폐쇄적이고 자립적인 자기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장시기 동안의 이러한 사회, 정치, 경제, 역사, 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하여 중국의 전통문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으로 귀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보수적이다. 둘째, 정치와 비교적 긴밀히 결합되어 있고 중용사상이 강하며 대중화사상이 짙다. 셋째, 강한 종법가족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효를 중시하고 서열의식이 강하다. 넷째, 예의와 의리를 지키고 신용을 지킨다.

이러한 귀납이 어느 정도 사회현실을 반영할지 필자 자신도 큰 파악이 없다. 여러 분들과의 토론과제로 제기할 뿐이다.

### 3.2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전통문화도 중국문화와의 비교 속에서 아래와 같이 거칠게나마 귀납해 보았다. 우선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도 일찍부터 농경사회의 오랜 시기를 거쳤으며 상업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소농경제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였다. 이러한 농업사회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근로하고 소박하고 산만한 민족의 성격이 형성되게 되었다.

다음으로 한국은 몇 천년 동안 정치체제와 정치구조가 봉건주의제도였으며 외세의 침략도 많

이 받아오고 장시기 동안 봉건속국으로 사대주의 의식이 있으며 정치, 문화, 제도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세 번째로 한국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나라로서 종법제도와 가족제도의 영향이 크고 서열의식이 강하다.

네 번째로 지리적 환경으로 보아 한국은 반도 나라로서 만만디 중국에 비해 개방적이고 외국 의 문물을 접수하는 면이 빠르며 소국으로서의 주체 의식이 부족한 듯 하다.

이러한 사회, 역사적 환경과 경제, 정치 제도 및 지리적 환경은 몇 천년동안 내려오면서 여러 민족들에게 자기 민족의 특수한 문화와 특수한 사유방식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이 언어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외국어교육에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반드시 광범위하고 심입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도 사유형식과 언어형식간의 관계문제로부터 한국어교육의 구체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기초작업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4. 사유형식의 측면으로부터 본 중국어의 고립성

사유란 인간두뇌의 기능이며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활동으로서 언어에 의해 진행되며 사유의 내용과 결과는 또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언어는 인간의 사상교환의 기본수단으로서 언어의 표현형식은 사유활동의 외적형식으로 되며 사상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된다.

사유형식이란 세계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형식으로서 그 기본형식에는 개념, 판단, 추리의 세 가지가 있다. 사유형식은 또 언어형식과 련계되어 있으며 보통 단어로 개념을 나타내고 문장으로 판단을 나타내며 복합문이나 그 보다 더 큰 언어적 단위로 추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이한 언어와 그 언어의 표현형식은 바로 그 민족의 사유형식과 특징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식과 특징을 반영하며 사유형식은 그 자체를 언어에 맡기고 언어는 또 사유활동에 반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어와 한국어의 본질적 차이는 형태가 발달하지 않고 주로 어순과 허사에 의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고립적 성격과 주로 형태변화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교착적 성격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성격은 바로 인식에 대한 사유방식의 차이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래에 고립어와 교착어의 차이로부터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움에 있어서의 일부 문제점을 고찰하려 한다.

##### 4.1 중국어의 고립성과 그 문화적 원인

###### 4.1.1 거시적 측면에서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언어란 사유에 적응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계통으로서 인류는 언어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련계되는 세계를 분리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특정한 어휘계통과 의미적 범주로 고착시킨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우리가 느끼고 인식한 것을 분류하고 개편하며 진실세계에 대한 미묘하고 미세한 차이를 언어의 세련과 거친 정도에 따라 그 감지와 경험을 표시한다.

중국의 전통적 사유방식은 기본적으로 형상적 사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의 특징은 사물

에 대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형상적인 운동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사물모양의 상사함이나 근사함에 의해서 그것을 유형적으로 비교하고 추리하며 그것을 통해 언제나 형상적인 운동과 전환으로 인식의 과정을 완수하는 것이다.<sup>57)</sup> 때문에 비유는 이러한 사유방식에서 극히 중요한 수단으로 되며 사유방식의 일부분으로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구라과 사람들의 사유방식은 문명사회에 들어서면서 기본적으로 이성적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사물을 인식할 때 보통 감성적인 데로부터 이성적인 인식으로 승화시켜 즉 감각으로부터 지각, 표상으로 해서 개념, 판단, 추리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성적인 요인은 언제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형상적인 요인은 차요한 것으로 된다. 사유의 방식과 특징으로 볼 때 중국의 비유가 극히 중요한 표현수단이거나 사유방식이었다면 서방의 비유는 모종의 의미상 언어를 수식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성적 사유는 형상적인 면에서 오는 것을 배척한다.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서방의 비유는 사유방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로부터 한민족의 전통적인 인식과정을 보면 서방사람들처럼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종합적이며 형상적인 비유와 비교의 방법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중국어에는 비유법이 특히 발달하였다. 이것은 서방의 웅변술로 시작되었던 문체론적 표현과는 다르며 사물을 인식하고 묘사하는 하나의 인식론으로 특징지어진다.

인류의 사유방식을 보면 사실상 역사적으로 공동한 기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시적 사유이다. 원시적 사유에 대해 프랑스학자 위.포유얼은 일찍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원시사회의 주요한 특징은 사유의 원 론리성(형식론리법칙에 따르지 않고 모순을 회피하지 않으며 삼투율의 지배를 받는다)을 제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형상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원시민족의 언어는 영원히 사물과 행동에 따라 눈과 귀로 감각한 그러한 형식으로 그들의 관념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는 다른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될수록 말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인디언들은 말을 함에 그림처럼 말하며 우리들의 유형적 분류를 그들은 개별화한다.”(이를테면 ‘개’ 일반을 ‘검은 개’, ‘흰 개’처럼 구체 개를 지적한다-필자주)고 하였다. 원시적 사유는 인류 각 민족의 역사 초기의 공동한 사유방식이다. 그러나 인류가 점차 계몽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그들 각 민족의 사유방식에는 분화가 일어났다. 서방 사람들은 원시적 사유를 벗어난 후 자기의 이성적인 사유방식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사유방식은 또 개인경험의 기초상에서 논리적 운산을 거쳐 추상적이고 방대한 개념의 체계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할 때 개념계통으로 판단과 추리를 거쳐 사물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실현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문명사회로 진입한 후 한 방면으로는 원시적 사유의 그러한 사유방식을 포기하고 저급적인 데로부터 고급적인 데로 도약하였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서방사람들처럼 이성적인 사유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형상적인 사유방식을 취하였다. 즉 원시적 사유의 유형적 비유에 기본적으로 의거하던 사유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원시적 사유를 계승하면서 고급적인 사유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동서방사람들의 사유방식의 기원과 발전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인의 사유방식은 20세기 이전(서방문화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형상적 사유였으며 그것을 우로 소급해갈수록 이러한 특징은 더 심해진다.<sup>58)</sup> 따라서 비유를 중국의 사유방식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방 사람들의 사유방식은 문명사회에 들어선 이후 주로 이성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다.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서방사람들의

57) <中国传统思维方式与汉语修辞>. 江南 徐州师院. 1995. 1期 140页.

58) 우와 같음. 141페이지.



다)와 <为学日益, 为道日损>(학문을 닦으면 지식이 날로 늘어나고 도를 닦으면 가지고 있던 것이 날로 줄어든다) 같이 단음절어로 쓰이기도 하고 <咱们如果不见,就不散>을 <咱们不见不散>(만나지 않으면 헤어지지 말자)로, <我如果不去, 那就不行>을 <我非去不行>(나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과 같이 원래의 복합문형식을 단일문처럼 축약하여 쓰기도 한다. 중국어의 고립성을 말해준다.

중국어의 고립성은 세 번째로 실용정신과도 관계된다. 중국어는 교착어에서와 같은 섬세한 형태적 맞물림이 없어도 그것이 의미적으로 결합되고 사리에 맞으면 하나의 문장으로 될 수 있다. 이를테면 <绿化市容,造福后代>(도시를 록화하여 후대들에게 복을 넘겨주다)에서 <造福后代>는 그저 의미적인 결합으로서 문법에 맞게 제대로 결합되자면 <造福给后代>로 되어야 할 것이다. <军民团结一家亲>(군민이 한집안처럼 단결되다)도 그저 의미적으로 사리가 통함을 전제로 하여 결합된 문장이다. 그것이 제대로 되자면 <军民团结象一家一样亲>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억지공사라는 감이 든다. 특히 보충어(补语)가 산생되기 이전의 중국어에서는 보충어 구실을 하는 문장을 만들 수 없어서 사동화용법이라는 것을 써온 어느 한 시기가 있었다. 예하면 <숙부가 노하다>(叔父怒)는 말은 능동구로서 주술구로 성립되지만 <숙부를 노하게 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叔父怒>로 대체할 수도 없고 해서 <怒叔父>로 쓰고 그것을 <숙부를 노하게 하다>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용법을 중국어 력사문법에서 <사동화용법>이라 한다. 이러한 형식이 현대 중국어에서는 말이 되지 않으며 현대중국어 보충어용법으로 <激怒叔父>로 쓰는 것이다.

중국어의 고립성을 한국어의 교착성과 비교해보면 그 관계가 더욱 뚜렷이 알린다.

	음운수	음절수	형태소수	언어류형	문자형식	표현특징
중 국 어	성모 22개 운모 39개	419개 (성조안 고려) 1332개 (성조 고려) 16-1700개 (실제)	불발달 허사 800여 개 (부사포함) 실제 17개*	s v o 형이 주류 s o v 형이 늘어나는 추세	표의음절문자	교착어에 비해 모호함
한 국 어	자음 19개 모음 21개 받침 27개	10773개 (수학적 통계) 12768개 (실제 가능수)	토 500여개 상용토 300여개	s o v 형 언어	표음음절문자	형태에 의해 표현 섬세함

이상에서 중국어의 고립성을 몇 개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면 아래에 이러한 고립어적 성격을 받아온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한국어학습에서 제기되는 일부 문제들을 간단히 고찰하려 한다.

## 5. 중국어의 고립성으로부터 본 한국어교육에서의 문제점

### 5.1 어순의 영향으로 오는 오류

고립어로서의 중국어는 형태가 발달한 한국어에 비해 보통 어순과 허사로 그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바 이것에 습관된 한족학생들은 중국어의 습관대로 중국어 문장성분을 배열하는 간섭을 받게 된다.

○한국어 발음을 안 잘 배우면 한국어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 부정부사 <안>은 우선 입말형태로 쓰였으며 그것도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没学好韩语发音>에서와 같이 <学好> 앞에서 그 대상을 부정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한국어에 와서 <学好>가 <잘 배우면>으로 순서가 바뀌자 한국어에 와서는 <안 잘 배우면>으로 잘못 처리된 것이다. 한국어의 정상적인 어순은 <한국어 발음을 잘 안 배우면> 혹은 <한국어 발음을 잘 배우지 않으면>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감정이 있는 사람만이 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잘 일할 수 있을것>이란 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미흡한 점이 있다. 그것은 한쪽들이 중국어 <才能干好工作>에서 <干好工作>라는 <동사-보충어, 동사-보어>의 영향을 받아 <好>(잘)와 <工作>(일)를 <干>(하다)의 앞에 나란히 놓았기 때문이다. 잘 되자면 <감정이 있는 사람만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5.2 대격토의 사용에서 오는 오류

형태가 발달한 한국어에서는 같은 대격토라도 직접보어를 가질 때가 있고 기타의 용법을 쓰일 때도 있으므로 경우에 맞게 써야 한다.

○저는 북경대학 학생을 되었습니다.

고립어로서의 중국어는 S V O 형 언어이고 교착어로서의 한국어는 S O V 형 언어이다. 이때 중국어에서의 S V O 형 언어는 O가 직접보어인 경우에 대격토 를/을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학생을 되었습니다>로 된 것이다. 이때에는 결과보어 <학생으로 >로 되어야 할 것이다.

○친구들을 대련에 온다는 소식 들었어요

<온다>는 동사는 대격보어를 가질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주격토 <이>를 써서 <친구들이>로 <온다>의 주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에 다니길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는 대격보어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결과보어로 <다니기로 결정했어요>라고 해야 할 것이다.

### 5.1.2 기타 형태적 표식의 그릇된 이해로부터 오는 오류

형태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어는 그 고립성으로 하여 문장표현에서 형태론적으로 모호한 관계가 초래되며 이러한 사유의 특징은 형태가 발달한 한국어를 배움에 모호한(형태적으로) 사유형식으로부터 섬세한 형태적 표식에로의 전환관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 사유로부터 섬세한 사유에로의 전환과정이 필요하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주격토 가/이와 도움토는/은이나 여러 가지 격토와 도움토를 식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니가도 있습니다>는 주격을 나타내는 대상 <언니>에 쓴 것은 옳지만 <도>가 올 때에는 그것이 도움토로서 주격의 기능도 하면서 또 포함의 뜻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주격도 <가>를 빼버려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기가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에서 <시작하고>는 타동사로서 앞에 오는 것은 반드시 대격을 나타내는 보어가 와야 하므로 <배우기가>는 틀린 것이다. <배우기(를)>로 되어야 한다.

○저는 아버지씨는 대학 교수입니다.

여기서 우선 <아버지>에게 <씨>를 쓴 것은 틀린 표현이며 짧은 단일문에 두 개의 주제부가 설정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이때에는 <저의 아버지는>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저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동물에게는 여격도 <에>를 쓸 것이 아니라 <께>나 <에게>를 써야 한다. <어머님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아서 말했어요(他不慌不忙的说)

여기에서는 <당황하지 않고>로 되어야 한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참가하지 않아도>로 되어야 한다.

○그 여자는 착하기 보다는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그를 좋아합니다.

여기서는 <착하기보다는 예쁜 사람이라서>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얼굴이 선녀만 하다.

여기서는 <얼굴이 선녀 같다>로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문화의 일반 양상과 중한 문화의 차이 및 그에 의한 한국어교육문제에서의 일부 문제를 둘러싸고 거칠게나마 고찰해 보았다. 수준상의 제한과 또한 시간상의 촉박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리라 믿으면서 많은 동문들의 비판지적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참고 문헌

- 《中国民族性》(一). 沙莲香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89.3.  
 《简明现代汉语研究》. 罗安源 中央民族大学出版社. 1999.2.  
 《汉语词类无形式标记的语言与文化成因》. 马啸 辽宁师大学报. 1989. 1期.  
 《从语言接触看中国大陆的封闭性文化》. 陈建民 汉语学习. 1989. 1期.  
 《汉语词汇的思维特征管窥》. 陈月明 宁波大学学报. 1995. 2期.  
 《中国传统思维方式与汉语修辞》. 江南 徐州师院. 1995. 1期.

- <언어학과 사회>. 태평무. 2000. 8. 요녕민족출판사.  
<한국어(조선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대외경제무역대학 한국경제문화연구소 편. 2001.5.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한상복. <한국인과 한국문화의 인류학적 접근>. 신설당. 1989.9.  
<한국어와 한국인의 사고유형>. 정정덕. 마산대 논문집 6-2호.



## - 예절교육을 중심으로 -

문 영 자  
(산동대학 위해분교)

## 1. 서론

인간의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와 민족의 문화가 담겨져 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에 투영된 사회의 문화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종의 의미에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침에 있어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환경이 다르므로 사물을 인식하고 언어를 인지하는 태도와 정도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언어를 문화와 분리시켜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란 사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결합한다. 즉 음성, 어조, 억양, 대화양식,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을 통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창출한다. 특히 어떤 음성과 어조로 말을 하며, 억양의 높낮이는 어떠한가 보여주는 제스처와 얼굴표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대면해서 필히 하게 되는 똑같은 인사말 “안녕하세요!”하는 언어에서, 중국인은 단순하게 머리를 약간 끄덕하는 정도에서 “你好!” 혹은 “您好!”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상체를 30도쯤 굽히고 시선은 발끝에서 1미터쯤의 거리에 두고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한다. 또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예절 역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인은 뒷사람에게 물건을 주거나 뒷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을 때 한 손으로 건네는 것이 결례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예절에서는 이것은 대단한 결례로 된다. 이처럼 간단한 인사에서도 문화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을 한국문화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예절교육과 결합하여 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sup>59)</sup>

## 2. 예절의 정의와 의미

국어사전에서 예절의 뜻을 찾아보면, “예의와 범절 혹은 예법”이라고 적혀있다. 예의란 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한자의 쓰임이 다름에 따라 예의의 뜻도 각각 다르다.

예의(禮意): 예로써 나타내는 경의, 예의 정신.

59) 본고는 산동대학 위해분교 한국어학과에서 학과의 커리큘럼으로 “한국의 예의”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4학년 1학기에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한국의 예의는 1학년에 입학해서부터 4년 간에 걸쳐 줄곧 가르치어 학생들이 예의를 습관화하고 몸에 배도록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예의 자체를 억지로 배우고 익히도록 가르치고 점차 언어와 결합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치며 나중에는 완전히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교육과 예의교육의 병행문제에 대해 다루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예의(禮義):예절과 의리, 사람이 행하여야 할 올바른 예와 도.

예의(禮誼):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예의(禮儀):예절과 몸가짐.

아울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절, 즉 예의범절(禮儀凡節)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와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이 쓰이는 이런저런 배경과 사전적 의미 등을 참조해볼 때 “상대의 연령이나 지위, 상대와의 친소(親疏), 장소에 맞게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예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에 속해있는 나라이다. 유교라는 학문의 근본을 담고 있는 사서(四書: 論語, 孟子, 中庸, 大學)와 오경(五經: 시경, 주역, 예기, 춘추) 중의 주요 경전인 《예기(禮記)》라는 책에는 禮에 대해서 “예란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말로 해석한다면 예절이란 사람들이 서로간에 지키고 행해야 할 버릇이고, 약속이고, 법이다.

예절은 버릇이다. 우리는 흔히 예절이 없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며 무례한 사람은 버릇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버릇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습관이나 관습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버릇과 습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이다.

예절은 약속이다. 서로간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호간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이 또한 예절이다. 약속은 어떤 문서나 형식상 절차를 갖추어 이룬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사람마다 그렇게 하기로 하여 하나의 버릇이나 습관으로 되어버린 약속이다.

예절은 법이다. 국가의 법으로 정해진 않았어도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지키는 규범적인 표현 방식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예절의 참뜻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무수하게 접하게 되는 예절은 “나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하고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어 학습자들을 외국어의 어종에 따라 분류하여 관찰해 볼 때 그들의 얼굴표정, 몸가짐, 옷차림, 목소리의 고저를 포함한 기본자세가 완전히 다름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은 걸음걸이나 인사하는 태도가 다소곳한데 반해 영어학과의 학생들은 걸음걸이나 인사하는 태도가 개방적이고 외향적이다. 비록 섬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인 것이다. 따라서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 3. 예절교육의 내용

예절교육의 내용에는 기본자세, 대화예절, 인사예절을 포함한 생활 예절과 공식생활예절, 국제예절 등이 포함된다.<sup>60)</sup> 한국어 학습자들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안녕하세요!”하는 인사말을 행위예절이나 표정예절과 분리하여 가르친다고 할 경우 효과가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언어 역시 단순한 어휘로만 가르친다면 공손하게, 내심으로부터 우러나

60) 상술한 몇 가지 내용 중에서 공식예절과 국제예절 부분은 본 논문에서 생략했다. 사실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이 외사 관련 기관이나 외자기업에 취직하여 국제사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공식예절과 국제예절은 필히 가르쳐야 하는 내용이다. 학과목으로 가르치는 “한국의 예의”에서는 자세하게 가르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예절만을 주요내용으로 다루었다.

오는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런 내용들을 언어와 행위에 가미하여 가르친다면 언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한국의 문화이해도 도움이 될 것이다.

## 1) 기본자세

기본자세란 서 있을 때의 올바른 자세, 앉았을 때의 올바른 자세, 물건을 주고받을 때의 올바른 자세, 올바른 걸음걸이 등을 가리킨다.

서있거나 앉아 있다는 것이 얼핏 생각해보면 별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별일이 아닌 평범한 자세에서 그 사람의 도덕과 수양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기본자세부터 정확하게 가르치어야 한다.

### ① 서 있을 때의 올바른 자세

서있을 때의 자세에는 남녀가 구별이 있다.

우선 몸의 무게가 양쪽 다리에 고르게 실리도록 서야 하며 발뒤꿈치를 모으고 다리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지런히 붙인다. 이 상태에서 남자는 발끝을 10시 10분 방향으로, 여자는 11시 5분 방향으로 벌린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두 팔을 밑으로 드리우고 얼굴은 똑바로 정면을 향하여 시선은 4-5미터 앞을 응시한다. 눈과 얼굴 표정은 부드러워야 하고 입은 가볍게 힘을 주어 다물어야 한다. 남자는 평상시에 하는 차렷 자세로 손을 양옆의 허리선에 대고 주먹을 가볍게 쥐고 주먹 안쪽이 허리선에 닿도록 한다. 여자는 인사의 기본 자세에서 왼손을 오른손의 아래로 가게 하여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왼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서 포개진 손바닥이 하복부에 오도록 한다.

### ② 앉아 있을 때의 올바른 자세

앉아있을 때의 자세는 의자에 앉을 때와 방이나 마루 등에 앉을 때의 자세로 나눌 수 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가 뒤로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가볍게 앉으면서 의자의 팔걸이나 의자의 양옆을 잡고 앉도록 해야 한다. 일어설 때에도 의자의 팔걸이나 옆을 잡아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의자는 접이 의자가 많기 때문에 앉거나 일어설 때 밑판이 접히거나 퍼면서 소리가 요란하게 날 수 있다. 그러므로 손으로 잡아서 가급적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할 줄 아는 예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앉은 후 남자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여자는 두 무릎과 발을 좌측으로 약간만 옮겨서 다리가 약간 비스듬하게 앉는 것이 좋다. 또 의자에 앉을 때는 자기 몸을 던지듯 털썩 주저앉거나 너무 깊거나 너무 얇게 앉지 말아야 한다. 의자의 등받이에 등이나 허리를 부담 없이 전부 맡기지 말고 몸은 곧게 세우고 앉아야 한다.

### ③ 올바른 걸음걸이

걸을 때는 몸이 흔들리지 않게 몸의 무게와 중심을 다리와 발에 주되 윗몸을 마구 흔들지 말고 발만 옮기는 것이 예이다. 성급하게 몸을 굽히면서 걷거나 상체를 뒤로 젖히고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면서 흐느적거리며 걷는 것은 올바른 걸음걸이가 아니다. 걸을 때 다른 보행자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대화를 하며 걷는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실내에서 걸을 때에는 밖에서 걸을 때보다 보폭을 좁게 하고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걷는 것이 예의이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슬리퍼나 구두를 신고 질질 끄는 소리나 딱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사뿐사뿐 걷는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보폭을 너무 크게 성큼성큼 걷는 것도, 보폭을 너무 작게 종종 걷는 걸음걸이 역시 올바른 걸음걸이와 점잖고 얌전한 걸음걸이가 못 된다. 치마를 입고 성큼성큼 걸거나 꺾충꺾충 걷는다든지, 긴 바지를 입고 바닥을 쓸면서 걷는 자세 역시 삼가야 한다.

계단을 오를 때에는 앞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올라야 하며 두 계단, 세 계단을 한번에 밟으면서 오르거나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급히 걷느라 타인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에는 항상 윗사람이나 여성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의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갈 때에는 노크를 하거나 가볍게 기침을 하여 인기척을 알리고 입실 여부의 허락을 받은 후에 들어가야 한다.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가능하면 두 손으로 가볍게 열고 닫아야 한다. 방을 나갈 때에는 가급적 자신의 뒷모습이 방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걸어나가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과 함께 출입할 때에는 상대방이 먼저 출입하도록 양보하는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물건을 주고받을 때의 올바른 자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에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고 건네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 화보 같은 것을 건넬 때에는 상대방 쪽에서 바로 보이도록 건네야 한다. 칼이나 가위,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건넬 때에는 위험하지 않도록 손잡이 쪽이 상대방에게 향하도록 건네야 한다. 물컵이나 커피잔과 같은 손잡이가 없는 음식그릇을 건넬 때에는 잔이나 그릇의 안쪽, 입이 닿는 부분에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올바른 몸가짐

### ① 얼굴 표정

“나이 40이 넘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했다고 한다. 즉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온 흔적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을 결정짓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얼굴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밝고 명랑하고 온화함이 풍기는 얼굴표정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음울하고 어둡고 쌀쌀함이 풍기는 얼굴표정은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야기하며 멀리하고 싶도록 한다.

마음으로부터 밝고 온화한 인상과 표정을 지어 보이고 매사에 성실함과 진실함과 진지함을 가져야 한다. 너무 가볍게 웃음을 짓는다든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 ② 단정한 몸가짐

몸가짐은 항상 단정하여야 한다. 앉아서 무릎을 펴고 서서 한쪽 다리를 흔들흔들 하는 것은 단정한 몸가짐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두 눈을 두리번두리번 거리거나 방안에 놓인 물건을 이것저것, 요리조리 만져보고,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두 발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은 모두 대단히 결례되는 몸가짐이다. 더욱이 여자들은 다소곳하고 차분하고 얌전한 몸가짐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 ③ 단정한 옷차림

“말에게는 안장, 사람에게에는 옷”이라는 말이 있다. 이토록 옷차림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개성을 살려주며 신분과 품위를 돋우어준다. 옷은 우선 단정하고 깨끗해야 하며 신분과 연령에 어울려야 한다. 나이와 성별, 철에 따라 적당한 옷을 선택하여 착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옷이 개성 표현의 표징으로 된다고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신사는 신사답게 옷을 착용해야 한다. 유명메이커나 고가의 옷만이 그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실용적이고 그 사람의 취향과 신분에 맞으면 좋은 옷이다. 연령에 어울리지 않게 유행을 따르거나, 장소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분하게 야한 옷을 착용하거나 자신의 체형이나 취향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패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패션감각이다.

### ④ 올바른 모발관리와 화장

청결한 머리, 얼굴, 피부, 손발 그리고 적당한 화장은 자신의 건강에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머리는 땀을 흘리는 정도, 직업의 업종과 환경,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3일에 한번 감는 것이 좋다. 아무리 마음이 성실하고 단정한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발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게 된다. 머리모양은 한 사람의 개성을 보여주며 신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너무 요란한 머리모양이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머리모양은 삼가는 것이 좋다.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단정하고 산뜻한 머리모양을 하는 것이 좋다.

화장은 자신에 대한 관리인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화장이란 때와 장소를 가리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해야 한다. 학생이라면 가벼운 스킨, 로션, 영양크림 등의 기초화장에 그치는 것이 좋다. 향수를 적당하게 쓰는 것 역시 제창할 바이다. 그러나 향기가 너무 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두통을 일으키게 하고 불쾌감을 주게 된다. 향수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향으로 선택하며 자신의 취향과 신분에 맞는 향수를 계속 사용하여 자신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향수는 어디까지나 자주 목욕을 하여 깨끗한 몸에 사용하여야 하며 화장솜에 향수를 묻혀서 귀 밑, 목이나 손목 등에 살짝 바르거나 소량의 액을 분무하여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문질러 은은하게 향을 풍기도록 해야 하며 옷 위에 대충 뿌려 얼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3) 인사 예절

한국어 학습자에게 우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인사법이다. 첫 수업시간에 경례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가르치게 되는데 인사말과 결부하여 경례하는 법을 가르친다.

### ① 인사

인사란 상대방이 초면이건 구면이건 할 것 없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쌍방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사소통의 첫 단계를 열었다는 표현으로 된다. 인사성이 밝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됴됨이가 훌륭하다는 표현으로 되며, 또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격적 완성도를 펼쳐 보이는 것으로도 된다.

인사에는 가벼운 목례, 일반적인 인사, 정중한 인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를 할 상대방을 향해서 자세를 바로 해야 한다. 얼굴에는 미소를 담고 입은 다물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마주보면서 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어뜨린다. 의자에 앉아있거나 상체를 굽히는 인사를 하기가 부득이할 때거나 작업 중 또는 물건이나 서류를 양손에 들고 있을 때에는 가볍게 목례 즉 눈인사를 할 수 있다. 목례를 할 때에는 상체를 굽히는 대신 머리만 15도 정도로 살짝 숙여 예의를 표하는 데 얼굴표정을 환하게 할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 복도에서 교수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이런 목례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사는 상체를 약 30도 정도 숙여서 예의를 표하는 인사를 말한다. 남자는 주먹을 가볍게 쥔 손을 바지 옆선에 가볍게 대고 여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포갠 모양으로 가볍게 하복부에 댄다. 남녀 모두 시선을 발끝에서 1미터쯤의 거리에 두되 인사말은 상체를 일으키기 전에 끝내도록 하고 상체를 굽히거나 펴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말은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정중한 인사의 자세는 일반인사와 비슷하되 상체를 더 굽혀서 45도 정도로 숙인다. 부모나 윗사람, 사회적으로 경륜이 높은 분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이다.

악수 역시 인사법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사이다. 악수는 원래 서양식의 인사법이었지만 이미 동양에서도 보편화되었다. 악수는 직장의 상하관계나 동료, 비즈니스로 인해 만나는 사람, 스승과 제자, 친구 사이 등에서 반가움을 나타내고 친절감을 확인하는 인사법의 일종이다. 악수는 반드시 오른손으로 하도록 하며 사회적 덕망이나 경륜이 높은 사람이나 여성이 먼저 청해야 한다. 악수 할 때에는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면서 마주서서 가볍게 손을 잡고 상하로 손을 흔드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 ② 인사말

인사말은 인사를 하는 상황에 맞게, 인사법과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출근하는 아침에 만났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 퇴근할 때거나 서로 헤어질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등 적당한 인사말을 하는 것이 좋다. 동네나 한 학교의 학생들을 만났을 때에는 풋면목이라도 있으면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소개한 후 친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 좋다.

어떤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란 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 타인에게 폐를 끼쳤거나 불편을 주었을 경우에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해야 한다.

## ③ 호칭과 경어

한국어는 경어법이 아주 정교하게 발달되어있는 언어 중의 하나이다. 어느 언어에서든지 경어법이 있게 마련이지만 한국어처럼 존대법과 공경법, 겸양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발달되어있는 언어는 아마 드물 것이다. 한국예절문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호칭을 붙여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예절의 기본을 이룬다.

호칭이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 겸양지덕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 되어있어서 상대를 높임으로써 자신을 낮추는 존칭과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비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존칭과 비칭은 연령, 가족관계, 직급관계, 親熟관계에 따라서 구별된다. 어른이 어린이나 젊은이에게는 “애, 재, 개”라고 부르고 어린이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자네”라고 부른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는 “애, 재”하고 하대를 하지만 자식이 장성하여 사회생활

을 하거나 결혼하여 부모가 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네, 아범” 등의 호칭을 쓴다. 어린이들은 어른이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 오빠, 아저씨, 누나, 언니”라고 부르고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등으로 호칭한다. 또 상사나 윗사람에게는 성씨 뒤에 직함을 붙여 부를 수도 있고, “-님”, “씨”, “분”, “선생”등을 붙여서 부를 수 있다. 높임말은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서 존대와 겸양을 나누어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 4) 대화 예절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 때문에 대화를 떠날 수 없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과 지식을 교환하고 정과 친밀감을 형성시키는 직접적인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대화를 하려면 우선 언어생활의 4대 요소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실제 생활에서 언어비중을 보면, 듣는 것이 45%, 말하는 것이 30%, 읽는 것이 16%, 쓰는 것이 18%라는 통계가 있듯이 듣기와 말하기가 언어의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우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귀 강구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드러운 시선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좇으며 머리를 끄덕여주기도 하고 “네. 그랬군요.”, “맞아요.”, “그래요?”하는 말로 적당한 반응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거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다리를 떨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또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도에서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결례이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듣지 않고 말끝을 가로채어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행위 역시 그릇된 대화태도이다.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우선 겸손한 마음가짐과 올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겸허한 마음과 바른 몸 자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예절이다.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에 따라서 적당한 화제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하며 독단적인 화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대화할 때 차분하고 간결하게 요점을 이야기하는 재치도 갖추어야 하며 순발력과 유머감각으로 상대방에게 재미를 주도록 해야 한다.

대화 도중에 시계를 쳐다보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결례이다. 마치 시간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괜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 5) 전화예절

전화를 하고 받을 때의 예절 역시 한 사람의 도덕과 품위를 보여준다. 전화예절은 전화를 할 때의 예절과 전화를 받을 때의 예절로 나눌 수 있다.

가시전화도 있지만 일반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비쳐지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몸가짐과 옷차림이다. 세수를 하지 않고 잘 다듬지 않은 머리, 여미지 않은 옷차림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은 예절이 아니다. 하품을 하면서, 두 다리를 탁자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 비스듬히 걸터앉아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거나 음식물을 찹찹 씹으면서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은 대단한 결례로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리하는 양호한 습관을 양성해야 한다.

전화는 표정이나 제스처보다는 주로 음성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된다. 음성언어에는 그 사람의 특유의 음색, 강약, 뉘앙스 등 즉 말하는 태도나 버릇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다. 권위적이고 거만한 말씨나 지나치게 아부하는 듯한 말씨, 인정미가 결핍되는 쌀쌀한 말씨는 전화에서 금물이다. 표정이나 자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대화시보다 다정하고 친근감이 넘치는 말씨로, 인격과 교양미가 있는 말씨로, 다듬은 음성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예의이다.

#### ① 전화 할 때의 예절

우선 자기가 걸려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다이얼을 돌린다.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먼저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힌다.

자신이 통화하고자 하는 부서나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부탁을 드린다.

통화 시에는 용건에 앞서 가벼운 인사를 하고 용건을 조리 있게 말한다.

전화는 건 쪽에서 먼저 끊는 것이 원칙이다. 인사를 끝낸 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고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 ② 전화 받을 때의 예절

벨이 울리면 우선 옷매무시를 정리한다.

보통 벨이 두 번 이상 울린 후 왼손으로 수화기를 든다. 오른손은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화기를 들면서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힌다.

상대방이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사를 한다.

전화내용을 확실하게 묻고 메모한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전화를 끊고 난 다음 전화를 끊도록 한다.

만일 전화에서 다른 사람을 찾는 부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고 인사한 후 즉시 본인을 찾아 전화를 넘겨주어야 한다. 본인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고 전달의 필요 여부를 확인 받는다.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경우에는 예의바르게 “전화 잘 못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후 조용히 수화기를 놓는다.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주체를 사람으로 하느냐, 아니면 전화기로 하느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품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전화를 잘 못 걸어온 것이 아니라”, “전화기가 전화를 잘 못 걸어왔다”는 표현으로 전화번호를 틀리게 기억했거나 다이얼을 잘 못 돌린 상대방에게 난감함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자신의 품위도 돋보이게 된다.



#### 4. 결론

영어학부의 한 교수님이 어느 날 강의동 복도 계단을 내리고 있는데 계단을 올라오던 한 남학생이 허리를 굽씩 굽히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한다. 그 학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머리 숙인 모습과 목소리에서 방금 전에 자신이 계단을 올라올 때 계단을 내려가면서 인사를 하던 그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부언하기를 “그 학생은 필히 한국어학과의 학생일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 한국어학과 1학년 신입생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이다. “한국어는 아직 몇 마디 배우지 않았는데 우선 예절을 잘 배웠더라”고 하면서 늘 자신에게 깎듯이 인사하는 학생을 칭찬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어학과의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예절문화도 잘 결합하여 배우고있다는 증거로 된다.

또 한가지 예이다. 같은 기숙사 친구의 어머니가 딸을 보러 오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셨다. 친구들은 친구의 어머니께 “谢谢!(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한창 먹던 한 친구가 갑자기 “만일 한국 친구의 어머니가 이 음식을 가져오셨을 경우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지?”하고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글쎄.”하고 대답하는 친구가 대부분이었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고 하는 친구가 몇 명 있었다. 이튿날 선생님께 문의하는 학생에게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다 먹고 나서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이 인사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정서를 일대일로 확실하게 번역할 수 있는 중국어를 찾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언어예절과 예절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과 어려움을 말해준다.

본고는 지금까지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해보았다. 예절교육과 언어교육을 결합시켜 진행하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몸에 배도록 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에서부터 기본자세, 인사예절, 대화예절, 전화예절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어휘에 내포된 문화의 의미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어교육자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김효영. 2000. 공직생활과 예절. 교문사.  
 박양문. 1998. 한국인의 예절보감. 좋은글.  
 박갑수. 1999.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집문당.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강 승 혜  
(연세대학교)

## 1. 머리말

## 2.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연구 동향

- 2.1 연구 주제별 연구동향
- 2.2 연구 유형별 연구동향
- 2.3 학습자 대상별 연구동향

## 3. 한국어교육 대상으로서 한국어 학습자 집단

- 3.1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 학습자 분포
- 3.2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변화 추세

## 4.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분석

-중국 학습자와 일본 학습자의 비교-

- 4.1 연구절차 및 방법
- 4.2 연구결과

## 5. 맺음말

참고 문헌

이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언어는 한 사회의 문화적 산물의 일부분이므로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다.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문화적인 내용을 함의하게 되므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문화를 부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반대로 효율적으로 언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반영된 문화, 언어와 관련된 문화를 지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데서도 어떻게 한국 문화를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수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주된 내용은 문화 교육의 교수요목에 대한 것이며, 문화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일부 논의되었다. 그 결과 전통 문화, 유산, 문학, 예술 작품 등에 중점을 둔 문화 학습에서 이제는 실생활적인 정보와 전달에 대한 문화 교육의 비중을 늘리고, 학습자 체험을 통한 다양한 문화 학습들이 교과과정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sup>61)</sup> 이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다루는 것은 선택적인 특정 사항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 전반에서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구성할 것인지, 언어 수업 내에서, 언어 수업 밖에서 문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본 논문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다양한 유형 중 언어와 문화의 통합 모형에 한정한다. 언어와 문화의 통합 모형은 한국어 교육자가 담당해야 할 문화 교육 몫이며, 현재에도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어느 현장에서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 교육 모형을 숙련도에 따라 살펴보고 언어 교육 방식과 문화 정보가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수업의 실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에의 접근

### 2.1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

언어는 공통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 간의 의사전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집단 문화의 일부이다. 즉,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의 중심인 동시에 그 밖의 문화적 측면인 생활양식, 사고방식, 사회제도, 관습 가치관을 뚜렷이 반영한다. 결국 언어는 특정 언어를 향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양상을 소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문화를 모르고 언어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1)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고려하여 과거에 전통문화 중심의 문화 교육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문화 소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나, 노래를 통한 문화 교육의 방법의 제시 등 새로운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적 측면의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문화적 측면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낸다.<sup>62)</sup>

한국의 문화를 언어 교육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현식(2000)은 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문학 교육, 국어생활문화 교육'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한국문화 소개, 한국어 생활 문화 교육'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국어와 한국어는 모두 문화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국어가 자국의 문화적인 수준의 함양이나 전달이라면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동화, 학습자 자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구성, 이해 등을 포함한다. 특히 한정된 교육과정 내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언어 능력 배양이라는 근본적인 학습 목표 바탕 위에서 교육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에의 접근도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학의 일부로서 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과 언어 교육의 일부로서 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구별된다. 국내의 한국어 교육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는 대학의 한국학의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국외에서는 한국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구조를 학습하며, 한국의 전통문화, 문학작품의 이해와 번역 등이 교육된다. 즉, 한국어를 한국학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문화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법, 문화 교육의 목표, 내용, 교육 방법에서의 차별을 가져온다.

## 2.2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내용

문화는 일정 집단의 외형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습관, 관습 또는 물질 등으로부터 그 공동체 성원들의 이념, 신념인 가치 등으로 나타나는 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넓고 다양하다. 인간의 모든 생활에 걸쳐 다양한 물질적, 정신적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에 적합한 외국 문화 내용을 선정하여 조직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문화간 이해를 위한 외국어 교육에 도입할 문화 내용은 학생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실들로부터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언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언어 교육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문화의 개념으로 Nelson Brooks(1964:83)의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5가지 문화를 참조할 수 있다.

- 문화 1: 생물학적 성장
- 문화 2: 개인적 교양
- 문화 3: 문화와 예술
- 문화 4: 생활 유형

62)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해서 문화의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문화 학습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한다.

## 문화 5: 생활 방법의 총화

즉, 문화란 태어나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모든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과 함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진 생활 방식에서 얻어지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 중에서도 초기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화 내용 지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문화 4' 즉, 모든 생활에서의 개인의 태도와 품행 규칙의 표본을 가리키는 일상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일 것이다.<sup>63)</sup>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그 문화권에 있고 이것이 바로 문화 충격의 근원이 된다. 한정된 언어 수업으로는 '문화 1'부터 '문화 5'까지에 걸친 전 학습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급 단계에서는 '문화 4'를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숙련도에 따라 '문화 3, 5' 등으로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Chastain(1978: 388)은 문화를 "소문화"와 "대문화"로 구분하였다. 소문화란 예술, 철학, 문학 등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전체 구성원들의 뛰어난 업적과 사회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사 또는 위대한 영웅, 정치가,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예로 외국의 지리, 주요한 역사적 사건, 건축물, 문화예술작품 등이 포함된다. 대문화란 소속된 전체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관습, 사상, 가치관 등 타 문화권의 국민들과 문화적 특징을 구별지을 수 있는 행동유형과 생활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이에겐 몸짓, 행동, 먹고 인사하며 이야기하는 등의 능동적인 면과 결혼, 정치 풍토에 관한 수동적인 면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으로 전환되기까지 대문화가 문화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외국어 교육의 목표도 목표 국가의 문학작품 감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학작품의 해석을 위해 교실에서의 외국어 수업도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주로 채택되었다. 대문화와 소문화 차이점은 전자가 주로 과거를 취급하는 데 비해 후자는 현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소문화에서 대문화로의 확대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Hammerly(1986: 513)에 의하면 문화는 언어 목적에 따라 행동문화, 정보문화, 성취문화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정보문화는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모국어 화자들이 사회, 지리, 역사, 영웅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을 의미한다. 행동문화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을 뜻하며, 한 사회에서의 특정한 행동 양식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심리적, 신체적), 환경(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등)과 전통의 상호작용이다. 성취문화는 편지, 미술, 음악 등 어떤 사회의 예술적, 문화적 업적에 관한 내용이다. Hammerly는 이들 중 행동문화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형태로 외국어 학습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행동의 유형(대화의 관용적 표현과 몸짓법 등)을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따를 때 초급 단계에서는 Brooks의 문화 4, Chastain의 소문화, Hammerly의 행동문화와 일맥상통하는 표층적인 일상생활 문화가 일차 대상이 될 것이다.<sup>64)</sup> 그리고 중급, 고급

63) Brooks는 이 항목을 형식문화(Formal Culture)와 심층문화(Deep Culture)로 구분한다. 형식문화는 사회 내의 한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과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어떤 개인이 선정되고 집단의 주의를 그에게로 집중되며 그의 지위 및 업적에 대한 논평도 있게 된다. 생일축하, 학위수여, 약혼, 결혼, 장례식 등이 그 보기로 들어져 있고 심층문화는 어릴 때부터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형성되는 것으로 형식 문화에 비해 훨씬 모호하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개인은 점차 관찰하고,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층문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 그 문화권에 있고 이것이 바로 문화 충격의 근원이 된다.

64)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화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는 성기철(2001), 조항록(2000)에서도

단계로 가면서 기타 문화 내용이 교육에 포함될 것이다.

### 2.3 언어 교육과 통합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의 문화를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학습의 범위로 다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언어 교육자가 모든 문화 교육에 책임을 질 수 없음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육 목표와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문화 교육은 세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첫째, 교실 내 언어 수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수업 또는 계획되지 않은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교실 밖의 수업으로 현장 견학(박물관, 고궁, 민속촌, 기타 역사적인 장소 등), 특별한 문화 행사(절날 행사, 연극 대회, 수학여행 등)로 진행되는 것이다. 셋째는 '문화'가 하나의 교과목으로 운영(한국 문화, 역사, 예술사, 철학과 종교 등)되는 것이다.<sup>65)</sup>

문화 수업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 한국 문화 교육은 한국어 수업의 일부로 교실 내에서 이루어져 한국어 교사의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수업의 형태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은 언어 교육을 일차 목표로 하고, 문화적인 요소의 교육을 병행하는 구조이다.<sup>66)</sup>

한국어와 통합된 문화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민현식, 2003).

- 문화 교육을 통해 언어 습득과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 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적인 표현을 학습한다.
- 목표 문화와 모어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적인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 목표 문화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얻고 정리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러한 문화 교육의 목표는 한국 문화 요소를 학습함으로써 언어 사용에 필요한 일상적인 문화에서부터 언어에 포함된 문화 내용, 나아가서는 문화에 대한 비판과 평가 능력까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언어수업 내에서 고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찾아볼 수 있다. 성기철(2001)은 초급이나 중급에 반영될 문화요소의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의 기여도이며, 구체적인 하위 기준으로 일상성, 한국 생활 적응 단계, 언어 활동과의 통합성, 차별성, 이해 난이도라고 하였다. 조항록(2000)은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초급의 문화 교수요목을 일상생활 문화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65)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에서 고급 단계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6) 기존의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 중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에 대한 논의로 김정숙(1997)은 언어학습은 언어와 문화의 상호 교육 작용이므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인 교육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교육은 초급 단계에서부터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문화 교육에서 실제적인 자료의 활용에 대해 언급하고, 문화 교육의 절차가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교육 목표에 부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성기철(2001)은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의 일환이므로 언어 교육과 관련된 '언어 통합', '언어 분리'로 분류하였다. 정규 언어 교수 학습에 통합하는 방식은 문화 요소를 어떻게 언어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완전 통합과 부분 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언어 자료 자체가 완전히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언어 자료 가운데 문화 요소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경우이다.

한상미(1999)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인 방안을 위해서 의사소통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문화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방법으로 참여 관찰(Participation-Observation), 관찰(Observation), 통찰(Introspection), 면접(Interview) 등을 제시하였다.

문화 교육 내용이 언어와 통합될 때에는 어떤 형태의 수업으로 잉태될 것인가. 문화 교육은 각 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언어 교육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들이 교육될 것이며, 문화 교육의 전달, 이해 등의 수업 내용은 언어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수업 내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구조화 될 것이다. 또한 문화 정보의 획득은 언어와의 통합 방식으로 활용되어 최종적으로 언어 능력 향상을 꾀하는 활동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통합 교육은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표면적인 통합이 아니라 언어 기술과 언어 기능, 언어 교육의 목표가 문화적인 정보 획득, 문화 활동과 결합되면서 통합적인 교육의 형태로 반영될 것이다.<sup>67)</sup>

### 3.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모형

#### 3.1 통합 교육 원칙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방법론을 점검하고 통합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 문화 교육의 내용 선정과 지도 방법은 주된 언어 교수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으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문화 항목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 교육 자체도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한다.
- 문화 교육 항목은 언어 학습의 목표와 직결되는 것으로 한국어의 이해와 사용에 필수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언어를 사용할 때 문화를 알아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물건사기, 약속하기 등)이 일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언어에 포함된 문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의 사고를 함축하는 문화 등의 순서로 교육한다.<sup>68)</sup>
- 문화 교육 항목은 언어 교육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인지를 도울 수 있다.<sup>69)</sup>
- 교육 자료 구성 시 유의할 점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습자의 정서에 맞고 현실 생활에 일치하는 내용을 소재로 한다.
  -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언어 학습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 모든 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술한다.
- 문화 내용의 전달을 위한 텍스트 자료는 내용 중심의 교수법에 바탕을 두고 교육한다.

67) 중·고급 단계에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중문화 교육, 문학을 통한 문화 교육,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언어와 문화 통합, 강의나 강연을 통한 문화 교육 등으로 언어 수업 유형이 다양화될 것이다.

68) 다음은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에 수록된 문화 교육 항목이다. 초급 단계에서 일상생활문화 이외의 전통문화가 다루어진 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나 단계에 따라 언어 문화, 정신 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문화 항목 교육은 문화 교육과 함께 언어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므로 문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언어 요소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 교육은 문화 정보의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언어적인 활동으로 구상한다. 이러한 수업 구조는 크게 '준비 활동 - 준비 활동 - 문화 전달, 이해 활동 - 언어 통합 활용'가 될 것이다.<sup>70)</sup>
- 문화 전달, 이해 활동과 언어 통합 활용은 언어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 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구상한다.

### 3.2 통합 모형

문화를 선정하고 배열하고 교육하는 것은 여러 기준을 따를 수 있겠으나 언어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배합한다면 초급, 중급, 고급 단계로 분류하는 것이 수월하게 교육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단계	항목명	교육 내용	비고
1단계	쉽터	한국인의 이름, 숫자 4, 한국의 옛날 집, 가족의 호칭, 주부들의 주말, 한글과 세종대왕, 가마, 돌과 회갑, 태권도, 식사 예절,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백의 민족, 옛날의 일기예보, 바람맞다, 한국인의 여가 활동	일상생활문화, 전통문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대표적인 상징
2단계	쉽터	한잔하러 갑시다, 서울, 신라의 예 수도 경주, 토정비결, 한국의 돈, 김장, 보약, 한국의 전세 문화, 12간지, 관상, 화문석, 민박, 긴급구조대 119, 책거리, 집들이 선물	
3단계	언어와 사고	동물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 색채 언어, 높임말, 비문자 언어, 한국인의 인사 습관, 맛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 한국인의 사고와 떡, 외래어, 몸짓 언어, 말과 관련된 속담, 사투리, 은어, 의성어·의태어, 감탄어, 지명과 관련된 관용 표현	한국 언어에 반영된 문화
4단계	이야기 주머니	형님 먼저 아우먼저, 열녀 춘향, 놀부 심보, 온달 콤플렉스, 효성 다한 호랑이, 효녀 심청, 팔귀 엄마, 금도끼와 은도끼, 도깨비 방망이	전래 동화를 통해 본 한국의 정신문화

69) 교육 자료로 구성한다는 것은 교사의 구두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쉽터'(이화여대 교재), 'Cultural Components'(서강대학교 교재), '한국의 문화'(경희대학교 교재) 등의 문화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70) ① 준비 활동: 문화 내용에 대한 소개로 동기를 부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이다.

② 문화 전달, 이해 활동: 교사의 설명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달, 체험 등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문화 내용에 따라 듣기, 말하기, 읽기 등의 언어 기능이 활용되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화 정보를 탐색할 수도 있다.

③ 활용: 토론, 역할극, 인터뷰하기, 보고서 작성 등 학습한 문화를 언어 기능과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그 밖에 학습자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심화 학습은 학습자가 선택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는 관련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 문화 학습은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문화 정보의 이해 차원에서 나아가서 문화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고급 단계로 갈수록 문화 학습과 언어 학습의 통합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강한 결속력을 갖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고급 단계로 갈수록 언어를 사회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교육 모형이 필요하다.

### (1) 초급 단계

초급 단계의 특징은 한국어와 일상생활 문화의 통합 구성이라는 점이다. 한국인의 행동 양식, 언어 사용 환경 등의 문화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초급 단계에서의 통합은 활용 단계에서 ‘물건 사보기, 약속하기’ 등 역할 극을 형태로 연습될 수도 있으며,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등 구체적인 활동 학습 유형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3.1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수업 모형을 따라 구성할 수 있다.

#### <예시 1> 일상생활 문화와의 통합: 식사 문화

- ① 준비 활동: 한국인과의 식사 경험을 말하거나 한국의 음식문화, 식사 예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식사 문화로 접근한다.
- ② 문화 전달, 이해 활동: 교육 자료를 읽거나 교사의 설명을 듣거나 관련 그림이나 영상 자료를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③ 활용: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서 말하기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실제로 행동해 보기 등을 통해 학습한 문화 내용을 활용한다.

### (2) 중급 단계

초급 단계에서 학습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사의 방향성과 문화 지식의 전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학습자 중심의 문화 수업이 가능하다. 중급 단계의 문화 교육은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문화 내용을 선정하여 직접 조사를 거쳐 스스로 지식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될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와 요구를 바탕으로 하며,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체와 교육 방법 등이 필수적이다.<sup>71)</sup> 문화 교육의 내용은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점점 한국어와 한국인의 사고에 반영된 문화 요소까지로 확대된다.

#### <예시 2> 인터넷을 활용한 ‘경주 문화 정보 탐색’

- ① 동기 유발 단계: 준비된 자료로 간단한 기초 정보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 ② 과제 선정 및 분담: 경주의 여행 정보, 유적지 정보, 음식 문화 등 과제를 선정하고 소그룹 활동으로 또는 개인 작업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 ③ 정보 조사: 인터넷을 활용하여 한국어 사이트에서 또는 모국어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 조사한다.
- ④ 토론 및 발표: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어로 발표하고, 새롭게 알게 된 문화 정보에 대해 토론한다.

71) 문화교육은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정의적인 요인과 많은 관련이 있다. 특히 정의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자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과정에서 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 &lt;예시 3&gt; 언어에 반영된 문화: 의태어

## (3) 고급 단계

고급 단계는 문화 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극대화되며, 문화 교육의 목표도 정보 획득에서 나아가서 문화에 대한 비교 고찰, 평가 등의 기능이 확대된다. 또한 언어와의 통합 방식도 표면적인 통합이 아니라 언어의 네 기능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며, 통합적인 모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 모형은 문화 교육을 위한 언어 교육도 아니며, 언어 교육을 위한 문화 교육도 아닌 두 교육의 완전한 통합인 것이다. 이러한 수업의 대표적인 예는 프로젝트를 이용한 언어 문화 교육,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중 문화 교육 등이다.

## &lt;예시 4&gt; 프로젝트 작업을 통한 언어 문화 교육

프로젝트 수업이란 하나의 연구 과제를 완성해 내는 작업을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습자는 목표로 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완성하기까지의 일련 과정을 책임지고 실행한다. 간단한 거리 인터뷰, 안내문이나 광고문 구성, 신문 기사 재구성 등에서부터 신문, 잡지, 리플렛, 비디오 등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전시회 등을 기획할 수도 있다. 주제도 학습자의 관심에 따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하게 선정한다. 문화 관련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잡지 구성, 리플렛 제작 등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고급 단계의 모형이다.<sup>72)</sup>

프로젝트 수업은 '교실 내→교실 외→교실 내'의 과정을 거치므로 사회 맥락에서의 적절한 언어 사용을 유도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업에서 언어적인 필요 요소는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되므로 문화 관련 프로젝트는 문화 연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언어 교육 내용은 부차적인 요소로 선정된다. 프로젝트 수업은 '자료 수집 및 검토', '정보 대조 및 자료 정리'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간에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토론이 이루어진다.<sup>73)</sup>

- ① 한국 문화 소개 잡지 "시간 여행 - 한국 전통의 美를 찾아서": 오늘날에 남아 있는 한국 전통 문화를 학습자들이 취재하고 기사화하여 구성한 잡지이다. 무속 신앙, 전설, 명절, 전통 음악의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sup>74)</sup>
- ② 유학생을 위한 생활 정보지 "걱정 마세요! 한국 생활": 한국의 유학생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필요한 생활 정보를 책자로 구성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72) 프로젝트 수업은 대부분 네 가지 언어기술의 통합하여 완성하게 된다.

73) 실제로 프로젝트 작업 후 평가회에서 학생들의 소감을 물어 보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자신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인의 깊은 사고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곤 한다.

74)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종이, 바위'라는 제목의 무속 신앙 부분에서는 마을의 수호신 장승에 대한 설명과 장승제의 현장 취재 기사, 소지 키우기에 대한 전통, 인왕산 바위에 간직한 한국여성의 비밀 등의 기사를 실고 있다. 한국의 전설에 대해서는 '신비한 전설이 살아 숨쉬는 - 전등사'를 대상으로 전등사 여행일기, 나너상에 새긴 전설, 은행이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에 얽힌 전설, 학생들의 여행 느낌 등을 촬영 사진과 함께 실었다. 명절에 대한 부분은 현재에도 살아 있는 대보름을 대상으로 하여 대보름의 볼거리(공연 취재 기사), 먹거리(대보름 음식)를 체험을 통해 기사화 했다. 전통 음악으로는 판소리를 소개했다.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판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란은 판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판소리의 유래와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판소리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또한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판소리 CD나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살아있는 정보를 유학생의 시선으로 기술하게 된다.<sup>75)</sup>

#### <예시 5>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 언어 문화 교육

대중매체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고급문화 중심의 문화 접근법으로는 보편적인 삶의 다양한 의미와 표현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현대의 대중문화와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박기범, 2001:3).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문화 교육은 신문, 잡지, 비디오, CD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영화, 드라마, 뉴스 등 학습하는 형태이다. 이 문화 교육은 '현재의 문화'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며, 학습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매체와 문화 내용이므로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중 매체를 활용한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은 수업의 일부(현장학습 등), 또는 교육 자료의 일부에 포함되는 방법, 별도의 교과과정으로 구성하는 방법, 과외 활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대중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언어 교육과정으로 포함될수록 언어 교육적 측면이 강화되고 외부로 갈수록 문화 향유의 측면이 강해진다. 또한 교사의 권한이 강한 교사의 통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입력으로 확대되어 과외 활동으로의 구성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문화 활동을 향유하게 된다.<sup>76)</sup>

그 한 예로 영화는 살아있는 실생활 담화를 담고 있는 교육 자료로서 학습자들은 언어 교육의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향유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장르이다. 영화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사상, 세계관 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영화를 통한 수업은 하나의 문화 수업이 된다(이정희, 1999:225)<sup>77)</sup>

- ①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 ② 광고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 4. 결론

75) 주거에 관한 정보, 은행 업무에 관한 정보, 비자에 관한 정보, 교통에 관한 정보, 쇼핑에 관한 정보, 휴대폰에 관한 정보, 인터넷에 관한 정보,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담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체험기도 실고 있다.

76) 최근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의 대중문화 자체를 향유하기 위한 것에서 언어학습의 동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어도 많은 학습자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희망한다.

77) 영화 선정에서 유의할 점을 이정희(1999)는 8가지로 제시하였다.

- 방언이나 비속어가 많이 나오는 영화는 피한다.
- 발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좋지 않다.
- 영화의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 발화 상황이 한정되어 있는 영화는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한다.
-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여야 한다.
- 만화영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영화는 적절하지 않다.
-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영화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작품들로 101번째 프로포즈, 접속, 편지, 올가미, 박봉권 가출사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축제(동화가 삽입된 부분), 미술관 옆 동물원을 제시하였다.



## 참고 문헌

- 김영숙 외. 1999. 영어과 교육론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김정숙. 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 라혜민·우인혜. 2001. 중급 교재 내의 문화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1차 국제학술회의 발표 요지 모음집.
- 민현식. 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 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2003년 겨울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박기범. 2001. 영화의 문학교육적 수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 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5.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 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배두분. 2002. 영어교육학 총론. 한국문화사.
- 배현숙. 200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성기철. 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미혜. 2001.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고급 과정 수업 모형.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정원·최옥경. 2002. 영어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지도. 외국어교육 9-3.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이정희. 1999. 영화를 통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 2000.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외국어교육 7-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조향덕. 2001. 외국어 수업에서의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 외국어교육 8-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조향록. 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 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향록·강승혜. 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발(1).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상미. 1999.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 -의사소통 민족지학 연구방법론의 적용.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Brooks, N. 1964.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regents.
- Fried-Booth, D. 1996. *Project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fayette, R. C. 1978. *Teaching Culture: Strategies and Techniques. Language in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 Arlington, Va: The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elye, H. N. 1976.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Foreign Language Educators*. Skokie,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
- Taylor, M. G. 1980. Song as a linguistic and Culture Resource in the Intermediate Italian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6.

## 홈페이지 프로필을 활용한 한국어 작문 교육에 대하여\*

김 영 만  
(서울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의사소통 양식에 변화가 오고 있음에 주목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작문 교육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말 그대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개인과 사회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사 전달과 수용에서는 기존의 인쇄 매체와는 달리 많은 정보가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는 기존 인쇄 매체가 지니지 못한 새로운 표현상의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인터넷 강국 중의 하나인 한국의 사회적 특성<sup>1)</sup>을 감안한다면 하이퍼텍스트<sup>2)</sup>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을 수업 현장에 도입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흥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 홈페이지 프로필을 활용하여 한국어 작문을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나간다.

### 2. 하이퍼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작문 교육의 필요성

근래에 들어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 삶에서 또 다른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별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의 생산과 전달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의 인쇄 매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성과 개방성, 다양성 등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는 기존 인쇄물의 선형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노드 단위의 구조로 연결된 비선형적 텍스트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인쇄물이 순차적, 선형적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하이퍼텍스트는 비순차적, 상호작용적, 가변적, 다층적이다. 다시 말해서 하이퍼텍스트의 경우는 많은 정보들이 노드 단위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커다란 망 조직(Network)을 이루기 때문에 일정한 선택 경로가 있다기보다는 독자가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정보를 탐색해 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텍스트이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것인지, 어느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는 경우마다 독자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하이퍼텍스트의 이런 특징은 학습자의 작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 선정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언어 문화 교육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임.

- 1)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별히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98.1%로 가장 높으며, 대학생이 97.5%, 고등학생이 97.1%, 초등학생이 91.3%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20)
- 2)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개념은 2장을 참조.

특별히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10대와 20대의 컴퓨터 사용률이 모두 90%를 넘는다. 이제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개성과 개방성, 속도성 있는 의사소통은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되어 버린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이고 사변적인 내용뿐 아니라 공문서도 화일 형태로 저장되고 전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국어 작문 교육에서 학습자가 전하려는 내용과 목적, 전달 매체에 따른 특성 있는 작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사 표현과 전달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다변화하는 이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 방법과 내용도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3.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

하이퍼미디어<sup>3)</sup> 환경이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인간의 의사소통 양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하이퍼미디어는 한 가지 매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매체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정보들이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달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이퍼텍스트는 무경계성, 다연결성, 다층성 등이 특징이며, 일반 펜 작문과는 또 다른 특이한 양상을 띠게 된다.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소개와 관련된 펜 작문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실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같은 강좌를 듣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을 쓰도록 하였다.<sup>4)</sup> 실험 결과, 학생들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글을 A4용지 크기의 종이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교적 잘 정돈되고 짜임새를 갖춘 글을 작성하였으며, 문장의 완성도도 높았고 비어나 속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서 개인 홈페이지의 프로필은 핵심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흥미나 정보 중심의 구성을 보인다. 다음은 대학생의 개인 홈페이지 프로필 부분이다.

이름	양기석
나이	21세
생년월일	1983년 3월 5일

(중략)

주성분	인간성 80% 뇌세포 5% 소심 5% 그외 기타 불순물 10%
유통기한	이미 지난지 오래..(제조일로부터 20여년 지남)
주의사항	방명록 게시판에 글마니 남겨주세요...
의장등록번호	830301-1xxxxxx
소비자상담실	있는데 테러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폰번호 못밝혀 ㅋㅋㅋ

3)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hyper)와 미디어(media)가 결합된 것으로 하이퍼는 비선형적 유통을 말하며, 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매체를 의미한다.(이채연, 1996: 492)

4) 자기 소개에 대한 펜작문 실험은 2003년 6월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관 503호에서 이 대학 재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중략)

(<http://since991121.finesugar.com>에서 인용)

홈페이지에 실린 프로필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연결된 하나의 글이라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의 나열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문장 위주의 구성이 아니라 단어나 핵심어를 나열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글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자신의 삶이나 경험, 특기 등을 위주로 전개해 나가는 펜 작문과는 달리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표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펜 작문을 실시한 후에는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 분포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 연령 분포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합계
빈도	1	21	27	26	16	8	5	3	4	1	112
퍼센트	.9	18.8	24.1	23.2	14.3	7.1	4.5	2.7	3.6	.9	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설문 대상자들의 연령은 만 20세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1세, 19세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세 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종류

	자료/정보 검색	전자우편	채팅	메신저	게임	동호회(커뮤니티)	전자게시판	영화, 음악, 동영상 감상	사이버 문학 감상	인터넷 신문, 잡지	학습(강의, 수강)	합계
빈도	88	63	1	57	16	55	2	37	1	13	3	336
퍼센트	26.2	18.8	.3	17.0	4.8	16.4	.6	11.0	.3	3.9	.9	10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설문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자료 및 정보 검색으로 드러났다. 또한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17%를 차지해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채팅을 사용하는 경우는 0.3%로 나타나 채팅 서비스를 메신저가 대체해 나가는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lt;표 3&gt;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합계
빈도	18	51	33	6	2	2	112
퍼센트	16.1	45.5	29.5	5.4	1.8	1.8	100.0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45.5%가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29.5%로 2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경우 계획하기에 비중을 두며, 충분히 글의 내용에 대해 구상하는지를 펜 작문과 비교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lt;표 4&gt; 하이퍼텍스트 작문과 펜 작문 시 구상의 정도에 대한 비교

	매우 많이 구상하지 않음	많이 구상하지 않음	비슷하게 구상함	많이 구상함	매우 많이 구상함	합계
빈도	7	69	29	5	1	111
퍼센트	6.3	62.2	26.1	4.5	.9	100.0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펜 작문 시보다 하이퍼텍스트 작문 시에는 구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우 많이 구상하지 않는 경우와 많이 구상하지 않는 경우를 합한다면 약 68.5%로 하이퍼텍스트 작문 시 펜 작문보다 구상을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lt;표 5&gt; 하이퍼텍스트 작문 시 구상을 덜 하는 이유

	컴퓨터 앞에 앉으면 키보드를 치는 게 습관이 되어서	편집(수, 정, 삭제, 첨가)하는 것이 쉬워서	컴퓨터에 올리는 자기소개는 간단한 게 많아서	인터넷 접속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고려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 집중하기 어려워서	기타	합계
빈도	10	32	29	1	4	1	77
퍼센트	13.0	41.6	37.7	1.3	5.2	1.3	100.0

위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하이퍼텍스트 작문에서는 편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구상을 덜 하는 경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프로필은 간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37.7%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프로필은 펜으로 쓰는 자기 소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또한 컴퓨터 앞에 앉으면 뭔가를 쳐내려 가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응답도 13%를 차지해서 펜 작문보다 컴퓨터라는 환경이 필자들에게 생각하기보다 직접 쓰게 만드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하이퍼텍스트 작문 시에는 펜 작문에 비해 계

획하기 단계가 상당히 축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고 길이가 짧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앞서 살펴본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메신저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글을 쓰는 데에 익숙한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파악된다.

위에서 살펴본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과 작문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계획하기 단계의 변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자료를 가상 공간에서 보고 쓰고 즐기는 시대가 찾아왔다. 비선형성, 무경계성, 다연결성, 개방성과 같은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은 작문 과정은 물론이고 작문에 대한 개념 자체를 뒤바꾸어 버리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은 메신저나 대화방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고려해볼 때에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계획하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해당 단계가 매우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sup> 그러므로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계획하기 단계가 더욱 축소되거나 거의 집필과 함께 머리 속에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자료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펜을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탐색하기 단계가 새로이 추가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글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구상해 가면서 글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메신저와 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경우라면 자료를 찾거나 다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글의 필요와 성격에 따라 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2) 재고하기 단계의 변화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경우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계획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고하기까지도 생략해 버리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메신저를 통해서 친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사실 자판으로 글자를 치고 있지만 그것은 거의 입말을 자판으로 옮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매우 간단한 말들만이 오고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고하기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하이퍼텍스트 작문에서 경우에 따라 재고하기 단계가 생략되는 것을 하나의 특성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본다.

### 3) 편집하기 비중의 증가

펜작문에서는 이미 써 놓은 글을 재배치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이퍼텍스트 작문에서는 글의 첨삭과 수정이 용이하다. 또한 하이퍼텍스트 작문에서는 문단의 길이나 글자

5)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모든 글쓰기가 이와 같은 형태를 띤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글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많은 구상과 탐색을 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대부분이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친목 도모나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메신저, 대화방 등을 많이 사용하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크기, 색상 등이 가독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를 읽는 경우는 기존 인쇄물을 읽는 경우와는 양상을 보인다. 하이퍼텍스트 읽기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컴퓨터 부팅에서부터 홈페이지 이동과 화면 전체가 떠오르는 시간들까지 하이퍼텍스트 독자들은 속도에 지극히 민감하다.

대부분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용을 검색할 때에 전부 다 읽기보다는 훑어 읽으며 중요한 사항,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만을 골라낸다. 그 많은 정보를 일일이 다 볼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컴퓨터나 하이퍼미디어라는 매체의 특성상 빨리 검색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심리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자의 손에 책이 한 권 쥐어져 있다면, 독자는 그 책 이외에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해 또 다른 책을 보유하거나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 권의 책이 답을 수 있는 내용이나 주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이퍼미디어의 무경계성, 비선형성, 상호작용성은 독자가 단지 보고 있는 화면에만 붙어있을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자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이트, 다른 항목으로 새로운 항해를 떠날 수 있는 것이다. 하이퍼미디어라는 독특한 환경은 독자가 단지 한 곳에만 집중하고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나 결정성을 이미 와해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접속한 사이트의 내용을 빨리 보고 어디로 이동할지를 촉구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독자의 심리를 더욱 촉구하도록 부추긴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이트가 자신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지, 자신이 선택한 경로가 정말 효과적이며 타당한 선택인지를 계속해서 평가해가면서 텍스트를 읽어 내려간다.

따라서 이러한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는 텍스트를 정독하기보다는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내고자 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제목을 먼저 훑어보거나 첫 문단을 읽으면서 다음 문단을 계속 읽어 나갈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독자들이 텍스트를 훑어 읽도록 만들며,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내려는 심리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텍스트가 너무 길고 지루하거나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그런 것이 준비된 다른 사이트로 얼마든지 이동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연결에 대한 시간과 경비의 경제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텍스트를 정독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는 우리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느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누가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찾아내서 현실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이 더 많은 정보를 하이퍼텍스트 독자들의 구미에 맞게 제공하려는 많은 포털 사이트와 갖가지 주제에 따른 홈페이지들이 속속 개설되고 있다. 이제 하이퍼텍스트 독자들은 자신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마치 뷔페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고 선별하며 자신에게 구미에 맞는 음식을 가려내고 선택하듯이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상업성을 띠는 홈페이지의 경우는 독자들의 방문 회수가 결국은 경제적인 측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독자가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묘책을 강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홈페이지 자체의 프레임이나 구성이 좋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각 메뉴에 따른 내용이 적절하고 유용할 때에만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찾아 나서는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을 알아보기 쉽고, 읽어보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

#### 4) 필자 요인의 변화

플라워와 헤이즈(Flower & Hayes)의 작문 모형은 필자의 인지와 이성이 작문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한 편의 글이 필자의 사고와 가치관 감정, 경험 등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작문은 필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필자의 가치관, 태도, 지식 등은 글쓰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퍼미디어 환경은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문 과정에 필자의 의견뿐 아니라 독자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독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사 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이 신문 시대에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만을 보던 독자들이 인터넷 신문에서는 독자 의견을 올릴 기회가 많아져서 기사 자체에 대한 의견이나 집필 방향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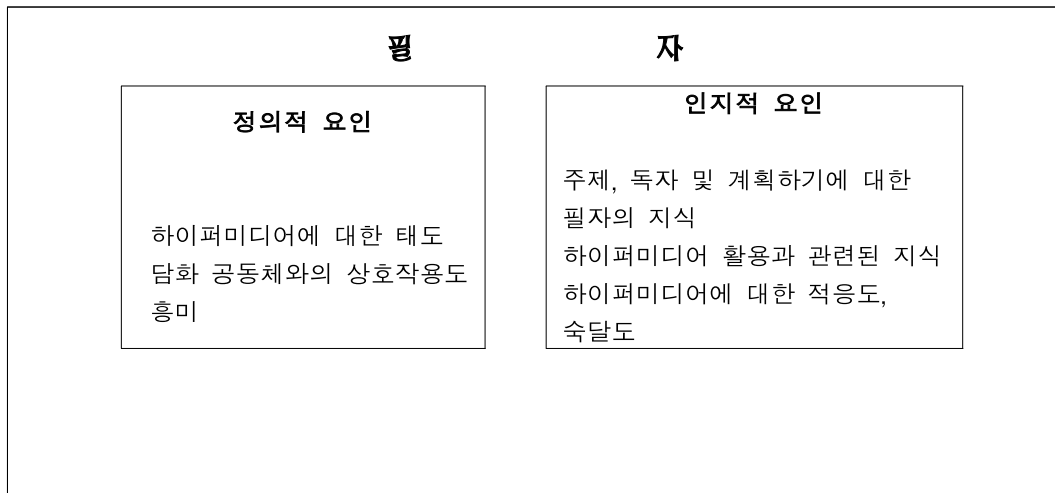


<그림 1> 중앙일보 토론방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많은 독자들이 독자 의견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독자들은 서로 같은 취지와 목적이 맞다면 가상 공간에서 쉽게 동호회를 만들고 같이 연합하는 응집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독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이외에 하이퍼텍스트 문학에서도 독자가 작가가 되어 이어 쓰기가 가능함으로 인하여, 텍스트는 언제나 가변적이며, 개방적이다. 아울러 독자가 문학의 작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작가는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이퍼텍스트 작문

에서는 필자의 지식이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담화 공동체로서의 참여자 혹은 독자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하이퍼미디어 공간을 통한 독자와의 많은 유대와 교류의 정도가 그들의 의견 수렴과 글의 내용 및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고 유연해야 하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를 통한 정보 수집이나 탐색, 작문 과정 등이 낯설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적응과 친밀감, 숙달도, 관련 지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문에 영향을 끼치는 필자 요인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필자 요인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주제, 독자 및 계획하기에 대한 필자의 지식뿐 아니라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적응도나 숙달도도 작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 작용의 폭이 클수록 작문 과정과 내용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 5) 작문 과정 자체에 대한 집중력 감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하이퍼텍스트는 수많은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정보가 노드 단위로 배열되고 연결되어 있다. 또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히 문자 위주의 쓰기라기보다는 보고, 듣고, 읽는 기능들이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종이에 글을 쓸 때보다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기 힘든 성향을 띠는데, 여러 가지 색상의 사용, 팝업 창처럼 화면에서 움직임이 큰 텍스트들이 존재하는 것, 소리나 동영상, 여러 모양의 글자체 등의 배열로 말미암아 필자가 집필 중인 글에 집중하기가 훨씬 어렵다. 또한 메신저와 같이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할 때에는 작문을 한다기보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받으며, 대화 상대자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게 되므로 집중해서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하이퍼미디어 환경의 작문은 계획하기와 작성하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상 탐색하기 단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탐색하기는 글의 종류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재고하기 단계도 메신저와 같은 의사소통 형태에서는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편집하기는 하이퍼텍스트의 성격상 중요성이 부각되는 단계이다.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에 너무 뽁뽁하게 내용을 보여준다든지 문자로만 모두 처리하는 방법은 독자에게 흥미

를 주기 어렵고, 읽기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좋은 내용을 가진 작문이 되도록 글의 내용에 신경을 쓰는 만큼 글의 배열과 구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작문에 영향을 미치는 필자 요인도 하이퍼미디어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필자의 주제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담화 공동체와의 교류와 수용의 자세 등이 새롭게 부각되는 요인들이다.

#### 4. 프로필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작문 교육 방안

앞에서는 글쓰기 환경과 표현 매체의 변화에 따른 작문 과정의 변화와 하이퍼텍스트작문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징은 한국어 수업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똑같은 자기 소개라고 하더라도 표현 매체와 상황에 따라 글을 쓰는 과정과 표현 방식, 내용 구성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학습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필요에 맞는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작문 방식과 표현 양상도 다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처한 상황이나 표현 매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글쓰기를 해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 프로필의 형식은 일반 작문의 자기 소개와는 확연히 다르다. 먼저 일반 작문의 자기 소개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연대기적 기술이나 자신의 특성, 장점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하이퍼텍스트 작문에 비해 문장의 완성도가 높다. 또한 글의 특성상 자신의 연락처나 전자우편 주소 등은 일반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하이퍼미디어 환경에서의 프로필은 연대기적인 기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용도 자신의 개성과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구성되며, 전자우편 주소나 연락처가 대부분 첨가된다. 또한 빠른 읽기를 위해 문장 중심이라기보다는 핵심어 중심의 나열에 가까운 구성을 보인다. 따라서 작문 상황과 맥락, 매체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다른 형식의 글이 될 수 있음을 학습자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하이퍼텍스트 작문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학습 목표

- ① 작문 환경과 매체에 따라 자기 소개 표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필자의 집필 목적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해서 한국어로 글을 쓸 수 있다.
- ③ 프로필을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 B. 학습 지도안

1.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홈페이지에서 프로필을 읽어보거나 작성해 본 적이 있는지 학습자에게 질문한다.</li> <li>- 준비한 프로필 자료를 제시한다.</li> <li>- 프로필의 내용과 구성이 일반 자기 소개서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학습자에게 질문한다.</li> </ul>

<b>2. 활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에게 여러 개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로필을 찾아 보고, 프로필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소그룹 활동)</li> <li>- 학습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로필을 찾아 보고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li> <li>- 학습자의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여 주고, 프로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준다.</li> <li>- 학습자에게 자신이 직접 프로필을 작성하여 웹에 올리도록 유도한다.(개별 활동)</li> <li>- 학습자는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웹에 올린다.</li> <li>- 작성한 프로필을 모아서 서로 나누어 읽고 평가한다.</li> </ul>
<b>3. 마무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펜 작문과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차이를 학습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필자의 집필 목적과 의도, 표현 환경과 매체에 따른 적절한 글의 형식과 내용을 활용하도록 주지시킨다.</li> </ul>

## 5. 맺는 말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작문 과정과 표현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과 작문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터넷 이용으로 인하여 메신저나 대화방을 통한 의사소통이 빈번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글을 쓴다기보다 말을 자판으로 옮기는 것과 유사한 글쓰기 형식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이퍼텍스트 작문은 펜 작문에 비하여 계획하기 단계가 축소되었으며, 글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라는 특성에 따라 자료를 찾아 작문에 반영하는 탐색하기 단계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이퍼텍스트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글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종이로 인쇄된 글을 읽는 것보다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간단하고 읽기 쉬운 편집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펜 작문에서는 설정되지 않았던 편집하기 단계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앞으로 정보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러한 세태와 변화는 한국어 교육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새롭고 유익한 교수 방법이 계속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필요와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자료를 수업에 반영하여 보다 흥미롭고 실제적인 수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 청도대학 한국어학과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염 광 호  
(청도대학)

## 1. 교육목표에 대한 분석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본 전업에서 필요한 한국어의 어음, 문법, 어휘 등 일반 언어이론지식을 장악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의 능력을 갖추어 능히 대외사업, 경제무역, 문화, 교육, 과학연구 등 부문에서 번역, 관리, 교수, 연구 등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어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외국어학과의 배양 목표는 크게 두 개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어 전문 교육, 연구부문이나 정부의 대외사업부문 또는 군대, 세관 등 중요부문에 종사하는 고급전문인재 양성 위주이며 다른 하나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어 전문인재를 배양하는 이른바 실용성 위주의 학교이다. 그 외 적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이 두 가지 인재를 같이 배양하는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청도 대학교 한국어학과는 ‘혼합형’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작년과 금년에 졸업시킨 본과 생들의 취직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기관	부대	한국 대기업	국내 대기업	출국 유학	한국중 소기업	국내중소 합자기업	사업 단위	기타	합계
98학번	3	5	2	0	5	2	1	2	0	20
99학번	3	1	7	1	3	1	1	2	1	20

물론 위의 상황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각각 졸업시기의 취직상황이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지방학교인 관계로 정부기관에 간다해도 기껏해야 지방 현,시급의 ‘대외무역국’ 또는 ‘초상국’(招商局)같은 부문에서 번역일군으로 일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간다 하여 반드시 가장 우수한 학생이어야 하거나 또 아주 잘 등용된다는 것도 아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배양하는 학생들의 대체적인 출로가 짐작된다. 예상컨대 앞으로 몇 년간은 상기의 취업상황과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우리 학과의 배양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방정부거나 사업단위 및 한국독자기업 또는 중한합자기업 등을 위해 번역인재거나 관리인재 배양’하는 것이 주된 과업으로 된다.

## 2. 현실 상황과 대비하여 본 교육과정의 문제점

(1) 배양목표와 교육과정의 배치가 과학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배양목표에 이미 ‘대외사업, 경제무역, 문화, 교육, 과학연구 등 부문에서 번역, 관리, 교수, 연구 등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어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힌 이상 항상 ‘번역, 관리’인

재와 '교수, 연구'인재를 동시에 배양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수요를 보면 그래도 '번역, 관리'인재를 더 수요하고 있다. 또 그렇다고 '교수, 연구'인재 배양도 전혀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후자의 배양에는 '실용성'보다 '이론'이 더 강한 지식이 수요된다. 때문에 교육과정에도 기초지식 외에도 '언어학이론', '한국문학사', '한국어문체론', '한국어개론', '한국어규범' 등은 '이론'이 강한 '교수, 연구' 인재배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무역한국어', '과학기술한국어', '응용문습작', '동시 통역', '신문잡지열독', '한국경제와 과학기술' 등은 이른바 '실용성'이 강한 '번역, 관리' 인재 배양에 보다 유용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개황', '중한문화비교', '명작품흥상', '영화감상', '당대중한관계사', '한국사회와 문화' 등은 한국문화지식을 풍부히 하기 위해 설정한 '선택과목' 들이다. 상술한 교육과정을 교수계획에서 대부분 7-8학기에 배치해 놓았기에 실천하자면 어려움이 적지 않다. 위선 수많은 선택과목이 이 시기에 집중된다. 교수과정 배치대로 하면 7학기에 도합 7개 과목을 배워야 하며 8학기에 도 역시 7개 과목이나 된다. 물론 이 많은 학과목을 다 완수 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8학기에 졸업실습 4주와 졸업논문 1주를 빼고 나면 근본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학과목 배치 요구에 전업선택과 비율이 반드시 5% 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형식적이거나 세워 놓고 있다. 당연히 이런 학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좋은 점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을뿐더러 교과서, 교원 및 교수안준비 등이 다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른바 '번역, 관리'인재 배양이나 '교학, 연구'인재 배양을 위해 설정한 교과과정들을 완성한다는 것은 공담에 그치고 만다.

## (2) 기초이론 지식 전수와 기본기능 훈련을 고루 돌봐야 한다.

배양목표에 밝히다시피 '본 전업에서 필요한 한국어의 어음, 문법, 어휘 등 일반 언어이론지식을 장악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하기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기초지식인 '어음, 문법, 어휘'도 잘 알아야 하거니와 기본기능인 '듣기, 말하기, 쓰기, 번역하기'도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배양된 학생은 가장 이상형이 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처럼 완전무결한 학생을 배양한다는 것은 아주 높은 요구이다. 우리가 해마다 배양하는 학생들 가운데 기본상 이 요구에 부합되는 학생이 3-4명 정도면 괜찮은 셈이다. 기초지식장악여부는 당연히 기본기능표현여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기능가운데서도 제일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듣기와 말하기이다. 아무리 쓰기와 번역을 잘 한다해도 듣기와 말하기가 따라가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교원과 학생들은 모두 듣기와 말하기 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확실히 이면에 뚜렷하면 취직에 별 문제가 없다. 우리 학과에서는 이를 위해 몇 가지 교수방법과 대책을 연구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비교적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첫째, 회화과 교수를 될 수 있는 한 중국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교수를 채용한다. 초급단계의 강의부터 학생들에게 한국인 교수가 직접 수업하게 하여 '회화', '듣기', '시청각훈련' 등에서 처음부터 한국어직접접촉 교수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을 동원하여 한국유학생들과 사귀게 하고 또 한국인가정에서 가정교사를 하게 하도록 적극 추천해준다. 셋째, 재학 중에 교류학생으로 한국에로의 유학을 적극 권장한다. 학교 대외사업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한국의 경희대학교, 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등에 교류학생으로 학기마다 10여명의 학생을 반년 혹은 1년 코스로 유학을 보내고 있다. 넷째, 해마다 청도시 한국상회, 청도시 한국문화학교, 청도시정부대외무역국 등에서 조직하는 무역상담회, 스포츠대회, 문화활동, 등 활동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단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기초지식면에서 이를테면 문법지식전수, 기초어휘량제고 등변에서 차질을 빚어내고 있다. 위선 해마다 10여명의 학생을 한국에 보내면 많은 경우에 근 절반이거나 또

는 3분지1의 학생이 텅빈상태로 수업을 하게된다. 다음으로 한국에 간 학생도 서로 다른 학과에서 배우기에 배운 내용마저 각이하다. 어떤 학생이 어학당에 가는가 하면 또 일부는 국어국문학과에 직접 들어가 배우는 학생도 있으며 심지어 경제학이나 무역학을 배운 학생도 있다. 이렇다 보니 귀국한 후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엄청 난다. 특히 이시기 국내학생들이 배우는 문법 등 기초 지식을 배우지 못하다보니 듣기와 말하기는 잘 하지만 문법지식, 정독과 교재에 출현한 기초어휘 등이 차하다. 때문에 국내연구생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흔히 이상적인 성적을 따지 못했다. 반대로 국내에 있는 학생들은 ‘쓰기’와 ‘번역하기’는 제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듣기’와 ‘말하기’는 또 유학한 학생들에 비해 큰 차이를 가진다.

(3) 고급 학년의 교재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고 한국인 교수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3,4학년에 와서 많은 선택과문의 교재가 없는 상황 하에서 특히 한국 측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한두 권의 교원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우리와 같은 지방대학에서 한국인교수채용은 아주 피동적이다.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한국인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의 각 대학에서 휴가 차에 한국어강의를 지원하려는 국어국문학 교수들을 모시려고 해도 모시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건이 되면 지방대학에서도 한국어전공의 학자들을 모실 수 있었으면 교원들의 한국어 수준과 교수 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많으리라 믿는다.

### 3. 앞으로의 타산과 개진방향

(1) 배양목표를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관계를 잘 처리해야한다. 한국어학과건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학교에서의 학과지위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전 국내 각 대학들에서 다투어 규모를 확대시키는 바람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해마다 한국어학과 신입생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학교측의 요구니까 별수 없지만 자칫하면 교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 때문에 교수 질을 바짝 틀어쥐어야 한다.

(2) 학생들의 취직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하면서도 적당히 학생들에게 높은 차원의 언어문화지식전수도 잘 해야 한다. 최근에 불어다치는 취업난으로 학생들은 졸업 1년 전부터 취직에 신경을 쓴다. 때문에 4학년에 와서 착실히 공부하려는 학생보다 취직구명수를 노리는 학생들이 더 많다. 4학년 후학기에 와서 워낙 들떠 교실에 안전부절못하면서 억지로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더구나 교재도 변변치 못하고 교수시간도 보장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의 학습흥취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여 교수 질을 보장해야 한다.

(3) ‘듣기’, ‘말하기’와 ‘쓰기’, ‘번역하기’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듣기’, ‘말하기’는 표면에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원이나 아주 중시하며 졸업생을 채용하는 단위들에서도 아주 중시한다. 그러나 좀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쓰기’, ‘번역하기’를 절대 홀시할 수 없으며 모종 각도에서 보면 반드시 잘 알아야 할 기초지식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듣기’, ‘말하기’만 잘 하고 ‘쓰기’, ‘번역하기’는 어지간히 응수할 수 있으면 만족하고 더 깊이 노력하지 않는 학생이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양자관계를 잘 처리하여 보다 고급형 인재를 배양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차 해외 한국언어문화 워크숍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언어문화적 접근**

---

2003년 9월 29일 인쇄  
2003년 10월 1일 발행

---

발행인 성 기 철  
발행처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3-29 도영빌딩 501호  
전화: 82-2-554-2951  
전송: 82-2-554-2931  
전자우편: sungchul38@hotmail.com

---

제 작 한 국 문 화 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656-1683  
전화: (02) 464-7708, 3409-4488  
전송: (02) 499-0846  
전자우편: hkm77@korea.com  
홈페이지: www.hankookmunhwasa.co.kr  
등 록 제2-1276호(1991.11.9.)

---

[비매품]

※이 발표 논문집은 한국문화사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